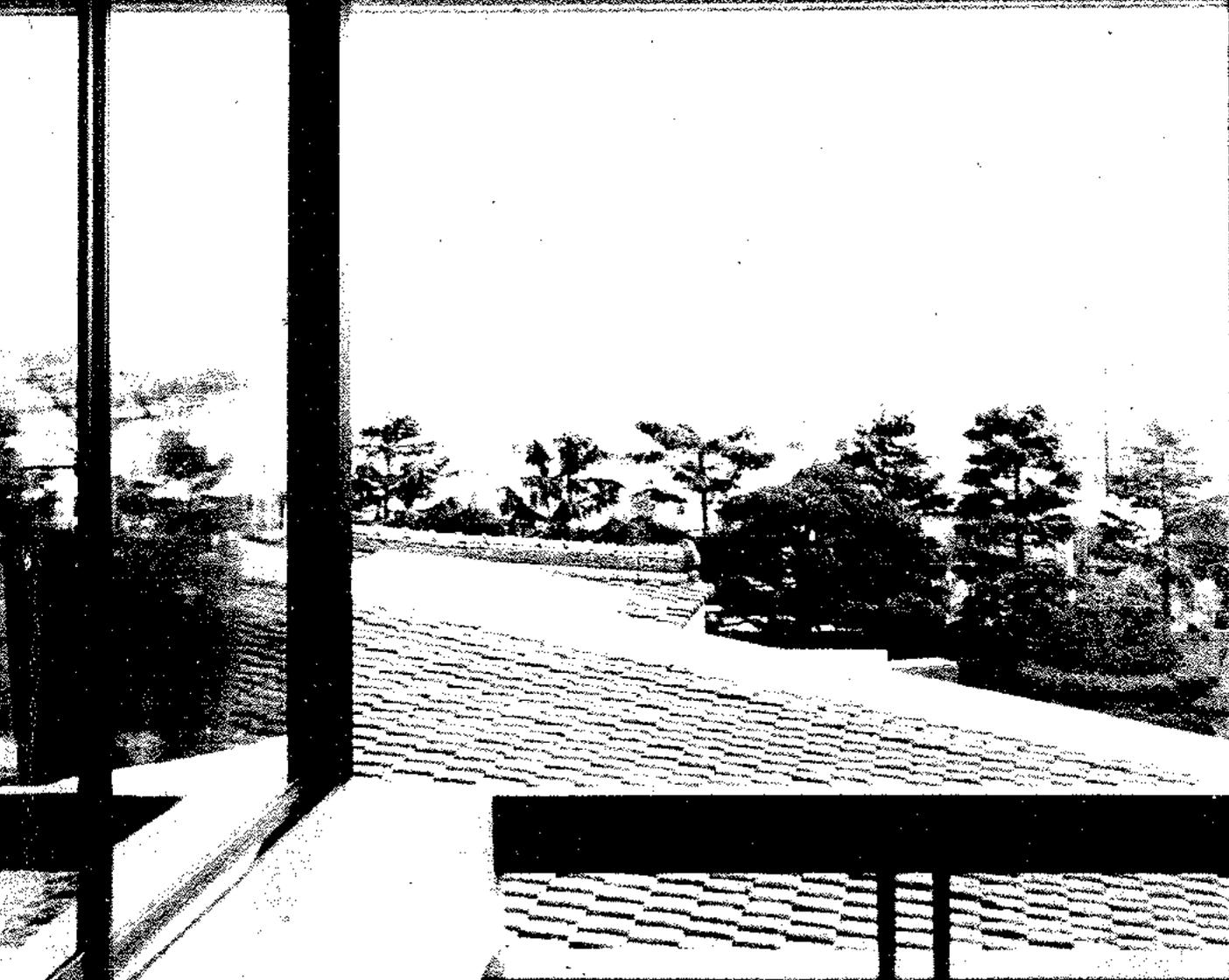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創刊日誌：1954年 1月29日 登録番号：前外-1251 月刊誌建築士
発行日誌：1979年 1月30日 毎月1回発行 価格：\$109

1979 1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月刊 建築士

1979. 1

目 次

■ 会長新年辞	2
月間協会動静	5
会員動静	6

□ 論壇

都市再開発の 基本方向 學術討論會論文	
都市空間計剛과 再開発	朴炳柱 8
APT地区内 建築의 適正容積率 및 建蔽率問題	尹定燮 17
建築体系를 通해서 본 形態構成과 表現方法(2)	尹道根 25
紀行文 南美 코롬비아 · 페루篇	崔昌奎 32

■ 會員作品

가) 柳光弘	라) 康晋参	사) 洪哲洙
나) 朴亨三	마) 車東明	아) 劉圭成
다) 尹鳳源	바) 鄭昭	자) 朴東熙

會員코너 科學—人間	尹太鉉 65
工業配置法, 施行令, 規則	68
1978年度 會誌「建築士」目次	80
海外作品	A + U 86
建築許可統計	99

編輯委員會
 委員長 金正澈
 委員 吳昌熙
 " 尹道根
 " 尹鳳源
 " 尹太鉉
 " 李璟會
 " 李文輔
 " 李廷德
 " 洪性穆
 가.나.다.順

發行人兼 編輯人 · 金斗燮 / 登錄番号 · 第타-1251号
 登錄日字 · 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 · 1979年 1月31日 / 通卷 第119号
 發行所 · 大韓建築士協會 / 住所 · 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非売品〉 電話 : 73-9491-2

印刷人 : 郭得龍 (三文印刷所) 中区 乙支路 3 街
 21-7676



新 年 辭

敬愛하는 會員여러분

그 어느해보다도 多事多難했던 戊午년도 저물고 이제 希望찬 己未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와 더불어 不徳하고 未洽한 本人이 当協會會長의 重責을 지게되었음은 會員여러분의 平素의 끊임없는 指導와 声援의 德分으로 저의 생애에 다시없는 榮光으로 여기오며 衷心으로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이 어려운 時期에 주어진 責務를 다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일겁니다만 會員여러분에게 報答하는 길은 感謝하다는 美辭보다는 오직 知·誠·熱을 다하여 奉仕하는 것이라고 마음속깊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当協會에 많은 試鍊과 刑刺의 길을 걷게했고 우리에게 가장 所重한 總和와 信賴에 富을 가계한 不運의 해였습니다.

当協會는 바로 여러會員의 요람입니다. 協會를 放觀하고 非評하는 일은 이제는 삼가하여야 될때라고 봅니다. 本人은 全體會員이 새해와 더불어 지난일은 一掃하고 總和團結하여 当協會의 懸案의 問題들을 平溫속에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데 積極的인 參與와 協力하여 주실것을 懇曲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새로出汎한 저희 任員陣은 過去의 經驗을 살리어 다음 二大目標에 力點을 두어 期必코 成就할것을 約束드리며 協會 業務를 推進하겠습니다.

첫째 : 協會運常體制를 改善整備하겠습니다.

1. 한團體를 몇안되는 그것도 名譽職인 任員들만으로 運常하는데 問題가 있음을 痛感하고 非常設機構나마 諮問委員會를 構成하여 全會員이 共感할 수 있는 核心點을 찾아 執行에 옮기고 完全公開運常을 꾀하겠습니다.

2. 事務処를 完全 整備하여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協會運常의 本然의 姿勢인 議決과 執行의 区分을 分明히 하여 運常하겠습니다.

3. 急變하는 建築情勢와 新技術에의 對處 會員의 品位向上等を 爲하여 建築界의 余他團體와 友誼를 強化하고 汎建築人의 協議機構를 마련하여 相互協力하는 體制를 確立하고 本協會로서의 特性을 살려 業務를 推進하겠습니다.

4. 政府經濟政策에 따른 建築抑制策에 따라 今年度에도 會員의 業務量이 減少될 憂慮性이 있음으로 制度的인 改善策을 마련하여 收入을 增大시키고 支出을 最少限으로 抑制 節約하여 協會 살림에 支障이 없도록 最善을 나 하겠습니다.

5. 對官庁과의 尤대를 돈독히 하여 諸般 業務處理를 신속하고 절도있게 運營하겠습니다.

둘째 : 會員의 福祉向上 및 權益옹호에 盡力하겠습니다.

1) 不合理한 現行 報酬料率을 設計費와 工事監理費를 区分하여 現實에 適合토록 早速히 研究하여 改正토록 하겠습니다.

2) 監理費의 報酬도 받지못하면서 行政処分을 當하고 있는 不合理한 現實을 탈피 監理業務의 妙를 살리어 監理團을 構成 正當한 報酬를 받고 健全한 業務를 遂行함으로써 國家와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建築士像을 浮刻시킴과 同時에 會員의 身分保障은 勿論 權益에 浸害가 없도록 早速히 研究하여 實行에 옮기겠습니다.

3) 稅率引下.

過重한 稅 負擔으로 事務所運營難에 허덕이는 大多數會員의 現行稅負擔額을 會員들의 現實에 適合하게 引下 調整되도록 다같이 努力하여야 겠습니다.

類似 業種에 比해 高率인 現行 所得標準率을 最大限 引下 調整토록 함은 勿論이고 해마다 前年에 比해 몇10%式 引上調整되는 課表額의 現行 認定課稅制度는 매해마다 設計用役 受注에 起伏이 많고 案件의 음폐없이 完全露出되는 設計用役을 營爲하는 저희 建築士에게는 不適合한 制度임을 主務部의 協調를 얻어 關係要路에 建議하여 現實情에 適合한 實地 用役契約에 依한 設計費 年間 總額으로 課表되도록 制度的인 改善에 重点을 두고 最善을 나 하겠습니다.

大韓建築士協會
會 長

金 斗 燮

新任會長團 名單 및 略歷



金斗燮 會長

1928. 11 生

평양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공군대위로 예비역 편입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 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총무간사
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현 농업 건축 개발 연구소 대표



朴 禹 夏 總務理事

1932. 6 生

한양공과대학건축과 졸업
국립건설연구소건축기준과장
건설부 주택도시국 건축과장
서울시청도시계획국 건축과장
대한건축사협회이사
현경신건축공사 대표



金圭泰 理事

1933. 1 生

한양공과대학건축과 졸업
동아대학교공대감사
대한 건축가 협회 부산시지부장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
대한건축사협회이사
항도건축설계사무소설계 사무소
대표



韓永洙 理事

1927. 1 生

경성공립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육군공병 대위로 예편
대한건축사협회이사
대한합동설계공사 대표



金正澈 理事

1932. 8 生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 대학교 최고경영자 대학원 졸업
우남회관(시민회관) 설계
한국건축가협회이사
대한건축학회평의원
산업동참훈장수여
정림건축연구소 대표



朴成圭 監事

1935년 8 生

한양공대 건축과 졸업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서울시 중구 도시경비위원회 위원
대한건축사 협회 총무이사
합성건축기술공사 대표



朴來運 理事

1935. 9 生

성동공업고등학교건축과졸업
미국위스틴호크호바 농공대학입학
허가 받음
문교부 해외유학생 자격시험합격
대한건축사협회감사
우신건축 연구소 대표



李鍾壽 監事

1920. 8. 生

일본 내관공대 건축과 졸업
부산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부산시 문화위원회 건설위원
한국 건축가 협회 부산시 지부장
대한건축사 협회 부산시 지부장
부산 동성 건축 설계사 대표

가 나 나順

1979년 제1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1979. 1. 9
2. 장 소: 본협 회의실
3. 결의사항: 가) 총무이사 및 각 위원회 담당이사들 다
음과 같이 결정하고 각 위원구성은 회
장 및 각 담당 이사에게 위임토록 결의.
총무이사: 박우하 이사
윤리위원장: 김규태 이사
편찬위원장: 김정철 이사
건축연구위원장: 한영수 이사
나) 직원 급료 기준표 개정은 회장, 총무
이사, 박래운 이사에게 20%내에서 위
임 집행하되 직원 승급에 관한 사항은
인력 감사후 차기 이사회에서 조정토록
결의.
다) 직원 보충 및 직제변경에 대하여는 인
력감사후 결정키로 결의.
라) 건설자재 총량 발간 추진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회부
토록 결의.
마) 건축에서 전통의 계승 발전에 관한 방
안 추진에 대하여는 건축연구 위원회에
서 연구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나루
도록 결의.
바) 열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의 구조에
관한 연구완료 보고 및 동 보고서를 추
인토록 결의.

제12회 편찬위원회 개최

1. 일 시: 1978. 12. 21
2. 장 소: 본협 회의실
3. 토의안건: 가) 11월호 회지합평 및 12월호 편집계획
(안) 검토
나) 기타 사항
4. 참 석: 위원장(임시): 유경철
위원: 오창희, 안기태, 이문보, 정일영,
윤도근

사) 1978년도 예산의 총회비 중

서울지부 총회비: 24,000원
지부장회의비: 서울 6,000원
부산: 33,000원
강원: 23,000원
충북: 22,000원
충남: 22,000원
전북: 24,000원
전남: 25,000원
경남: 33,000원
계: 188,000원

과관리비용 수선 수수료 서울지부
370,000원
차량비 서울: 81,120원
경기: 45,045원
임대료 전북: 71,420원
계: 567,585원

사업비 중 교육훈련비 본부1,122,950원
을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추인 결의하고
전남지부 도서 인쇄비68,300원과 행
사비31,000원 계: 99,300 원은 감사후
결정키로 결의.

4. 참 석: 회장: 김두섭
총무이사: 박우하
이 사: 김규태, 김정철, 박래운, 한영수,
감 사: 박성규, 이종수

가. 나. 나順

1979년 제1회 편찬위원회 개최

1. 일 시: 1979. 1. 20
2. 장 소: 본협 회의실
3. 토의안건: 가) 12월호 회지 합평 및 신년호 편집계획
(안) 검토
나) 기타 사항
4. 참 석: 위원장: 김정철
위 원: 오창희, 윤도근, 윤봉원, 윤태현, 박
이경희, 이문보, 홍성복,

(無順)

會員動靜

서울지부회원사무소이전

성명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면허번호	월일
임상익	임창건축	강남구천호동408-7	989-6544	1-31	19	11. 30
신현수	신건축	용산구원효로2가1-74	712-6626	51	422	11. 30
박원순	삼척건축	마포구성산동260-36	32-0834	222	222	11. 30
강주열	신건축	중구원효로2가1-74	712-6626	309	588	11. 30
임병태	신진엔지니어링	강남구반포동235	59-1060	319	500	11. 30
이강수	현대설계	영등포구당산동6가5	64-6400	314	74	11. 30
김병울	대영건축	도봉구수유동176-71	981-0803	323	621	11. 30
이정일	범신건축	강남구논현동253-6	57-6628	470	1098	11. 30
유승준	동아건축	동대문구 신설동102-4	602-3340	753	367	11. 30
김정문	정건축	영등포구여의도동1-60	783-0302	773	1250	11. 30
홍광표	광성건축	동대문구전농동2-102	967-2950	2-132	541	11. 30
강현술	동진건축	성동구자양동197-2	45-3507	249	951	11. 30
남찬우	남일건축	도봉구수유동191-38	988-0211	280	1349	11. 30

서울지부전입회원

이종성	서울삼성건축설계사무소	김천서평화동151-50	4259	5	2-386	12. 6
-----	-------------	--------------	------	---	-------	-------

경북지부회원사무소이전

최병달	협동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삼덕동1가8-4	45-1238	1-47	1-1273	11. 17
김성환	협동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삼덕동1가8-4	45-1238	1-48	1-1438	11. 17
우종수	협동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삼덕동1가8-4	45-1238	2-20	2-842	11. 17

부산지부회원사무소이전

김학경	재일설계사	중구동광동3가30-1	22-2038	1-18	192	11. 24
박위조	수광건축연구소	동구초량동1156-11	43-3773	1-100	933	12. 2
반미태	위신건축설계사	부산진구부전동266-12	3-3062	1-65	1012	11. 20

전남지부회원사무소이전

정옥진	삼우건축공사	광주시동구대인동312-19	2-6998	2	1-174	12. 11
-----	--------	----------------	--------	---	-------	--------

前 서울특별시支部 中央分所長, 本協編纂委員으로 手苦하시던 서울 同和建築研究所 代表 安箕泰會員 이 1978年度 定期總會에서 支部長으로 被選되었다.



安箕泰

略歷 漢陽工大建築科卒業
 韓國産業銀行勤務
 엄덕문建築研究所勤務
 建築學會理事
 建築家協會正會員
 弘益工專講師
 漢陽工大講師
 現同和建築研究所代表

本協 全北支部 新任支部長으로는 全一建築社 代表 金光瑞會員이 被選되었다.



金光瑞

略歷 延世大學建築學科卒
 延世大學建學院卒 大學
 株式會社 三友社 技術部長
 現全一建築社 代表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서울
 성 명: 이동주
 명 칭: 동상건축설계사무소
 소재지: 강남구 천호동410의184
 전 화: 48-7962
 면허번호: 2-93
 등록번호: 제497호
 월 일: 12. 5



본 적: 서울
 성 명: 정양섭
 명 칭: 유성건축연구소
 소재지: 마포구공덕동399-1
 전 화:
 면허번호: 2-348
 등록번호: 428
 월 일: 1. 10

서울지부회원사무소이전

성명	명칭	소재지	전화	면허번호	등록번호	년월일
유판열	신현대건축	강서구화곡동373-35	602-5978	362	45	11. 30
박희선	도봉건축	도봉구수유동191-38	981-2612	389	972	11. 30
라병인	동아건축	강서구화곡동13-3	602-3340	455	1332	11. 30

人事

本協 執行部 事務処長에 本部事業部長을 歴任한 李圭日氏가 1979년 1월 10일 부로 發令되었다.

都市空間計劃과再開發

朴炳柱

本稿는 서울産業大學, 首都圈問題研究所가 開催한 學術討論會 主題論文이 있음을 밝힌다.

1. 都心機能回復과 再開發

「都市内部의 各種 公共施設의 容량이 不足하여 混亂의 度가 限界에 이르렀다」고 表現하여도 요즘의 都市사람들은 크게 當황하지 않을것 같다.

「都心部の 機能이 麻痺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우리의 人体와 結付시켜 「心臟이 마비되기에 이르러 사람의 生命이 危險해지고 있다」고 하면 實感이나서 神經을 근두 세우게 한다.

現代社會의 焦點이 大都市와 그속에서의 人間生活에 있음을 肯定한다면 大都市의 生活環境施設의 量과 質에 關한 物的(Physical)인 問題가 日常生活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것도 새삼스러워 보아야 한다.

産業과 人口의 過渡한 集中, 集積, 社會間接資本의 大幅的인 不足, 生活基盤施設의 量, 質的인 落後等에서 起因하는 都市問題는 地價의 高騰, 出退勤交通의 麻痺, 交通事故, 環境汚染, 住宅難, 上下水道의 不足, 教育施設의 不足 등 數없이 많다.

이들은 人間生活을 阻害하고 있으며 區域 地區에 따라 問題別 深刻度의 差異가 顯隔하다.

어느 地域은 市街地形成이 오랜 歷史를 지녔지만 처음부터 比較的 環境이 잘 다듬어져 있었고 그 뒤 거기에 사는 住民들이 精誠들여 環境을 造成한곳이 있는가 하면 反對로 市街地形成當初부터 無秩序한 形成이 되어 現代都市機能의 遂行을 위해서는 全面的으로 再開發을 해야하는 老朽·非衛生·非能率的인 脆弱點 투성이의 地域이 있을수 없다.

우리나라는 傳統的으로 土地와 自己집에의 執着이 強해져서 特別한 일이 없는限 移徙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都市 特別히 大都市에서의 移徙頻度數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美國國民의 都市部の 年間移動率은 25%라고 하므로 平均 4년에 한번씩 移徙를 하는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移動의 樣相은 都市社會는 보다 좋은 選擇性을 要求하게 한다는 것을 立証하고 있는 것이고, 多樣한 各各의 價值觀과 嗜好에 맞추어 各個人의 生活에 알맞는 生活環境을 갖게 된다는데 注目해야 한다.

그래서 日常生活環境이 秩序있게 整頓된 곳에 많은 市民들이 살기를 願하고, 反面에 再開發을 要하는 無秩序한 環境속에 사는 住民은 그곳을 떠나기를 願하게 마련이다.

都市再開發은 既存의 老朽된 不良住居環境을 整備하는 것과 都心部の 諸機能을 回復하기 위한 改造整備를 目的으로 하여 새로운 時代에 生活을 위한 새로운 價值觀에 符合되는 都市環境을 創出하는데 있다고 한다.

都市再開發은 이토록 그 意義가 重且大하고 都市再開發의 效果는 매우 클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하므로 市の 財政이 許容하는 限 모름지기 都市再開發事業에 投資하기를 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隘路點이 가로놓여져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再開發事業을 잘못 理解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過誤가 큰 것으로 본다.

再開發은 建築의 容積率만을 높이는 計劃으로 錯覺한다든가, 아니면 再開發을 보다 많은 空地의 確保를 위한 것이라고 極端的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本稿는 서울特別市의 不良住宅 改良 再開發과 都心部 再開發의 現況 分析을 하고, 서울市 建築條例 및 停車場條例를 中心으로 問題點을 抽出하여 都市再開發을 위한 諸方案을 模索하고자 한다.

2. 再開發의 対象 및 類型

現代 社會에 適合한 都市의 機能과 環境을 整備하는 手段으로서는 街路事業·公園事業, 土地區劃整理事業, 一團의 住宅地 造成事業 등이 있다.

家屋이 密集한 既成市街地를 整備改善해야 하는 경우는 建築物와 道路, 公園과 其他 都市施設을 一體的으로 한 平面的手法이 아닌 土地의 合理的 高度利用을 圖謀할 수 있는 主体의 手段이 要求된다.

都市再開發의 對象은 再開發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都市基本計劃의 土地利用方針에 副應할 수 있어야 하며 都市의 諸機能이 健全하게 效果的으로 遂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77年末 現在の 再開發事業 対象을 보면 <表-2>住宅 改良对象 建物數는 總 126,000棟으로서 既히 住宅改良 事業으로 改善한 建物棟數는 1974年에서 1977年末까지 5,951棟에 不過하다.

(表-2) 住宅改良再開發事業

總 括		77年度 現在			
區 分	地區數	面積(千坪)	%	対象建物棟數	備 考
區域指定	199	4,550	100	126,000	
都市計劃決定	83	2,032,054	46	58,440	
實施計劃認可	61	1,528,420	36	45,360	
公共施設完了	52 (88)	1,458,827	44	36,475	改良地區36個 包含
管理處分完了	22 (58)	928,991	42	5,951	改良地區36個 包含
建築計劃作成	22	928,991	100	2,443	存置除外

住宅改良事業이 이렇게 不振한 結果는 그만큼 이 事業에 隘路點이 많음을 示唆해 준다.

여기서 暫時 이 住宅改良再開發 対象區域內의 垆地 및 建物實態를 살펴보자.

<表-3> 住宅改良再開發對象地域內 住居實態

總 面積	4,550,000坪	備 考
対象住宅數	126,000戶	
垆地規模	平均 20.8坪	31坪 以上 - 13% 30-21坪 - 19% 20-11坪 - 33.6% 10坪未滿 - 34.3%
建築規模	平均 11.8坪	21坪以上 - 7.1% 20-16坪 - 16.8% 15-11坪 - 22.4% 10-6坪 - 37.3% 5坪未滿 - 16.4%

<表-3>에서보면 垆地規模에 있어 20坪未滿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約 85,000戶의 戶數에 該當된다. 建築規模는 10坪未滿이 53.7%(67,000戶)나 차지하여 不良住宅의 深刻度가 單的으로 窺보이고 있다.

이런 零細住民을 對象으로 自費負擔原則으로 住宅改良을 하려하니 큰 成果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背景아래 住宅改良改善費를 融資提供함으로서 住宅改良을 促進시켜야 한다는 데서 AID借款 1,000萬 \$ 交渉이 75年에 되었으며 서울의 玉水1~3地區, 미천1~3地區, 上溪1~3地區를 對象으로 78年6月까지 500萬弗이 引出執行되어 5,146棟의 住宅을 建築하였다.

過去 不良住宅 再開發事業의 実績은 한마디로 매우 不振한 狀態이고, 改良한 事業地區의 評價에서도 住居環境이 質的인面에서 水準級以上으로 向上 되었다고 할 수 없는 結果

가 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모처럼 힘을들여 住宅改良을 했다면 그 住居環境은 越等하게 向上되어 다시는 再開發이 必要치 않을 程度가 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再開發事業이 完了된 地區를 水準級의 住居環境으로 간주할 수 없다면 여태까지의 再開發計劃 自体가 根本的으로 問題點이 있기때문이라고 指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高地의 無許可不良住宅을 整備해야 한다는것은 서울의 幹線街路에서 쉽게 눈에 들어 오기때문이다. 都市民이나 外國觀光客에게 이러한 恥部를 들어낼 필요는 없다. 이런 可視圈의 高地의 不良住宅地區부터 環境整備를 한다고 해서 「表面爲主의 行政」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것이다. 臥牛아파트 事件은 이런 一聯의 高地不良住居環境整理를 지나치게 서두른 無謀한 行政의 副作用이였는데, 그以後 不良住宅再開發에는 一切 아파트計劃은 禁物이라고만 断定 하는 風土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經緯속에서 不良住宅事業이 單獨住宅 또는 2層4戶聯立住宅程度의 規模로 進行되어 왔었다. 이리다보니 原米가 零細低所得層의 住宅이므로 垆地規模가 적게 마련이고, 따라서 空地가 狹少하게 남게되어 全体的으로 보아 담담한 氣分이고 보니 여기서 다시 아파트計劃의 意義를 되새기게 한다.

한마디로 不良住宅改良再開發에서는 아파트와 連立住宅을 立体的으로 計劃하므로써 共同的 「오픈스페이스」를 確保해야 할 것이다. 各家口가 차지하는 戶當建築面積은 狹少해지더라도 環境空間으로서의 屋外 空間을 確保함으로서 快適한 零團氣의 造成에 寄与해야하기 때문이다.

不良住宅再開發에서의 아파트를 計劃的으로 開發하는 手法은 우리의 創作이 아니고 벌써 先進諸國에서는 오래 前부터 經驗을 通해 定着되어 있는 手法인 것이다.

서울市는 79년부터는 單獨住宅이나 4戶2層 聯立住宅 建設을 위한 細分割垆地造成에서 脫皮하여 街區單位로 轉換하여 아파트 및 聯立住宅爲主의 住宅改良再開發事業을 推進할 것을 決定하였다고 한다. 晩時之嘆의 感이 있으나 住宅改良再開發事業이 本軌道에 올라서게됐음을 기뻐하면서 큰 期待를 걸어본다.

4. 서울 都心部의 現況分析

서울市가 都心部인 第一次 循環線內部全域 및 그 周邊의 9.2km²를 對象으로 하여 1977年6月~12月에 걸쳐 KEPSI를 通해 調査한 資料 및 「78市政」을 中心으로 現況分析을 해보기로 한다.

먼저 <表4>土地의 地目別 現況을 보면 垆地의 比率이 68.7%로 매우 높고 垆地以外의 公共用比率, 즉 「오픈스페이스」의 比率이 31.3밖에 되지 아니한다.

<表-4>의 現況에 依하면 垆地以外의 公共用地中에서 道路率과 公園率은 各各 25.7%2.6보써 一見 보기에는 道

路率在想像外로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公園의 比率은 豫想그대로 낮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道路의 內容과 公園의 內容을 좀더 細部的으로 分析해 보면 <表5><表6>과 같은 内幕을 露出시킨다.

表-4) 地目別面積現況

區分	面積(坪)	比率(%)	備考	
總地	1,917,190	68.7	41772筆地	
公共用地	○道路	716,854	25.7	實際利用道路率은29% " 4.3%
	○公園	72,740	2.6	
	○河川	51,182	2.0	
	○雜種地 및其地	28,887	1.0	
	小計	869,663	31.3	
合計	2,786,853	100.0		

그러나 <表-5>의 道路率中 小路(幅12M未滿)가 차지하는 比率이 52%로 높은것은 뒷골목의 自動車가 들어가지 못하는 步道까지 包含된 것이며, 盡地面積의 狹少때문에 小路의 比率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와같은 傾向은 大都市일수록 都心 및 그 周辺地域의 住居密度나 建築密度는 過密한 狀態에 있어 防災的인 면에서도 憂慮되는 바가 많다.

過密한 住居環境, 狹少한 골목밖에 없어 自動車가 進入할수 없는 狀態로서 木造建物들이 密集해 있는 環境에서 火災가 發生했다고 假定해 보자. 延燒하기 쉽고 消防車가 進入할수 없어 消防作業에 큰 支障을 주게하는 結果를 想像해 보자는 것이다.

表-5) 幅員別 道路率

區分	比率(%)	備考
大路	34.5	25m 以上
中路	13.5	24.9m 以上 m12
小路	52.0	12m 未滿
計	100.0	

表-6) 公園率

區分	比率
古宮	68.1%
運動場	20.7%
一般公園	11.2%
計	100.0%

再開發의 對象은 이러한 過密地域으로 하고 있는듯 하나 事業推進에 對한 成果는 微微한것 같다.

住宅地의 뒷골목보다는 市街地內的 幹線道路擴張 整備가 優先되고, 旧市街地의 整備보다는 新市街地의 開發投

資에 優先하는 것이 市政의 全般的인 흐름이다. 그러나 過去의 市政이 6.25戰爭때의 避難民 住宅을 中心으로한 無許可 不良住宅의 整備에 集中하여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나 앞으로는 高地의 不良住宅改良과 뒷골목整理에 置重해 나갈것을 期待한다.

한편 中路(幅12-24.9M)의 比重이 3%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都市整備와 都市再開發 計劃에 있어서는 中路의 比率을 大幅的으로 높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農村새마을 緊落構造改善事業이 活發하게 進行되어 全國各地의 幹線路邊의 可視圈에는 住居環境이 말바꿈을 하고 있는 狀況이고 보니 더욱 對照的으로 大都市 裏面의 胞弱相이 露出되는것 같이 느껴진다.

다시 <表-6>의 公園率의 內容을 보면 古宮(德壽宮 宗廟 등) 運動場(서울運動場등)이 大部分의 面積을 차지하고 一般的으로 自由로이 市民이 出入할수 있는 普遍的인 施設 公園(近隣公園 어린이 놀이터 小公園등)은 地目上 公園面積比率 2.6%가 0.3%로 바꾸어 져야하는 形便이며 實際上一般公園은 比率은 0.5%밖에 되지않는 狀態가 되고있다.

<表-7>과 <表-8>은 土地의 規模와 形態를 나타내는 데, 새삼 垵地分割의 零細性을 實感케한다. 平均 垵地筆地面積이 50坪에 未達한다는 것은 그위에 建立된 建築物의 規模가 그만큼 小規模하다는 것을 暗示해 주고, 垵地의 大規模 즉 建物의 大規模化를 위한 再開發의 共同化를 推進하려면 權利關係者가 그만큼 많아져서 隘路가 생긴다.

한편 土地形態를 보면 正方~長方形이 35.9%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不整形한 土地가 많음을 나타낸다. 三角型, 掘曲이 많은土地, 細長型的 垵地가 이토록 많은 까닭은 都心部의 原來의 市街化 過程이 自然發生的으로 無秩序 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或者는 「옆집과 協議하여 合筆을 하고 그뒤 整形되게 分割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登記關係, 稅金關係에 對한 現行法으로서의 不可能할 정도로 難望한 일이며 이의 손쉬운 解決方案을 時急히 講究해야 한다.

表-7) 土地의 規模

平均單位筆地面積	56.4坪
平均垵地筆地面積	45.9坪

土地의 所有別現況은 <表-9>國公有地가 45.5%나 된다는 것을 注目한다. 그런데 仔細히 따져보니 이들 國公有地는 道路 또는 公共建物로서 차지하여 空地는 거의 없는것 같이 失望케 한다.

〈表-8〉 土地의 形態

區 分	筆 地 數	比 率
正 方~長 方 型	13,906筆 地	35.9%
三 角~多 角 型	13,683筆 地	35.3%
円 形~屈 曲 型	10,340筆 地	26.7%
細 長 型	816筆 地	2.1%
計	38,745	100.0%

조그만 施休空地가 있더라도 小公園 등 公園空地로 活用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다시는 國公有地를 扠下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할 할 것이다.

表-9) 土地 所有 別 構成

區 分	面 積	比 率
私 有 地	1,084,633坪	38.9%
國 有 地	716,738坪	25.7%
市 有 地	548,601坪	19.7%
法 人 所 有 地	436,881坪	15.7%
計		100.0%

다음은 建物の 現況에 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建築規模, 建弊率, 容積率, 建築狀況에 對한 調査가 되어있다.

먼저(表-10)을 보면 棟當平均延床面積이 적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結局 土地規模가 零細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 都市의 土地利用에 對한 두드러진 問題點中의 하나는 計劃的인 都市建設을 한 地域이 많지 못하며, 零細한 土地所有形態위에 可燃資材가 많은 住宅이 密集하여 無秩序한 市街地가 形成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地域은 道路는 狹少하고 下水處理가 不備하고 日照圈의 侵害를 받게되며, 老朽한 建물이 많으며, 工場과 店舖와 住宅이 混在되어 非衛生, 非能率的인 都市環境이 기 마련이다.

都心部에는 商店, 事務所, 料食 및 娛樂業 등 經濟活動의 盛行으로 周邊의 住宅을 浸蝕하여 都心商業業務 地區의 面積이 擴大一路에 있다.

그런가하면 都心部의 土地利用에는 많은 隔差가 엿보인다. 그것은 土地價格이 高價한 탓으로 土地를 그만큼 高度하게 利用하고 있는 正常的인 行態에 對해 非効率的인 現狀을 그대로 放置한채 地價의 昂騰을 더욱 期待하면서 機會만을 노리고 있는 케이스가 意外로 많아 土地資源의 効率的 活用을 바라는 社會的 要求에 逆行하는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逆說的인 論理같지만 都市空間의 均衡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零細하고 不整形한 土地위에 各樣各色的의 小規模의 鉄筋콘크리트 建築物을 容積率만 높여서

보족한 이른바 「鉛筆밀딩」들을 亂立시키고 것보다는 現在와 같은 老朽의 零細木造建物を 당분간 그대로 利用하는 것이 撤去의 容易性等으로 오히려 將來의 再開發 事業時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表-10〉 建築 規模 現況

가. 調査對象地域面積	2,786,853坪
● 垜地	1,917,190(41,772筆地)
● 建물이 있는 垜地	1,150,000坪*(25,081筆地)
● *空閑地率	40%*(筆地)
나. 建築規模	
● 總建物棟數	28,685棟
● 總建築面積	626,754坪
● 總延床面積	2,082,066坪
● 棟當 平均建築面積	71.7坪
● 棟當 平均延床面積	21.6坪
다. 建弊率	
總地域面積比(Gross)	22.4%*
建물이 있는 總垜比(Net)	54.5%*
라. 容積率	
總地域面積比(Gross)	79.7%*
建물이 있는 總垜比(Net)	181.1%*
平均層數	3.3層

*는 筆者의 修正計算值임.

〈表-11〉 建物 用途

區 分	棟 數	比 率
住 宅	12,841棟	51.2%
店、舖	6,051棟	24.1%
店舖+住宅	1,049棟	4.2%
店舖+事務所	695棟	2.8%
其 他	4,445棟	17.7%

建 築 年 度	棟 數	比 率
1945年 以前	8,208棟	28.3%
1946~1955	3,541棟	12.2%
1956~1965	10,211棟	35.2%
1966~1970	4,470棟	15.4%
1971年 以後	2,590棟	8.9%

建 築 構 造	棟 數	比 率
라 엔 造	5,390棟	18.7%
租 積 造	6,652棟	23.3%
木 造	16,643棟	58.0%

특히 이 表에서 注目하게 되는 것은 建築率과 容積率 이 될 것이다. 그런데 純建築率은 平均54.5%나 되어 土地의 高度 利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으나, 容積率은 平均 181.1%밖에 되지 않았다. 容積率이 300%以上, 建築率이 70%以上인 地域은 小公洞과 鍾路1街 등으로 나타나 있다.

서울의 都心機能을 擔當하고 있는 高密地域임을 立證하고 있다. <表-11>은 建物の 用途, 建築年度, 建築構造를 調査한 것이다. 建物の 用途에서 住宅이 5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얼핏 보아서 는 住宅이 아닌 店舖나 事務室 比率이 더 높을 것 같은데 平均値로서는 이런 程度밖에 不되는 것 같고 中區에서도 住宅이 차지하는 比率이 41%나 된다.

建築年度가 오래된 것 즉 1945年以前의 建물이 28.3%나 되는데 이 속에는 建物の 耐久年限이 지난 老朽된 危險建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며 木造建물이 全體의 58%나 된다는 것도 相對的으로 建築의 質이 좋지 못한 것이 많음을 보여준다.

市街의 不燃化를 위한 整備의 必要性이 強調되어야 하겠다.

이런 分析結果에서 提起되는 것은 ① 都心部의 區域設定의 根拠, ② 都心部內에서의 容積率의 差等決定 (交通需要와 地下鐵綱, 街路交通考慮)의 必要性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都心部라고 하여 中心部와 周邊部를 同一視해 주는 안 될 일이고 따라서 같은 商業地域이라도 建築物과 容積率이 小公洞 一帶와 東大門 週邊이 다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5. 都心部の 再開發方向

大都市의 都心部에 많은 機能이 集中하게 된 것은 都市化過程에서 自然的 趨勢였다. 이렇게 商業 및 業務活動이 都心部로 集中한다는 것은 相互 集積의 利益때문이며 따라서 既存의 住宅과 工場을 헐리우고 그위에 大規模의 새로운 高層建물이 登場하는 것은 都心部의 發展의 象徴으로서 自然스럽게 받아 들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는 結果적으로 晝·夜間人口의 隔差의 甚化를 招來하여 都心部에는 晝間에는 複雜하고 夜間에는 人口가 顯著하게 減少되어 죽은 都市로 變한다.

한편 人口는 都市로 集中하고 있는 反面都市內의 人口 즉 住宅은 郊外部로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 都市周邊部는 無秩序한 「스프롤」現象을 惹起시키게 되며, 따라서 生活環境이 不便한 狀態가 오랫동안 繼續된 後에 公共施設投資를 해야하기 때문에 結局 二重投資의 不合理을 낳게 하고 있다. 上述한 두가지의 問題解決은

첫째는 都心部의 發展을 計劃的으로 誘導하는 것이며,

둘째는 新市街地를 效率的으로 造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첫째의 都心部 計劃方向을 中心으로 살피고자 한다.

서울의 경우는 首都로서의 機能, 國際都市로서의 機能,

780萬人的 生活中心으로서의 機能, 首都圈 中心으로서의 機能 등이 複合되어 있기 때문에 都心部, 副都心部 그리고 地方에의 機能分散등이 都心部 計劃에서 豫討되어야 하겠다.

即 반드시 都心部에 殘存하지 않아도 無妨한 機能은 分散시키므로써 都心機能의 負荷量을 輕感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超大型의 建築物이 競爭的으로 建立한다는 것은 容積率의 增加를 가져오게되어 그 建物周邊 또는 地區의 步行者와 自動車의 交通量을 急増시키게 되어 결국 都心全體의 交通疎通에 混雜을 招來하는 問題로 始頭된다.

이러한 交通混雜은 大都市의 區域擴大에 따른 遠距離 輸送의 問題뿐 아니라 遠近에 있는 많은 通勤者의 都心集中에서 오는 都心交通의 麻痺를 가져오기 때문이며, 通勤交通이 都心部에서 麻痺狀態가 된다는 것은 都心部の 機能을 遂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된다.

再開發이 都市計劃 全體와의 有機的 關聯속에서 進行되어야 함에도 現實은 그렇지 못한 面이 있는 것 같다.

局地的計劃이 全體計劃의 한部分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뜻이다. 萬一 局地的計劃을 하나만 떼어서 任意로 断定하여 거기에만 密度를 過重하게 計劃한 結果가 되었다면 이로 因하여 混亂이 일어나고 그 餘波는 넓은 區域으로 波及되고 만다. 해서

企業家(地主)의 立場에서는 收益率을 높이기 위해 建築容積率을 크게 하려고 애쓴다. 이에 대해 都市計劃當局은 交通需要가 激增하지 않을까? 駐車施設은 充分한가? 등을 憂慮하여 建築容積을 抑制하려고 애쓴다.

이런 相衡性 사이에도 어떤 調和點을 찾아야 하는데 그 限界性은 어디까지나 全體都市計劃 테두리 안에서만이 可能할 것이다.

都市計劃法에는 地域地區 가 있어 이에 알맞는 建築行爲를 하도록 建築法을 마련해서 垓地規模에 對한 建築面積 및 建築容積率을 各各 規制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各市에서는 條例를 通해 法の 許容限度內에서 特徵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市의 경우는 過大·過密都市라는 點과 都市機能의 回復이라는 點을 바탕으로 建築條例를 大幅的으로 強化하고 있다.

서울市는 1976年부터 現在까지 3年來 “都市整備 整頓”을 市政의 基本方向으로 두고 「都市計劃을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再開發事業을 推進하여 三大空間 確保를 비롯한 基礎施設의 擴充과 生活環境의 改善을 期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三大空間이란 이른바 道路空間·駐車空間·綠地空間을 뜻한다.

서울市는 機會있을 때 마다 그동안 三大空間 確保에기가 나왔으니 問題의 建築條例나 停車場 條例는 空間確保를 위한 基準値의 強化였다고 보아진다. 建築容積率에 있어 商業地域의 業務地區는 建築法에 따르면 1,000% (垓地面積의 10倍의 建築面積)까지 適用될 수 있는 것을 서울

市の 条例에서는 이를 強化하여 市長權限으로 그 容積率을 670%까지로 施行할 수 있는 素地를 갖고 있다.

거기에서 서울特別市 駐車場 整備地區 建築條例를 만들어서 都心部全體를 對象으로 하여 「延面積 10,000㎡ 以上の 建築物에 設置하는 駐車場은 駐車場面積의 50% 以上の 屋外駐車場을, 그 以下の 建物은 20% 以上을 同一 垵地內的 屋外에 駐車場을 義務化시키고 있으며 延建坪 1,000㎡ 以上の 建物을 세울때는 延面積 150㎡ 當 1臺 (同一 垵地內的 屋外駐車場일 경우는 200㎡ 當 1臺)의 比率로 算定한 面積 以上の 駐車場을 設置하도록 義務化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都心部는 原則적으로 建築코저하는 垵地위에 半以上の 空地를 提供하는것을 前提로 다시 駐車面積·容積率을 老慮해야하므로 實際上的 建蔽率(垵地面積에 對한 建築面積의 比率)은 40% 程度밖에 되지 않게 된다.

不過 數年前만 하더라도 一般 商業地域에는 垵地面積의 80%까지도 建築할 수 있었고 防火地域의 특별한 경우는 100%까지 建築할 수도 있었던 경우와 比較하면 當該地主들은 놀랄만한 일이고 建築行為의 큰 制約에 反撥이 있는 것은 豫想될 수 있다. 서울의 既存市街地의 業務用 建物의 大部分이 駐車場의 不備로서 苦惱하고 있는 現況을 생각한다면 서울市の 50% 以上 空地確保의 條例는 一見 痛快할 정도로 속시원한 方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意味에서 이 條例는 一部 사람들에게는 歡迎을 받고 있는 兪地에 있는것이 事實이다.

이런 贊·反 그리고 이에따른 問題提起는 現行 서울市の 建築條例나 駐車場條例가 施行된지 2年 以上이 經過하는 동안 機會있을 때마다 斷片的으로 論議되어 내려온 바다.

그러므로 서울市는 이 問題를 綜合적으로 檢討하여 이 條例를 빠른 期間內에 補完·政正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아래에 容積率과 公共空地面積에 對한 可能性을 생각해 본다.

먼저 問題核心에 接近하기위한 根本課題를 몇가지 든다.

- ① 都市는 密度를 높혀 市街化面積을 抑制 自然環境保存 (農土確保)
- ② 都心部는 더욱 高密化
都心部 사람과 車輛 通의 円滑化
- ③ 充分한 公共空間의 確保(道路·公共駐車場·廣場·公園·어린이놀이터·綠地·河川 등)
- ④ 都市設計를 통한 各 市街地內에서의 人間性에 立脚한 建築環境造成

위 課題는 여기서 풀어보고저하는 容積率과 空地確保와 關聯된 것만을 내세워 본 것으로서, 아래 事項의 檢討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問題解決을 위한 提案을 兼하고 있다.

위 ① ②는 都市속에서의 全般的인 位置別 密度計劃을 樹立해야 한다는 必要性을 말해준다. 地域 地區別 密度計劃이라는 從來의 概念에서 좀 더 細分한 密度計劃을 말한다.

商業地域의 경우 近隣·地區中心, 副都心·都心部는 各 各 建築規模가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容積率이 位置에 따라 달라진다.

都心部속에서도 中心부와 그 周邊部와는 位置에 따라 容積率이 같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都市計劃 圖위에서 交通需要量의 分布圖를 그려 볼 必要가 있는데 交通需要量이 많은 곳은 濃色으로, 交通需要가 적은것은 淡色으로 表示했다고 하자. 濃色이 많은 一畵속에 淡色이 있는것은 상관없지만, 淡色의 一畵속에 濃色의 것이 突然變異的으로 存在한다는것은 淡色系의 交通흐름을 濃色이 突發的으로 妨害하는 소위「보틀 넥 (Bottle neck) 현상을 가져오는 結果가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서 指摘되어야 할 것은 都市計劃으로서의 交通의 흐름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것은 交通施設 空間이 充分하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建弊率이란 것은 交通計劃에 크게 影響을 주지는 않으며, 人口密度 및 容積率만이 큰 影響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檢討한 것을 土臺로 하여 아래와 같은 事項을 서울市 條例 補完에 寄與할 수 있도록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市 建築條例 및 駐車場 條例의 檢討를 위한 筆者의 試案, 土地區劃整理手法에 따라 都市計劃을 통한 都心部 空間計劃의 樹立

첫째, 土地利用計劃에 依한 公共空間確保

둘째, 公共空間確保를 위해 市 財政이 許容하는 範圍에서 補助

셋째, 地區內의 모든 土地의 所有者는 새로이 改編되는 街區의 減步率에 따라 面積을 減小하여 計劃된 單位劃地에 換地한다.

(垵地의 零細問題·土地補償에 따른 問題와 關聯된 解決策

以上の 計劃을 背景으로 아래와 같은 基準의 規制의 適用을 提案한다.

- ① 公共空間(道路·公共駐車場·廣場·公園·어린이놀이터·綠地等)의 面積을 아래의 基準에 따라 確保한다. 다만 各 土地筆地에 對한 減步率은 別除로 定하되 20% 以下를 原則으로 한다).

住居地域 30~40%

商業地域 35~55%

近隣·地區中心 35~45%

都心部·副都心 35~45%

都心部 또는 副都心の 40~55%

中心街

② 住居密度 및 容積率은 다음과 같다.

低密度 100~200人/ha

○ 住居密度 中密度 200~400人/ha

高密度 400~800人/ha

○ 容積率 1) 都心部 또는 副都心 中心街 80% 未滿

2) 위 1) 을 除外한 都心部 또 50% 未滿
은 副都心部

3) 위 1) 2) 를 除外한 商業 30% 未滿
地域

③ 建弊率은 都市設計에 따른 街区内 建築計劃을 極度로 尊重하되 1~2層 人工垜地(Deck)에 依한 綠化를 권장

○ 近隣商業地域 60% 未滿

都心部 地域 80% 未滿

④ 駐車場

同一街区内의 地下 또는 地上에 駐車場 施設(共同駐車場 권장)위 提案說明으로 特記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本 提案에서 力點을 둔 것은 公共空間의 計劃的 確保에 있다. 現在의 서울市 條例에서의 規制는 各自의 垜地内の 空地(庭園이라고도 할 수 있음)를 더 많이 確保해주는 努力으로 되어 있어 公共的 利用에 寄與하는 公共空間의 確保와는 無關하다는 虛點이 있다.

서울 都心部の 交通·(사람+車) 및 公共利用을 爲해 現在 占有되고 있는 公共空間(垜地를 除外한 土地)이 平均 31.3%(이중 地籍上 道路率 25.7%, 實際上 利用道路率 <細道路 包含>29%)를 조금이라도 더 廣大시키는 努力이 要求된다는 것인 바, 現在의 서울市 條例에 依한 規制로서는 이에 影響을 줄 수 없으므로, 本提案에서는 土地 區劃整理手法에 따라 새로운 街区的 境界를 設定함에 있어 必要한 公共空間의 所要面積을 確保하자는 것이다.

그 대신 換地된 垜地內에서의 建築行爲는 街區別 建築空間의 計劃에 따라 執行할 것이므로, 市條例에서는 不必要한 規制強化를 할 必要가 없게 된다.

駐車場의 경우도 各自의 垜地內에서의 原則的 解決(通行距離 100m 專用駐車場은 同一垜地와 같이 認定되고 있는 例外가 있음)보다는 超街区内에서 共同駐車하는 方案도 摸索할 수 있겠고, 地下 또는 地上의 屋內 駐車施設 計劃도 可能하는 등 融通性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 이 보다 더욱 重要한 것은 都市空間을 現在와 같은 條例로서 規制해서는 多様な 空間을 構成하는데 있어 많은 制約을 받게 된다는 점에 留意해야 한다.

現代社會가 바라는 最新技術을 驅使할 수 있는 現代都市의 이미지의 實現은 人間性의 回復을 위한 空間創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유럽의 有名都市들이 現在 施行하

고 있는 都市再開發의 技法들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맞지는 않은 것이지만 既히 實効를 거두고 있는 適用可能한 좋은 方案들은 우리의 都市속에서도 實現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可能性을 考慮한 計劃이 樹立되어야 한다.

都心部 再開發속에 住宅을 導入시킬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商業·業務·住居가 混合된 複合建物이 되어야 하고, 人工垜地의 登場이 不可避하게 될 것이다. 1~2層 정도 人工垜地위를 綠化한다는 方案은 곧 施行될 수도 있다.

사람과 自動車가 分離된 狀態 즉 自動車의 侵入을 받지 않고 쇼핑을 하는 쇼핑몰의 設置라든가, 武橋洞이나 明洞의 再開發을, 在來의 武橋洞이나 明洞의 霧團氣를 살려가면서 計劃할 수 있는 길동 再開發에 가로놓여져 있는 課題들을 풀어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商業·業務·住居가 混合된 複合建物이 되어야 하고, 人工垜地의 登場이 不可避하게 된다. 1~2層 정도의 人工垜地위를 綠化하는 方案은 곧 施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屋外 에스칼레타가 登場하고, 步行者 空間이 確保된 쇼핑몰이라든가, 武橋洞이나 明洞의 個性과 特徵을 살릴 수 있는 再開發이 可能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

結 論

남은 都市機能을 回復하고 現代都市의 새로운 需要에 副應할 수 있도록 都市를 改造하는 것은 再開發事業인데 이 事業은 新市街地開發事業보다 더욱 어려운 問題가 많아 計劃的인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다.

都市再開發은 公共團體의 努力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民間의 「에너지」를 最大限 活用할 수 있어야 한다.

公的事業 즉 街路擴張, 廣場 및 公園造成 등 各 單獨的인 事業施行이 언제까지 順調을 올 것인지 매우 어려운 垜地에 있다.

土地와 建物の 買収에 있어서의 補償價格의 決定에 市當局은 큰 因辱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都市街路의 擴張도 하지 않은채 民間 要請에 단 맡겨두면 個別的인 建物は 增築이 盛行되고 더욱 混亂의 度가 加重될 것이다.

再開發은 街路整備와 建築空間의 整備 즉 環境整備가 함께 될 수 있다는데 特徵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 街路擴張 公共空間(오픈·스페이스)의 確保에 있어 市가 直接的으로 土地 및 建物補償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從來 幹線街路擴張의 경우 前面에 있던 建물이 廉價의 補償으로 不平을 지닌채 撤去를 당하고

後面에 있던 建物이 前面에 位置하게 되어 橫財를 하는 不公平한 事例가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즉 再開發事業區域에 包含되는 사람은 全員이 都市發展을 위한 公共用地確保計劃에 呼應해야하고 各筆地마다 再開發前의 從來 位置에 따른 價値에 準하여 妥當한 減步率을 適用하므로써 公平한 換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各者의 土地가 現在보다 狀來에 더욱 價値있게 쓰일 수 있는 길은 現在의 環境보다 將來의 環境이 더욱 좋아져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의 自己土地에 따르는 環境이란 局部的인 環境造成이 아니라 地區單位의 生活環境이 造成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地區再開發의 效果를 말한다.

本論에서는 서울特別市 建築條例와 駐車場 整備地區의 駐車場條例등 現行 서울시가 추구하는 ① 過密建築의 抑制, ② 都心部交通需要의 過多發生要因의 除去, ③보다 넓은 空地確保등의 根本趣旨를 認識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르는 施行過程에서의 問題點을 指摘해 보았다.

本論文은 效果的인 都市空間計劃은 效果的인 共同空間의 確保에 關鍵이 달려 있다는 點을 強調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의 公共空間의 意味는 現行 서울시가 條例를 통해 確保하려는 空地, 即 駐車場面積을 빙자한 各延園空間을 確保하게 하는 것과는 根本概念이 다르다.

公共空地는 公共的 活用に 寄與할 수 있도록 可能한 限 集團的 連續的인 體系를 이루도록 한다.

그러면서 公共空지를 除外한 建築團地는「콤팩트」한, 利用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交通疎通의 許容 限度內에서 可能한 限 高密할 수 있는 建築容積率이 策定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街路에도 地下와 그리고 地上을 多層化할 必要가 생긴 것이다.

公共空間의 確保는 將來計劃의 柔軟性을 위해서는 넓을수록 좋겠지만 充分한 面積을 確保하기에는 너무나 問題點이 많은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現在 再開發에 參與하는 市民들에게 說得할 수 있는 基準値가 提示되어야 한다.

本論文에서는 公共空地 確保를 위한 筆者의 試案을 提示하므로써 이에 關한 爭點을 마련해 보았다. 이 基準値의 討議가 本格化하여 效果的인 方案이 導出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參 考 資 料

- 1) 서울시 住宅改良課「不良住宅再開發」1978.
- 2) 서울시 都市整備課「都心部再開發」1978.
- 3) 서울시 都心部 整備方向 設定을 위한 土地利用調査 研究
1977. 12. 서울特別市〈KEPSI 調査〉
- 4) 서울特別市「78市政」
- 5) 서울都市基本計劃 1978.
- 6) 서울特別市條例

弘益大學校 理工大學長

아파트 地区内 建築의 適正容積率 및 建蔽率에 관한 研究

尹 定 變

本稿는 서울産業大學, 首都圈問題研究所가 開催한 學術討論會 主題論文이 었음을 밝힌다.

1. 序 論

아파트의 成立은 遠因으로서 社会的 要因과 近因으로서 計劃的, 經濟的 要因을 들 수 있거니와 前者는 곧 Social Determinants요, 後者는 Planning, Economic Determinant 인 것이다.

社会的 要因의 內容으로서 는 첫째 都市人口密度의 增大에 따라 都心은 商業地域에 의해 占有되고, 地價는 騰貴되며, 庶民住宅은 都市周邊으로 밀려 나며, 戶數密度가 높은, 狀況이 나쁜 住宅地가 自然發生하게 된다. 둘째 都市生活者의 移動性(mobility)을 들 수 있다. 오늘날 大部分의 都市生活者는 소위 white collar인 俸給生活者로서 土地에 대한 定着觀念이 작고 또 自己家屋을 所有할 수 있는 資力이 不足하며, 아파트生活의 便宜성과 더불어 간편한 住生活를 원하게 된다. 세계 人口構成面에서 井井 때 家族構成人員이 減少되어 가는 傾向이 있으며 都市生活者는 從來의 大家族單位에서 小家族單位로 變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도 아파트를 成立시키는 原因이 있다 하겠다.

計劃的, 經濟的 要因으로서의 近因으로서 는 아파트建築은 多數의 住戶를 一棟의 建物로 集合시키므로 해서 住環境을 向上시켜 決滴度를 增進시켜주고, 한편 坵地費, 建築費, 設備費를 節減시키는 長點이 있다.

都市区域內에서 아파트立地를 大略 세가지로 크게 分類하는 경우, 즉 中心部, 中心部分의 外周部, 그리고 外周部로 나눌 때, 中心部에서는 適正人口密度는 500인/ha 정도로서 鐵筋콘크리트造의 高層建築으로 하여 높은 人口密度를 立體的으로 組立시켜 建蔽率을 낮추어 空地를 取해야 한다. 商業地域에 있어서는 高層아파트가 들어 서게 되는데 低層部는 商街, 事務所 등으로 利用되고, 高層部는 職住近接의 理論에 따라 都心部에 居住하는 사람들의 住居가 되는 複合建物(multi-Functional Center)이 될 것이다. 中心部分의 外周部에서는 適正人口密度는 300-400인/ha 정도로서 주로 住居地域에 속하는 地帶이며 中層의 鐵筋콘크리트造 아파트가 들어 서게 된다.

外周部에서는 適正人口密度는 200/ha로서 아파트보다 는 獨立住宅이나 連立住宅이 적정한 住戶形式이 될 것이다.

本研究의 目的은 우리나라 各都市에서 계속 增加一路에 있는 아파트 地区内 建築의 適正容積率 및 建蔽率을 摸索하여 이에 맞는 戶數密度와 人口密度를 抽出하여 既成 아파트 地区内의 높은 戶數密度와 人口密度를 止揚하고 便益施設로서의 學校, 公園, 市場敷地등의 確保를 圖謀하며 職住近接에 맞는 業務施設을 擴大하는 方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適正容積率이나 建蔽率이란 法規定에서 設定되는 最低基準(minimum or adequate)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環境基準으로서의 適正基準(optimum or desirable)을 말하는 것으로서 現代的 思考方式의 結果인 것이며, 이 基準이 緣由하는 바는 公共福利의 要素의 하나인 市民의 保健性과 安全性을 向上시키고 高密度로 인한 交通量의 誘發등의 マイ너스效果를 除去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適正市政(city optimum)의 目標를 設定할 수 있으리라 思料된다. 現行 서울시 아파트 地区内 建蔽率과, 容積率의 現況 平均値를 보면 各各 20%와 165%로서(表 2-1, 참조) 平均層數 8층, 人口密度 1,650인/ha이라는 高密度를 나타내게 된다. 다만 이 計算에서는 1인당 占有床面積을 10m²로 假定하였다. 이런 人口密度가 사실이라면 먼저 言及한 都市中心部 適正人口密度 500인/ha를 3배나 上廻하는 密度로서 여기에는 어떤 措置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같은 必要措置로서의 適正建蔽率이나 容積率이 어느 線인가를 適正人口密度와 聯關시켜 提示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本研究의 範圍는 서울시内 아파트 地区를 標本抽出하여 그 現況을 調査分析하고 容積率과 建蔽率의 實際値를 把握하며, 이 값에서 推定되는 人口密度와 前述한 適正人口密度를 對照하여 여기서 생기는 差異를 最小로 하는 새

로운 適正容積率과 建蔽率을 提示코져 하는 것이다.

이러한 提案의 過程으로서, 近隣住區 構成單位로서의 아파트地區 構成을 서울의 경우와 外國의 경우에서 살펴 보고, 居住密度의 概念을 各用地別構成 및 適正居住密度의 算定으로 分類하여 理論的 側面에서 考察하고 아울러 아파트地區에 適用되고 있는 現行 關係法規를 檢討하여 그 補完點을 찾고자 한 것이다.

2. 서울의 아파트 地區內 建築의 諸元

서울의 아파트地區 建築現況을 紹介하기에 앞서 서울特別市가 制定한 아파트地區內의 諸元을 여기에 먼저 紹介한다.

條例 제 3 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의하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공동주택의 경우 3,000m² 이상, 기타의 建築物은 300m² 이상으로 規定되어 있고, 제 4 조(建蔽率)에 의하면 공동주택 25%이하, 기타의 建築物 50%이하로 規定되어 있는데, 다음 제 5 조(容積率)은 200%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規定을 關係式으로 연결시켜 보면 平均層數는 8層이 되며, 아파트로서의 最低層數인 3層인 경우 建蔽率을 25%로 할때 容積率은 75%가 되며 最高層數를 20層으로 假定하면 容積率이 200%의 경우 建蔽率은 10%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는 後章에 다시 論議

제 6 조(인동거리)에서 인동거리는 공동주택 높이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인동거리는 南北間 隣棟間隔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日照條件에 의해 결정하게 되며 前面 建物높이의 函數로서 나타나나 1.25배란 어떤 근거위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동조 ②항에는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공동주택 높이의 0.625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것은 東西間 隣棟間隔을 말하는 것으로 이말은 결국 隣棟間隔아 건물높이의 1.25배가 된다는 뜻으로 東西間 隣棟間隔을 南北間 隣棟間隔과 같이 하라는 뜻인데, 원래 東西間 隣棟間隔은 防火上, 뒷건물의 前方 眺望上, 圃地內 動線循環上 필요한 것이나 이 역시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

南北間이나 東西間 隣棟間隔은 결국 容積率, 建蔽率, 層數 및 人口密度등의 比率과 係數에도 관계되므로 상당히 중요한 數值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서울시 아파트地區 建築條例 規定內容을 檢討해 보았는데 더 상세한 論議는 후의 居住密度의 概念에서 論하기로 하고, 다음은 서울의 아파트地區內 建築의 諸元을 現況에 의하여 標本地區에 대하여 알아 본다.

表 2 - 1 서울의 아파트지구·건축의 제원-(1)

아파트名	堡地面積 (m ²)	建築面積 (m ²)	延面積 (m ²)	層數	福祉施設率%	建蔽率(%)		容積率(%)		總戶數密度 (戶/ha)	總人口密度 (人/ha)
						總	純	總	純		
三益住宅 용산이촌동302-55 63	3,391.69	724.19	3,728.95	5	4.5	21.35	29.63	109.94	152.56	220	1,099
極東아파트	57,496.50	12,459.01	68,233.23	5	4.2	21.67	23.57	118.67	129.11	237	1,187
三湖住宅 (개나리)	23,317.46	5,033.	25,462.08	5	4.7	21.6	25.99	109.2	131.49	218	1,092
강남·도곡											
신우아파트	25,760.44	7,091.38	38,239.72	5	2.9	27.528	38.78	148.44	209.12	297	1,484
南서울아파트	10,095.48	2,981.052	13,824.834	5	7.8	29.56	50.56	136.94	234.49	274	1,369
삼부아파트	35,506.90	4,681.577	70,424.82	11	2.0	13.18	17.93	198.0	269.79	398	1,980
진주아파트	4,588.441	908.705	10,903.64	11	2.8	19.81	37.31	237.64	447.70	475	2,376
漢陽住宅 원효로4가118-22	26,407.82	5,281.56	61,753.82	12	1.9	19.99	29.84	233.85	348.85	468	2,339
三益住宅 (이촌동 300-5)	16,808.6	3,116.0	35,955.99	12	1.3	18.538	23.68	213.91	278.21	428	2,139

表 2 - 2

주공아파트	대지면적 (m ²)	건축연면적 (m ²)	층 수	총건폐율 (%)	총용적율 (%)	총호수밀도 (戶/ha)	총인구밀도 (人/ha)
반포 1단지	168,608	129,058	4.5	17	77	154	770
반포 2단지	55,427	40,462	5.6	13	73	146	730
잠실 1단지	92,537	64,776	4.7	15	70	140	700
잠실 2단지	99,032	62,390	4.8	13	63	126	630
잠실 3단지	63,405	52,626	4.9	17	83	166	833
잠실 4단지	49,596	39,181	4.9	16	79	158	790
잠실 5단지	116,309	140,724	13.4	9	121	242	1,210
평균			6.2	14.3	80.8	162	808

表 2 - 3

신반포지구 (기업체별)	토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총건蔽率 (%)	총容積率 (%)	총戶數密度 (戶/ha)	총人口密度 (人/ha)
한신공영	80,213	89,543	5	22.4	112.0	224	1,120
주택공사	55,119	46,110	5	16.7	83.7	167	837
경남기업	54,811	114,825	12	17.6	209.5	419	2,095
한신공영	72,593	150,371	12	17.3	207.1	414	2,071
라이프주택	16,528	31,008	10	18.8	187.6	375	1,876
한신공영	85,409	164,403	12	16.0	192.5	385	1,925
평 균			9.1	18.1	165.4	331	1,654

이상의 現況의 諸元에서 우리가 分析할 수 있는 것은 住公主管하에 세워진 아파트團地 즉 表 2 - 2.에서는 그 平均値가 아파트地區 建築條例에서 規定된 建蔽率이나 容積率의 1/2내의가 되는 14.3%와 80.8%로 나타나 있고 이 경우 아파트住戶 1인당 占有바닥面積을 10m²로 假定할 때 總人口密度는 808인/ha로 計算되고 있는데 반해, 條例상 規定대로 建蔽率과 容積率을 25%와 200%로 하면 平均層數는 8層이고 人口密度는 2,000인/ha이라는 數値를 나타내게 되어 條例상 規定보다 下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 工事が 完成段階에 들어가 있는 신반포地區 建設業體別 各團地의 平均値를 보면 表 2 - 3.에서 알듯이 建蔽率이 18.1%, 容積率이 165.4%로서 條例상의 規定내이긴 하나, 人口密度는 1,654인/ha라는 高密度를 示顯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1968年末까지 建設된 民間 建設業體에 의한 各團地들인 바 表 2 - 1.에서 보듯이 이들을 層數別로 2大別하여 보면 5層정도의 中層의 경우는 建蔽率과 容積率이 各各24.5%와 124.6%로서 建蔽率은 條例와 거의 유사하나 容積率은 훨씬 下廻하여 人口密度도 낮아지고 있다. 11層이상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條例보다 建蔽率이 낮아진데 반하여 容積率이 약간 上廻하고 있으나 人口密度는 11層의 경우가 5層의 경우보다 2배의 값이 된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서울市 條例에 規定된 諸元(容積率과 建蔽率)보다 모든 團地가 몇가지 團地를 제외하고는 諸元의 數値에서 未達되고 있으며 따라서 法規상으로는 暇疵가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파트團地는 建築許可條件인 法規상에는 별 暇疵가 없고 다만 市條例상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25%, 容積率 200%로 計算되는 總人口密度 2,000인/ha이라는 高密度에 問題點이 浮刻된다. 즉 여기서 市條例를 改正하여 人口集中과 交通量 誘發의 要因이 되는 高密度 아파트地區의 適正容積率과 建蔽率을 摸索해보아야 할 것이다.

3. 外國의 아파트地區內 建築의 諸元

外國의 아파트地區內이라고는 하였으나 여기서는 資料가 入手可能했던 日本의 뉴-타운들의 資料와 高密度開發의 代表格인 홍콩의 경우를 들어 分析해 본다.

3 - 1. 日本의 뉴-타운

開發主體는 주로 日本住宅公團으로서, 뉴-타운의 概念으로 보아 既存大都市內의 아파트團地가 아니고 郊外의 住宅團地라고 생각되기도 하나, 既存都市內의 市街地住宅團地도 이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地區內 建築의 容積率과 建蔽率로서 人口密度가 計算되고, 역으로 人口密度에서 容積率과 建蔽率을 逆算할 수 있다면 먼저 아파트地區의 人口密度를 概觀해보는 것이 妥當하다.

日本의 뉴-타운은 그 人口密度에 있어서 100人/ha~170人/ha의 範圍안에 있고,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地區內 人口密度 1,600인/ha내의와는 엄청난 隔差를 보이고 있다.

한편로 日本에서도 代表的 뉴-타운의 하나인 大阪府 都市區域內의 (大阪都心 北方 15km地點) 千里뉴-타운의 경우, 全團地面積은 1,160ha로서 計劃人口는 150,000人인 줄 總人口密度는 129.3인/ha로 計算이 되는데 다만 團地안에 약20%에 해당하는 留保地가 있으므로 실제 開發面積에 대한 總人口密度는 163인/ha로 推定된다.

이제 各住戶의 平均 實面積을 檢討해 본 결과 9.9m×6.3m로서 63m²가 되고 여기에 共用部分을 합치면 e(1住戶당 바닥面積)의 값은 82m²가 되며, 戶당 家族構成人員數 4인/戶로 할 때 f(1인당 바닥面積)의 값은 20.5m²/인으로서 여기서 다음과 같이 容積率을 計算할 수 있다.

$$V = \varphi f = 163 \text{인/ha} \times 20.5 \text{m}^2/\text{인} = 3341.5 \text{m}^2/\text{ha} = 0.334 = 33.4\%$$

$$\text{다음 建蔽率 } \sigma \text{의 값을 } 10\% \text{로 한다면 平均層數 } n = \frac{V}{\sigma} = \frac{33.4}{10} = 3.34 \text{層이 된다.}$$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varphi (\text{總人口密度}) : 163 \text{인/ha}$$

$$e (1 \text{住戶당 바닥面積}) : 82 \text{m}^2/\text{戶}$$

f (1인당 바닥面積) : 20.5m²/인
 V (總容積率) : 33.4%
 σ (總建蔽率) : 10.0%
 n (平均層數) : 3.34層

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千里뉴-타운의 아파트 住戶形式은 中層(3-7層)과 高層(8層이상)이 配置되어 있고, 상당한 團地部分이 單獨住宅으로도 構成되어 있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用地率의 構成比에 있어서도 住宅用地率이 불과 43.91%라는 점이다.

參考로 土地利用 用地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3-1. 各用地率 構成比

用 地 別	構 成 比 (%)
道 路 用 地	21.65
公 園 用 地	23.82
住 宅 用 地	43.91
公 共 施 設 用 地	6.62
商 工 業 施 設 用 地	4.00
計	100.00

따라서 住宅用地안에 대한 純密度와 純比率을 計算하면 다음과 같이 上昇하게 된다.

ϕ : 370인/ha, V : 75.9%,
 σ : 22.7%, n : 3.34層

이상은 千里뉴-타운의 경우인데, 나머지 日本住宅公團에서 造成한 아파트團地들에 대한 諸元은 表3-3.을 參照해 주기 바란다. 이表 외에 두곳의 團地를 알아 본다.

1. 戶頭團地

位置 : 茨城県 取手市

ϕ : 370인/ha, V : 31.4%, σ : 16.7%, n : 1.88層

表3-2. 各用地率 構成比

用 地 別	構 成 比 (%)
道 路 用 地	19.2
公 園 用 地	6.20
住 宅 用 地	59.10 (商工施設用地포함)
公 共 施 設 用 地	0.40
保 留 地	15.10
計	100.00

2. 霧ヶ丘團地

位置 : 横浜市 國際空港 ϕ : 210인/ha, V : 43%, σ : 16.7%, n : 2.54層 各用地率 構成比는 앞의 戶頭團地와 유사하다.

表3-3. 日本의 아파트地區建築의 諸元

	宅地面積 (1,000m ²)	建築延面積 (1,000m ²)	平均 層 數	總建蔽率 (假定) (%)	總容積率 (%)	總戶數密度 (戶/ha)	總人口密度 (人/ha)
下野幌團地	3,410	1,180	2.2	15	31.8	42.2	155
大 麻 團 地	2,150	590	1.7	"	25.7	33.5	126
北 広 島 團 地	4,300	720	1.0	"	15.7	20.5	78
白鳥뉴우타운	1,820	430	1.5	"	22.5	28.8	110
鶴ヶ谷住宅團地	1,770	519	1.8	"	26.6	35.8	130
研究学園都市	27,000	3,276	0.8	"	12.2	14.8	59
成田뉴우타운	4,870	1,198	1.7	"	25.0	30	120
千葉뉴우타운	29,126	7,163	1.7	"	25.0	30	120
北 習 志 野	1,480	558	2.5	"	37.3	46	180
洋 光 台	2,070	697	2.2	"	32.7	41.1	159
港 南 台	3,000	984	2.2	"	32.2	40	157
多摩뉴우타운	30,110	9,020	1.7	"	26.7	36.6	130
久 留 米	1,558		2.2	"	33.0	40	161

藤原	2,870	820	1.9 ^{***}	15	28.7	35	140
北神戸	5,020	1,558	2.0	"	30.8	38	150
須摩뉴우타운	9,040	2,542	1.6	"	26.9	34	131
明子·舞子뉴우타운	1,612	697	2.9	"	43.1	53	210
新多聞	1,930	738	2.5	"	36.9	46	180
港合	2,400	738	2.0	"	30.8	38	150
周南	2,250	524	1.5	"	22.8	29	111
大關山뉴우타운	2,379	533	1.3	"	20.5	28	100
東郷뉴우타운	2,170	401	1.2	"	18.9	23	92
西諫早뉴우타운	1,500	418	1.9	"	28.3	34	138
一ヶ岡団地	938	188	1.5	"	22.3	25	106
千里뉴우타운	11,600	38,761	3.34	10	33.4	32	163
泉北뉴우타운	15,200	3,854	1.7	15	25.4	31	124
高藏寺뉴우타운	8,500	1,804	1.3	15	20.5	26	100
四口市	1,650	377	1.5	"	22.3	28	109
湖南	2,910	377	1.0	"	14.4	16	70
金剛	2,160	639	1.9	"	28.7	36	140
金剛東	2,340	861	2.3	"	34.9	45	170
眞美ヶ丘	2,980	1,025	2.3	"	34.9	42	170
平城Ⅰ	3,490	902	1.7	"	25.0	32	120
平城Ⅱ	2,600	6,656	1.7	"	25.0	31	120
洛西뉴우타운	2,850	955	2.1	"	31.4	41	153
八幡	1,860	656	2.3	"	34.9	43	170
番里	1,550	500	2.3	"	34.9	40	170
平均	4,935	1,350	1.8	15	27.3	34.3	133.3

表3-4 주된 市街地住宅地(日本)

団地名	最高層數	所在地	戶數
豊島五丁目	14層	東京都北区	4,959戶
大島六丁目	14	東京都江東区	2,892戶
大島四丁目	14	東京都江東区	2,514戶
千島	15	大阪市大正区	1,794戶
住吉	11	大阪市住吉区	1,521戶

여기서 한마디 添을할 것은 日本에서도 앞서 例挙한 아파트 団地외에 주된 市街地住宅地로서 高層아파트 만으로 構成된 地区도 있으나 이역시 建蔽率이 낮은 것과 住宅用地率의 比率이 낮아서 總建蔽率이나 總容積率은 비교적 低率을 나타내고 人口密度 역시 1인당 바닥面積이 우리 보다 크므로해서 비교적 低密度로 計劃되었음을 推測할 수 있다.

日本住宅公團이 主管한 주된 市街地住宅地는 다음과 같다.

3-2. 홍콩의 샤틀-뉴타운

홍콩에는 아파트地區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事實이거니와 여기서 引用한 것은 홍콩의 九龍쪽 地方에 있는 샤틀(sha Tin) 뉴-타운인 것이다. 이곳 人口의 60%는 11개의 公共住宅事業地區에 살게 되며 여기에 300,000명의 人口를 收容하게 된다. 또 다른 아파트地區들이 民間住宅事業地區로 配定되었고 다른 200,000명이 여기에 收容된다.

샤틀뉴-타운의 主要 住居團地의 係數를 보면 다음 表와 같다.

表3-5 샤틀住居團地의 諸元

地 區 名	ϕ (인/ha)	ν (%)	σ (%)	n(층)
홍콩住宅公社地區	2,500	250	15	16.7
商業住居地區	1,250	125	15	8.3
住居地區-R ₁	1,600	160	15	10.7
住居地區-R ₂	500	50	15	3.3
住居地區-R ₃	160	16	10	1.6
住居地區-R ₄	50	5	5	1.0
聚落型開發地區	250	25	10	2.5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홍콩 샤틀의 경우 日本의 경우와는 달리 R₁, R₂와 聚落型開發地區를 제외한 나머지 地區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建蔽率, 容積率과 人口密度를 나타내고 있고, R₃와 聚落型開發地區는 아파트地區는 아니나 日本의 경우와 유사한 建蔽率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地區 開發方式을 편의상 日本型開發과 香港型開發이라고 분류한다면,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는 後者의 開發方式에 속한다고나 할까.

샤틀의 경우 參考로 各用地率를 보면 다음表와 같다.

表3-6 各用地率 構成比

用 地 別	構 成 比(%)
住宅用地	34
公共空地(道路, 廣場)	19
綠地用地(公園)	7
商工施設用地	8
公共施設用地	8
其他用地	24
計	100

4. 居住密度의 概念

4-1. 各用地別構成

前節에서 보았듯이 住宅用地率이 日本의 경우는 44-50%, 홍콩의 경우는 34%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表2-7에 표시된 二益住宅의 경우 72% 極東아파트의 경우 92%로 나타나, 이것은 서울의 아파트地區는 外國과는 달리 住民의 便益施設인 交通用地, 綠地用地, 公共施設用地가 극히 부족할 뿐 아니라, 職住近接의 原則을 實現시키는 商工業施設用地도 太不足이라는 뜻이 된다. 또 人口密度, 建蔽率, 容積率등에 있어서도 純密度로 따질때면 높아진다 할지라도 公共施設用地등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住宅用地率이 떨어져서 總密度는 훨씬 낮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예가 바로 日本의 경우이다.

우리나라 경우 이같은 用地가 必要한 福利施設의 基準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고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 第23條에 規定은 되어있으나, 그 規模는 아파트建築延面積 20%이상 33%까지라고 들고 있기는 하나 現在로는 이基準에 훨씬 未恰하다.

土地利用 用地率의 基準은 團地의 規模, 街區의 形狀등에 따라 變化가 있으나 公共施設用地, 綠地用地, 交通用地등의 非住宅用地는 住戶形式과는 별도로 團地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附次的으로 高次元의 施設用地를 必要하게 되는데 이들의 1住戶당 所要面積은 團地의 規模가 커질수록 增加한다. 예컨대 隣保區정도의 團地면 非住宅用地로서 보통은 어린이 놀이터나 街區周邊의 住宅路뿐인 것이나 近隣分區, 近隣住區의 規模가 되면 集會場, 沐浴場, 商店등의 用地와 또 公園, 運動場, 主要道路의 用地가 增加하게 된다. 各用地의 1戶당 所要面積에서 團地의 規模, 住戶形式別로 各用地率의 한 基準을 구해보면, 住戶形式에서 高層化할수록, 즉 一般的으로 建築密度가 높을수록 住宅用地率은 減少하고, 公共施設用地率, 綠地用地率, 交通用地率은 增加하게 된다. 또 團地의 規模가 클수록 같은 傾向이 있다.

또 美國의 聯邦住宅局(F. H. A)의 公營住宅基準에 의하면 住戶形式별로 다음과 같은 戶數密度를 提示하고 있다.

여기서 4층이상 共同住宅의 경우는 1戶당 家族構成 人員數를 4인으로 假定하면 純人口密度가 $\phi=494\sim 988$ 인/ha이라는 數値가 되게 이에 상응하는 容積率도 推定해볼 수 있다.

4-2. 適正居住密度의 算定

앞서 4-1에서 검토한 各用地別構成比는 주로 便益施設의 規模 및 總密度와 純密度의 對比를 정하는 것이 住宅用地率이라는 점을 指摘했는데, 여기서는 適正居住密度를 構成하는 要素들에 관하여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a. 戶數密度(d)

戶數密度란 住宅戶數를 土地面積으로 나눈 單位土地面積當의 住宅戶數를 말하며, 單位는 戶/ha를 사용한다. 各住戶의 規模와는 關係가 없으나, 住宅의 平均規模가 分明할 때에는 간단히 土地와 建物量과의 關係를 나타내고, 또 人口密度를 算定하는 基礎가 된다. 또 戶數密度와 유사한 概念의 英國서 사용되는 室數密度(accomodation

density, 單位:habitable room/acre) 등도 있으나 團地의 경우 總戶數密度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團地의 規模別 및 住戶形式別 總戶數密度는 다음 表4-3와 같은데 이表에 의하면 基本單位團地(隣保區)의 總戶數密度는 獨立住宅團地에서 約 16-37戶/ha, 連立住宅團地에서 約 60-83戶/ha 共同住宅團地에서 約 76-167戶/ha 정도이다.

表4-1 住戶形式別 各用地率(%)

團地規模	住戶形式	住宅用地	公共施設用地	綠地用地	交通用地
隣保區	獨立住宅(1-2층)	75-85		2-4	15-20
	連立住宅(2층)	70-75		6-8	20-22
	(3-4층)	68-75		9-13	17-20
	共同住宅(6-8층)	65-70		11-15	19-21
近隣分區	(10-12층)	60-65		13-17	21-23
	獨立住宅(1-2층)	70-80	2-5	3-7	16-21
	連立住宅(2층)	55-60	7-10	10-13	21-23
	(3-4층)	50-60	7-10	11-15	21-24
近隣分區	共同住宅(6-8층)	45-55	9-11	13-17	24-26
	(10-12층)	40-50	10-12	15-18	26-28
	獨立住宅(1-2층)	60-75	4-7	4-10	17-22
	連立住宅(2층)	45-55	11-14	13-16	23-25
近隣分區	(3-4층)	40-50	12-15	15-19	24-27
	共同住宅(6-8층)	35-45	14-16	17-21	26-28
	(10-12층)	30-40	15-17	19-22	28-30

資料: 建築當大系, vol. 27 集團住宅 p. 118. 또다른 基準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表4-2 近隣住區의 各用地率(%)

住戶形式	建築用地率			綠地用地率	交通用地率
	住宅用地	公共施設用地	小計		
1층2층住宅混在	62	8	70	10	20
3층共同住宅	52	10	62	17	21
4층共同住宅	49	11	60	18	22
8층共同住宅	46	8	54	20	26
11층共同住宅	40	8	48	24	28

資料: 東京大 高山英華研究室

여기서 우리가 容積率V와 戶數密度d 및 1戶당 建築延面積e사이의 관계를 $V=de$ 라고 成立시킨다면 d와 e를 정하므로서 容積率V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上記한 表에의해 延隣住區單位에서 e의 값을 $80m^2$ (4人家族 × 1인당 $20m^2$)로 하여 容積率을 내보면 다음과 같다. (近隣住區單位 2,000戶)

이제 前述한 日本과 香港의 아파트地區들을 上記한 住戶形式別 總戶數密度表의 共同住宅과 對照해 보고 또 서울의 아파트地區와도 對照해 본다.

日本 千原의 경우 $\varphi=163인/ha, n=3.34$ 층으로 이 때 $d=40戶/ha$ 로서 基準值 $60-73戶/ha$ 보다 오히려 下廻하고 있고, 香港의 沙田의 경우, 住宅公社地區에서 $\varphi=2,500인/ha, n=16.7$ 층으로 $d=500戶/ha$ (家族構成人員 5인으로 假定)로 基準值의 6배, 商業住居地區는 $\varphi=1,250인/ha, n=8.3$ 층으로 $d=250戶/ha$ 로 基準值의 3배, 住居地區 R₁은 $\varphi=1,600인/ha, n=10.7$ 층으로 $d=320戶/ha$ 로 基準值의 4배, 住居地區 R₂는 $\varphi=500인/ha, n=3.3$ 층으로 $d=100戶/ha$ 로 基準值의 1.5배로 나타나 있어 모두가 基準值보다 훨씬 上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三益住宅地區는 $\varphi=1,099인/ha, n=5$ 층으로 $d=220戶/ha$ (家族構成人員 5인으로 假定)로 基準值의 3배, 三扶아파트地區는 $\varphi=1,980인/ha, n=11$ 층으로 $d=398戶/ha$ 로 基準值의 5배, 住公아파트 잠실高密度地區는 $\varphi=1,383인/ha, n=15$ 층으로 $d=277戶/ha$ 로 基準值의 3배이고, 가장 戶數密度가 높은 것으로는 진주아파트地區로서 $\varphi=2,376인/ha, n=11$ 층으로 $d=475戶/ha$ 로 基準值의 6배로 香港 沙田뉴·타운의 住宅公社地區의 戶數密度 $d=500戶/ha$ 와 유사하다.

表4-3 里公營住宅의 戶數密度基準

住戶形式	(戶/acre) 純戶數密度	(戶/ha) 純戶數密度
1層2層獨立住宅	8	19.8
1層2戶建住宅	14	34.6
1層連立住宅	15	37.1
2層連立住宅	24	59.3
2層共同住宅	36	88.9
3層共同住宅	50	123.5
4層以上共同住宅	50-100	123.5-247.0

表4-5 共同住宅 總容積率

層數	總戶數密度(戶/ha)	總容積率
2	54-68	43.2-54.4
3	60-73	48.0-58.4
4	64-76	51.2-60.8
6	69-80	55.2-64.0
8	72-83	57.6-66.4
10	75-85	60.0-68.0
12	77-87	61.6-69.6

表4-4 住戶形式別 總戶數密度 (戶/ha)

住戶形式			隣保區	近隣分區	近隣住區
集合形式	層數	戶建	(100戶)	(500戶)	(2,000戶)
獨立住宅	1	1	16-31	15-28	14-25
	1	2	26-37	24-38	22-30
連立住宅	2		60-83	50-65	43-54
	2		76-108	64-85	54-68
共同住宅	3		90-122	74-93	60-73
	4		98-130	79-98	64-76
	6		110-143	86-105	69-80
	8		119-152	92-110	72-83
	10		127-159	96-114	75-85
	12		133-167	100-118	77-87

이상에서 보듯이 서울의 아파트地區 開發方式은 새삼, 홍콩式開發方式이고 基準値의 3-6배의 高密度地區로 서 여기에 再考의 餘地가 있다 하겠다.

b. 建蔽率

建蔽率이란 建築面積의 土地面積에 대한 比率로서 建 物의 密度를 나타내며 其他의 各種 建築密度를 算出하 는 基礎가 된다. 또 建築面積 대신에 空地面積을 취하면 空地이 되고 空地率은 空地地區 등에서 空地確保의 基準 으로 活用된다.

建蔽率은 純建蔽率과 總建蔽率이 있으나 여기서는 아파

트地區 全體面積에 대한 總建蔽率이 중요하며 이것은 團 地內 土地의 集約利用度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團地의 規模別 및 住戶形式別의 總建蔽率은 表4-6 와 같은데, 또 住戶形式에 의한 基本單位團地(隣保區)의 總建蔽率은 獨立住宅團地(1, 2戶建, 1, 2층)의 경우 는 약 10-21%, 連立住宅團地(1, 2층)의 경우는 約17-21%, 共同住宅團地(2-12층)의 경우는 約 5-31%의 범위에 있다. 또 層數가 많을수록 住宅1戶의 規模가 작 을수록 低率임을 알 수 있다.

表4-6 住戶形式別 總建蔽率 (%)

住戶形式			隣保區	近隣分區	近隣住區
集合形式	層數	戶數	(100戶)	(500戶)	(2,000戶)
獨立住宅	1	1	10-17	9-16	8-15
	1	2	15-21	13-19	12-18
連立住宅	2		17-24	13-20	11-17
	2		22-31	17-25	14-21
	3		16-24	13-20	10-16
共同住宅	4		13-0	10-6	8-13
	6		10-15	7-12	5-9
	8		8-12	6-9	4-7
	10		6-10	5-8	3-6
	12		5-9	4-7	3-5

다음호에 계속

서울工人敎授

建築體系를 통해서 본 形態構成과 表現方法 (2)

尹道根

3. 로마네스크 建築

로마네스크식 建築은 基本的인 항목을 밝혀줄 수 있다. 建築構成을 理解하는 새로운 方法으로서 形成의 過程은 다음과 같은 項目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古典知識의 活用과 精鍊

圓筒型의 圓柱는 간혹 자유롭게 코린트樣式의 詳細를 모방한다.

基部는 立方體의 基礎石위에 놓이고 느끼는 압력을 전달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基部는 裝飾역할 뿐이었다.)

2) 새로운 形態의 結合과 創造 (보울트)

“클뤼니 수도회의 (clunisien)” 半圓型천장은 바로 바깥 돌레에 놓이던 古代半圓型천장과 反對로 지붕 꼭대기에 놓인 가벼운 천장이다.

半圓型천장은 11세기末까지 아아치모양이다. 12세기에 고딕아아치(Ogive)는 石工의 匠手를 中間으로 줄이는데 끼일 뿐이었다. 13世紀에 고딕 아아치는 曲線같이 活用되었다. (그림28의 (c))

클뤼니 (cluny) 사람들은 고딕 아아치의 정력학의 우월성을 보았다. 그것은 중요한 改革의 근원이다.

클뤼니의 서로 만나는 線이 있는 보울트는 꼭대기를 半圓보다 넓히거나 패널을 불룩꼴로 함으로써 古典樣式과 달라졌다.

3) 靜力學에 기초를 둔 建築構成

(보울트의 平衡을 이루는 수단)

버팀벽과 이음보는 보울트의 應력과 겨루기 위해서 利用되는 유일한 方法이었다. 로마人和 東로마제국人들은 버팀벽을 建造物의 内部에 設置했다. 특히 로마人은 버팀벽으로 活用했다.

側廊에서 저항력은 버팀벽을 만들어주는 壁M로부터 공급 받는다.

C 중앙홀 回廊에서 橋台는 교각이다. P.

扶壁E는 걸음으로 보아 교각의 應력 들어간 側廊을 가진 보울트의 後部部分위에 가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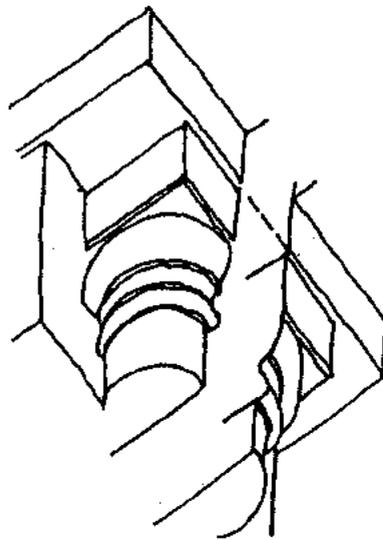


그림 25 柱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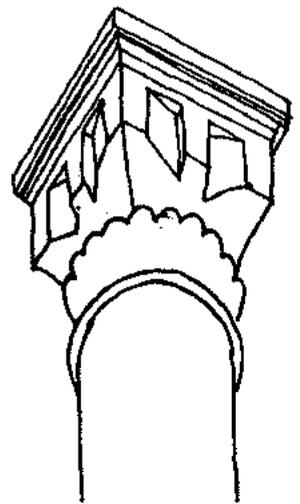


그림 26 로마네스크의 基部



그림 27 새로운 보울트의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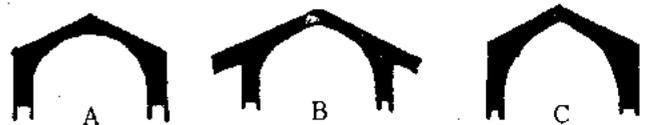


그림 28 크딕아아치모양의 半圓型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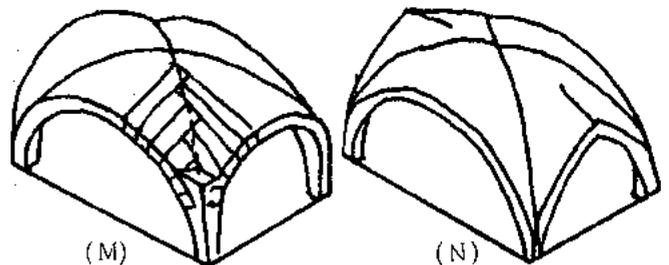


그림 29 보울트가 서로 만나는 線의 構造

얇은 천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중 아아치를活用한다.

4) 結論

① 以上の 새로운 構想의 觀點과 평행해서 새로운 規範的인 論理의 스케일 觀念을 出現시켰다.

“추상적인 調和만을 인식한 古典的인 技術은 완벽한 調和에 근거했다.

랏슈(Lassus)의 관찰에 따르면 規模를 부각시키는 기술, “스케일” 原則에 구애받지 않는 時期는 中世였다.”

層(벽돌·블록따위가 水平으로 쌓인)의 높이는 미터법으로 表示된다.

로마네스크式의 建築은 미터單位의 古典的인 活用을 지켰다.

“특히 建造物의 ‘스케일’ 觀念은 당연한 것이였으며 더욱이 그리이스의 建造物에서 視覺的인 크기의 關係나 프 로포션만을 論했으나 中世에는 自体크기를 계산하였다.

② 끝으로 로마네스크式 建築은 수도원과 교회의 建築物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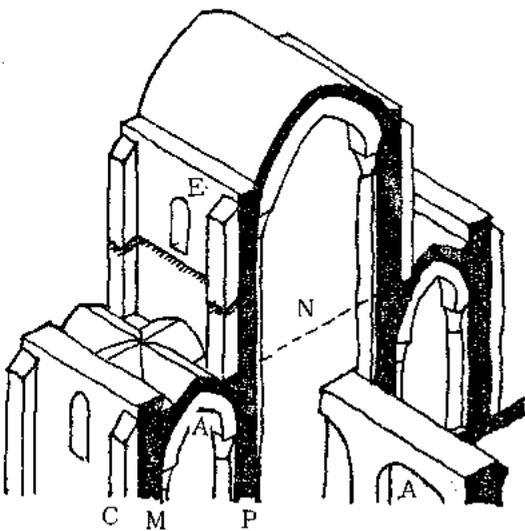


그림 30 構造의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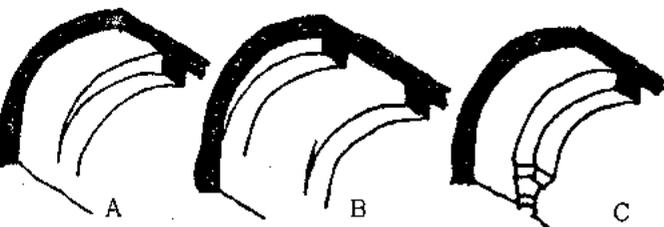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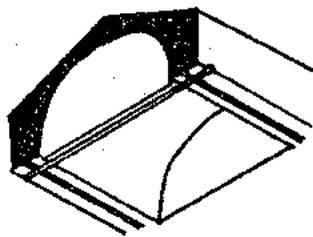


그림 31 아아치의 모양

로마時代 末葉부터 12世紀 中葉에 이르기까지 수도원 以外는 없었다.

로마네스크時代가 물려준 유일한 기술적인 개론서는 修道士(僧)를 爲해 쓰여진 修道士의 作品인 神學書인 것이다.

4. 고딕의 建築

로마네스크 建築에서 形態를 構成하는 새로운 方法의 形成을 보았다. (보울트의 정력학 以後와 스케일 외식에 對한)

고딕式 建築은 이러한 기초로 부터 基本原則과 諸要素를 설명할 수 있는 樣式에 이르기 전까지 가일층 다듬어졌다.

로마네스크 建築은 形態의 構成과 같은 程度로 보울트의 調和된 配置에 근거를 두었다. (버팀벽(Contreforts) 이중 아아치(arcs Doubleaux) 이음보(Tirants))

發展되고 精鍊된 고딕樣式은 이중개력을 通해서 극도의 圓척을 지니게 되었다.

1) 리브가 있는 보울트의 原理

고딕式 보울트는 리브의 骨格위에 悠然性있는 패널의 모임이다.

로마네스크式 보울트 施行의 어려운點은 패널들 사이를 붙여서 고정시키는 曲線으로된 모서리 서까래(aretier)의 두께에 있다.

고딕式의 해결책은 對角線으로 갈라진 半圓型 部分을 가지고 모서리를 받치는 것이다.

— 리브위의 보울트는 힘이 덜든다.

— 보울트는 리브가 저항력을 分散시키는 쪽으로 힘을 쏘는 유리한 方向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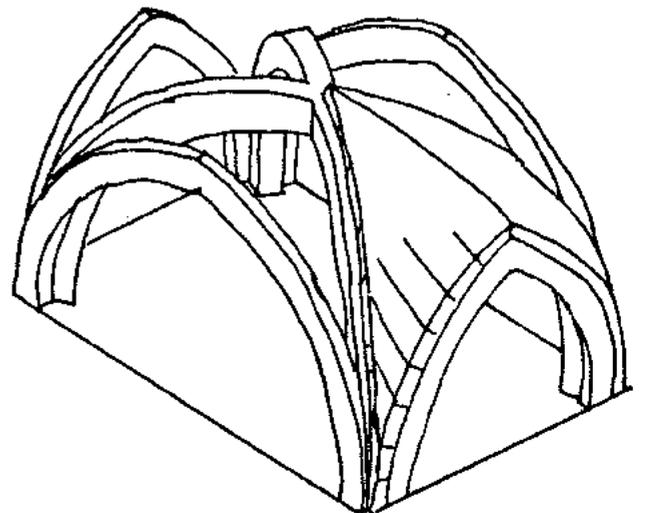


그림 32 아아치로된 半圓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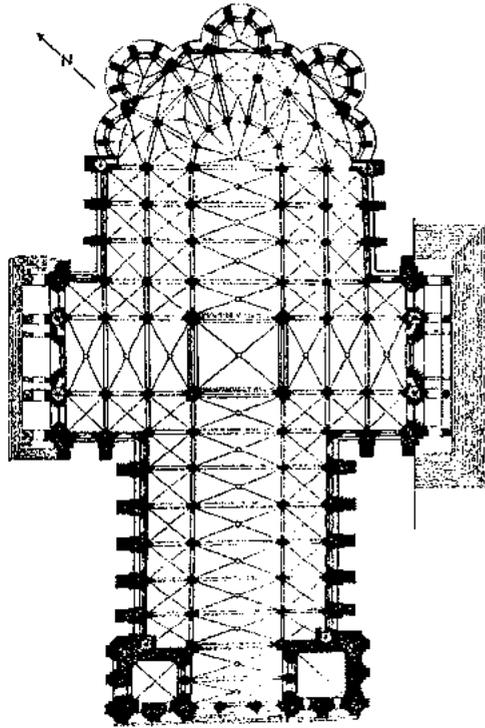
사방으로 앙켜 연결된 아아치는 고딕式 보울트의 실제 一般曲線처럼 나타난다.

리브는 버티고 있는것 보다 오히려 鐵線緊張器(Raidisseurs)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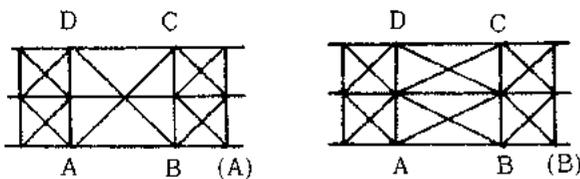
Saint-Sulpice de Favieres, 聖堂후진의 보울트에서 잘 알 수 있다.

2) 適用하는 경우 原則

리브, 보울트를 통한 建築의 方法은 유연성이 매우크고 圖面에 좀더 多樣하게 적용시킨다.



(1194~1220) 그림33 샤프 르大聖堂의 平面과 断面



네이브(Nave)의 보울트 그림34

A, C. 对角線 아아치의 垂直높이를 줄이기 爲해서 長方形의 圖面에 보울트의 原理를 適用했다(그림(B))長方形 A, B, C, D. (그림34A)는 2個의 長方形으로 나누어 진다.

—聖堂의 후진(apse) 보울트, (그림35)

보울트는 放射狀의 리브위에 패널에 依해 갈라진다. 壓力은 0 点에서 均等해 진다. (光線의 集中点)

—側廊의 보울트(그림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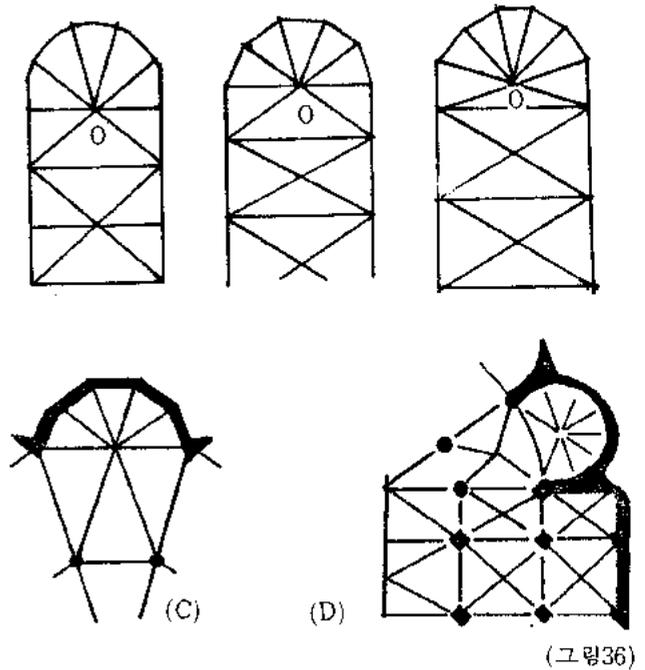
側廊의 보울트는 共通 정점쪽으로 한점에 보이는 리브 構造에 依해 둥근아아치 천장에 결부된다.(그림36(C))그림 D는 봉침의 側廊이 붙인 경우이다.

3) 침두 아아치의 原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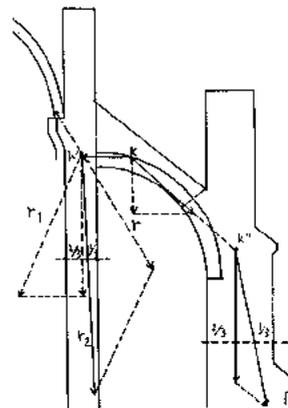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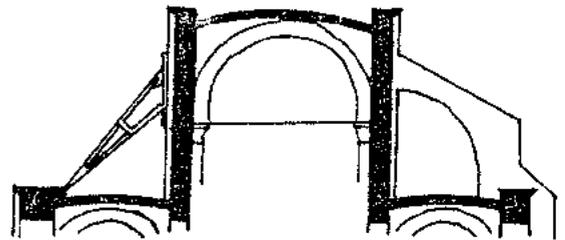
침두 아아치(Arcs Boutani)와 壓力(아아치 천장 싸워의 미는 힘, 水平線의 作用) 중력(수직적 하중)의 支柱(pile)를 対応시킨다.

침두 아아치를 創造해낸 고딕時代의 建築은 로마네스 크스 보울트를 承襲하고 있다.

침두 아아치는 버트레스(buttress·버팀벽)와 교대(abutment·홍예받침대) 쪽으로 壓力을 전달하는 問題를 解決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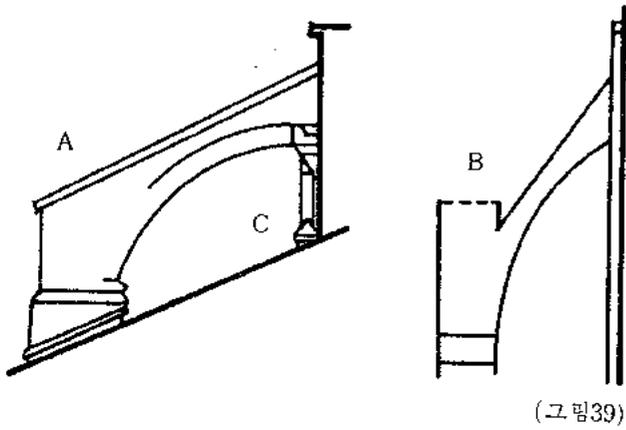
(그림36)



—침두 아아치의 發達

斷面의 시초는 1/4의 円이었다. 보울트의 홍예허리部分(홍예밑에서 종석까지의 曲線面)은 보강을 한다. (C部分) 아아치의 反應作用은 水平線이 된다.

좀더 강하게 만들기 爲해서 斷面(B)를 利用한다. 그것은 정력학에 도움을 준다. 아아치의 作用은 모든 壓力을 分散시키는 기울어진 應力이 교대의 垂直荷重의 一部와 같도록 했다.



(그림39)

4) 고딕식 支柱

로마네스크 時代に 支柱는 이중 機能을 했다.

- 支柱의 機能(垂直의 荷重을 받는)
- 橋台의 機能(壓力과 均等을 받는)

휘는것을 막기 爲해서 보강된 部分의 완전한 活用은 가로버팀대와 연결된 A와 B의 두 支柱에 依해서 이루어진다. (C部分)

굴곡을 피하기 爲해서 半圓型 部分이나 間接적으로 가로장을 붙여서 들썩 主体的인 支柱를 作用한다(R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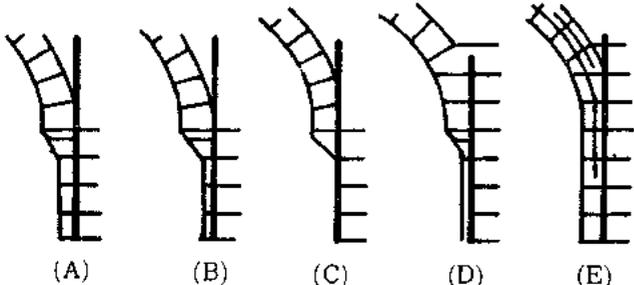


그림 40 점두아아치利用前·支柱의 發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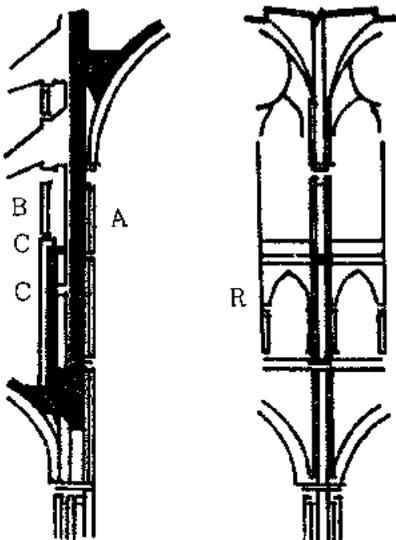


그림41

5) 橋台(abutment) 버트레스(buttress)

로마네스크식의 버트레스는 거의 항상 垂直이었다. 고딕식의 建築은 더욱 위용성을 갖도록 기울어져 表現되었다.

그러나 基部는 매우 커서 수직荷重을 받는다. (그림41·C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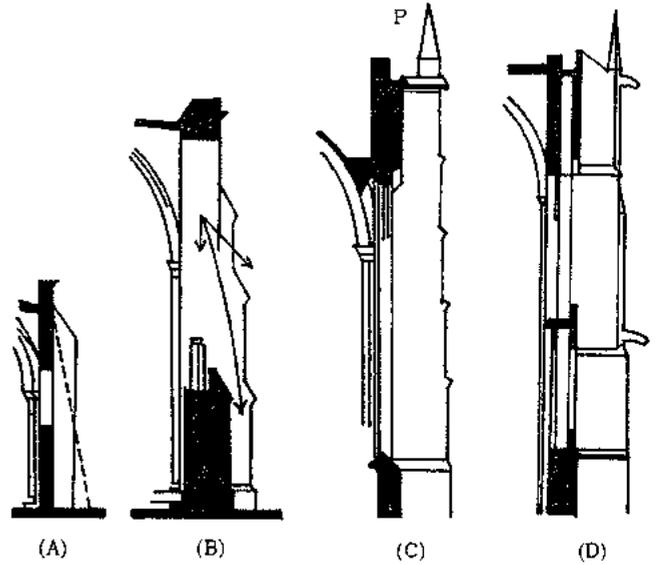


그림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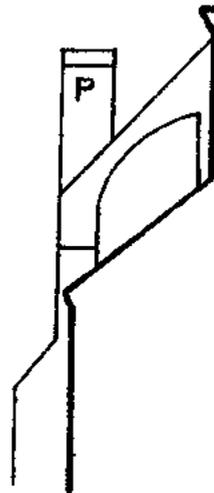


그림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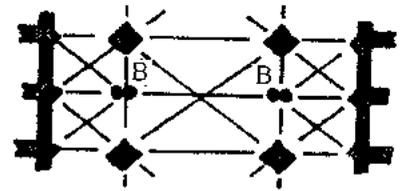


그림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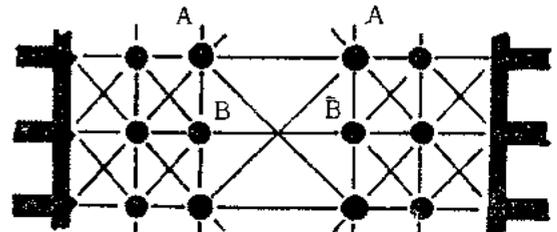


그림44

- 橋台와 버트레스는 壓力을 받거나 무력하게 됐다. 外部의 斜角성은 첨두 아아치가 전달하는 상하전도의 應力에 교대·용적의 저항을 막았다. 첨탑(pinacle) P를 통한 레스타즈(Lestage·벨라스트(바닥짐)를 실기)는 저항을 增大시킨다.

다른 레스타즈의 例로서 <그림41>의 C에서 垂直 버트레스의 굴곡은 첨탑P의 活用으로 均衡이 잡혔다.

- 原理를 適用한 例

支柱는 겨우 3個의 樞要點(樞要의 基點)에 一致되는 不規則的인 断面이다. A支柱는 中間의 B보다 더 굵다.

중간의 B支柱는 가느다란 두개의 짝자워진 円柱에 依해 축소된다.

T円柱는 두개의 사이 층계에 依해서 첨두 아아치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작은 円柱를 가지고 두 支支柱 사이를 강화해 주고 있다. 버트레스는 저항이 가중되기 전에 더 튀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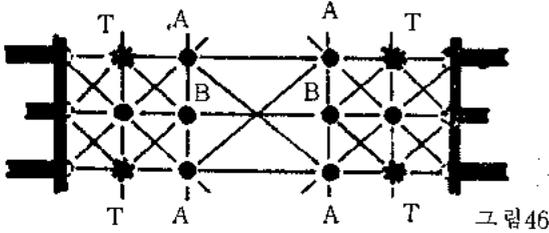


그림 46

聖堂의 平面 中央홀에 적합하게 應用된 三角形 等邊에서 派生된 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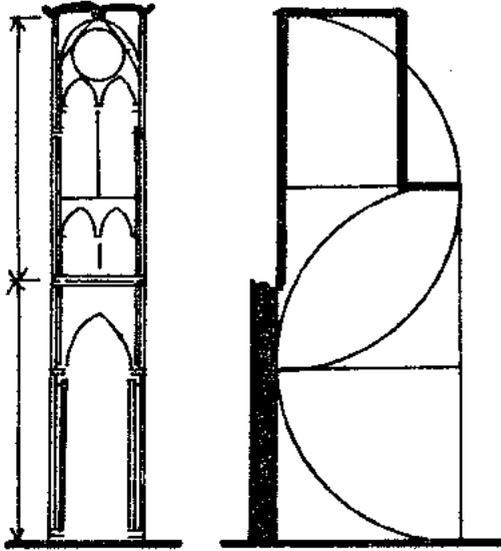


그림 47

6) 프로포션과 스케일 問題

고딕式 建築術은 계속 全幅的으로 이용 되었다.

① 프로포션: 中世以后 프로포션에 對한 外型을 建築했던 法을 決定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單純한 關係의 活用에 對해 分명한 의도를 알 수 있다.

“7部分으로 고르게 正面의 幅을 区分, 分배의 要點은 버트레스와 門의 주축에 裝飾을 하도록 했다. 垂直的인 감각중에서 버트레스의 돌출은 일정한 間격으로 늘어 섰다.”

中世의 建築家들은 古風을 活用한 프로포션의 規範을 관찰 했다.

—스케일: 로마네스크式 建築物 가운데 層(layer)의 높이를 통한 스케일의 表現은 고딕式 建物에서도 發見되었다. 또다른 點은 중키정도의 사람을 基準으로 한 建造物의 各要素의 크기에도 나타났다.

“마을의 敎會에서 大聖堂에 이르기까지 門의 規格은 均衡하게끔 확대되어 느끼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門에 對해 公共建物의 重要性이 있다고 할지라도 門은 通路로

7) 結論

고딕式建築은 概念의 構造, 매우 뛰어난 세련된 形態의 構成과 限界에 이를만큼 고르게 不합되는 統一性이 發達되었다.

이러한 進歩의 論理는 應力의 조절에 있었다. — 遊離시키고(isoler), 分解하고(décomposer) 統別하고(diriger) 解除하고(annuler) 상쇄시킨다.

리브는 작은 일으로, 갈라진 보울트는 應力을 한곳에 모으고 精確한 正지기능을 가진 다른 조직쪽으로 돌린다.

첨두아아치(압력, 분산, 조직)는 리브의 壓力을 버트레스壁과 상쇄시키는 機能을 가진 橋台쪽으로 모은다.

支柱는 오직 수직應力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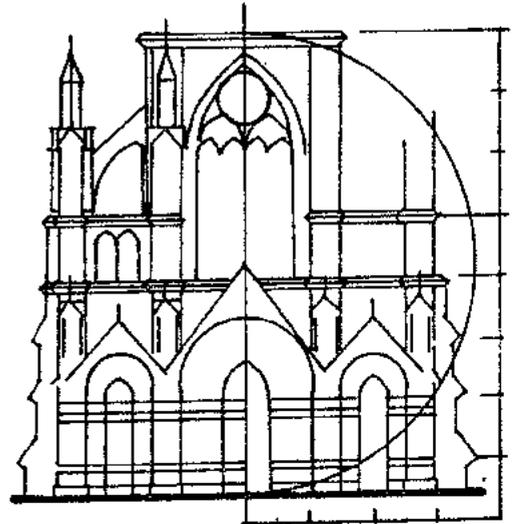


그림 48

도 주어져야 한다는 機能으로 變할 수 없는 理由를 갖고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아직도 精確한 해결책없이 존재하는 정력학의 統一性 問題와 시행의 문제들을 提起하는 로마네스크式 建築과 根本을 이루는 基本原則 가운데서 合理性을 發見할 수 있다.

모서리 서까래(arétier) 두께를 시행하는 어려움은 패널들 사이의 接合을 하게 한다.

支柱는 壓力과 수직應力을 동시에 받는다.

로마네스크式的 버트레스는 最大 應力을 가진 압력이 있는 部分으로 유도하는 지나치게 두꺼운 壁이었다.

고딕式的 建築은 점차로 계속 精練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했다.

리브의 보울트는 첫번째 어려움을 해결했고 새로운 정력학의 利點을 갖어왔다.

첨두아아치는 다시 使用되었고 고딕式的 支柱는 수직 應力만을 받은 것처럼 壓力을 분산시켰다.

첨탑(pinacle 보죽탑)에 의해 안정된 버트레스는 첨두 아아치의 압력을 약하게 했다. 정력학의 論理는 명백하다.

建造物의, 要素의, 人間의, 스케일을 가진 層과, 높이와 크기는 스케일의식을 명확히 정의했다.

스케일의 의식은 프로포션의식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 실제로 고딕식의 建築은 古典의인 프로포션의 規範을 활용하였다. 스케일의식은 後에 나타났다.

수직적인 象徴(Symbolisme) 体系는 고딕식의 特徵을 이룬다.

만약 사람들이 느낀 감정을 정확하게 表現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경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완전히 反對되는 느낌은 古代그리스나 中世 東로마 제국의 記念物과 對변하여 시험하는 느낌이다.

동기를 유발시키는 보울트를 드러내지 않는 교대의 조적을 建物의 外部에 놓는다. 内部를 빛내는 것은 모습을 드러낸 유일한 보울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視線은 성·

소피아(Sainte-Sophie) 寺院처럼 보울트와 그것을 고정시키는 橋台를 포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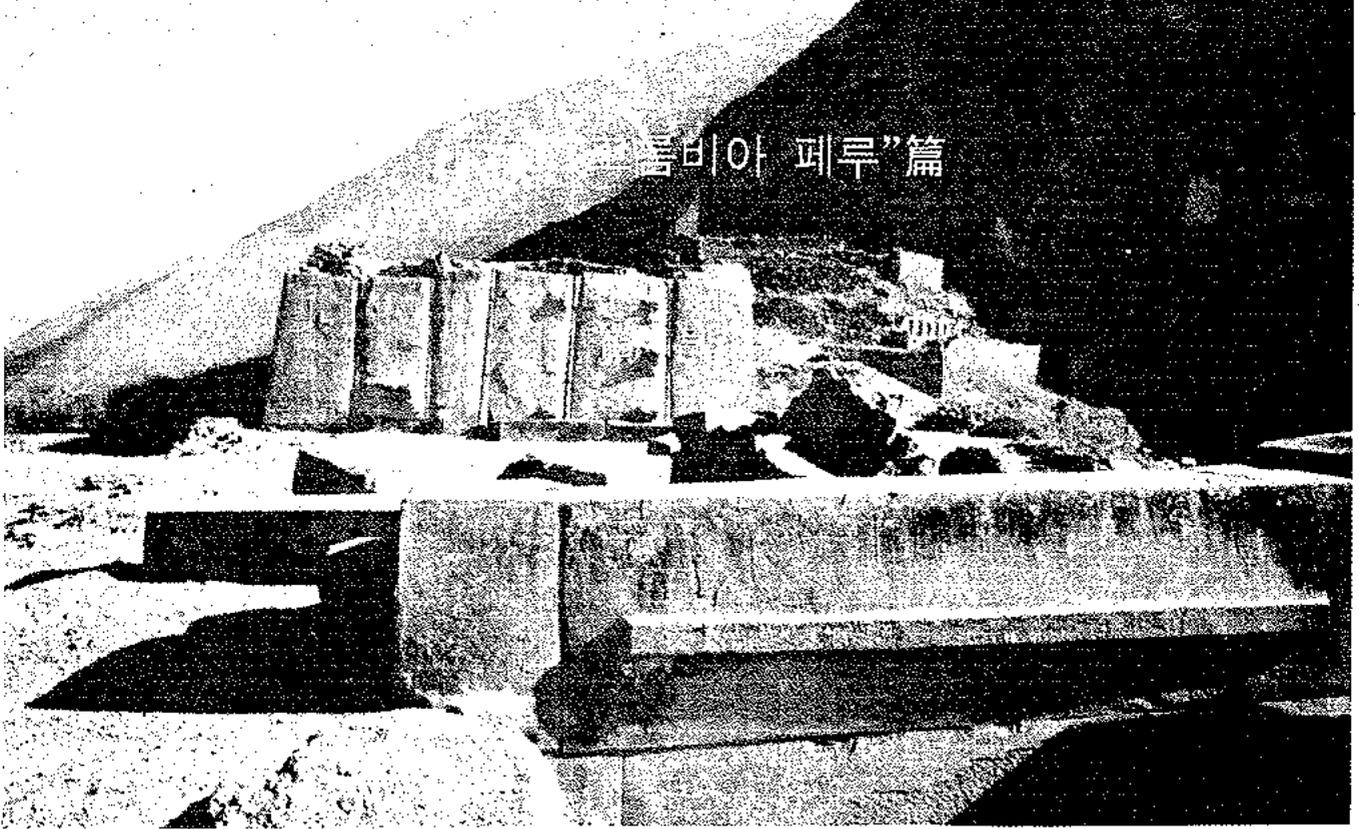
보는이는 자신의 불완전하게 밖에 說明할 수 없는 프로포션에 對面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 構成을 發見해 낼 것이다. — 끝 —

参考文献

- ① 鄭寅口著, 西洋建築史 서울·文運堂, 1975.
- ② H. W. Janson 著. 材田潔 監修
美術の歴史(History of Art)
日本·美術出版社, 1971.
- ③ Auguste Choisy 著
Histoire de l'architecture, Tome premier,
Paris, Editions SERG, 1976.
- ④ Auguste Choisy 著.
Histoire de l'architecture, -Tome Second,
Paris, Editions SERG, 1976.
- ⑤ Wilhelm Worringer 著
L'Art Gothique, Paris, Editions Gallimard,
1967.
- ⑥ Philippe Boudon 著
Sur l'espace architectural, Paris Dunod,
1976.
- ⑦ General Editor Gerd Hatje, 共著.
Encyclopaedia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1975.
- ⑧ Christian Norberg-Schulz 著.
La Signification dans l'architecture occidentale,
Paris, Pierre Mardaga éditeur, 1977.
- ⑨ Otto Von Simson 著.
The Gothic Cathedral
New York, Bollingen Series/Princeton, 1974.

弘益大学校 工科大学 教授

“콜롬비아 페루”篇



11月1日 昨夜의 離別宴에서 너무도 떠들어서 목이 쉴 정도였고 몸이 아주 疲勞해서 노곤하다.

張錫雄氏는 早朝 첫 飛行機로 다시 Mexico, city 로 紛失物 때문에 떠났고 韓鼎燮氏와 나는 9시에 acapulco 空港에 나갔더니 아게 웬일일까. Mr.張은 勿論 成益煥氏 金枝泰氏 黃一仁氏가 다있지 않은가. 結局은 南美一周의 一行 6명이 모두 모인 셈이다. Mr.張은 空港에서 Mexico로 갈 必要가 없게 되었고 우리一行에 合流한 것이다.

食口가 많아져서 더욱 즐거웠다. 午後 2時頃に Colombia 의 Bogoda 空港에 着陸했다. 前空軍參謀長이었던 玉滿鎬將軍이 여기 大使로 와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 너무도 짧은 旅程이라 大使館을 訪問할 時間도 없었고 거리의 中心部에 있는 park hotel 에 집을 들었다.

午後의 날씨는 快晴했고 氣溫도 알맞다. 原來 Colombia 는 全國土가 平均的으로 가장 높은 標高에 있는 나라이다.

約 3,000m 程度의 海高이므로 氣候가 아주 良好한 便이다. 南美大陸의 西海岸을 縱으로 달리는 andes 山脈이 “과테말라”에서부터 Colombia로 해서 Peru-Chile로 해서 Boribia를 거쳐 마제란海峽까지 뻗어있는데 이 山脈의 始作이 바로 여기서 부터 인것이다. 6·25 動亂에 Colombia는 우리나라에 軍隊(約 2個大隊)를 派遣한 南美國家中에 오직 한나라이었다.

Bogoda 市街地를 거닐면서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고마운 같은 것을 느꼈다.

거리에서 外國人 觀光客이 우리더러 “여기는 白晝에도 날치기가 많으니 “카메라”를 앞으로 꼭 쥐고 注意해야 한다”고 타일러 준다. 勿論 우리가 東洋人이고 (아마도 日本人으로 보는 모양이었다) 觀光客으로 보고 그러함이 이 겠지. 率直히 말해서 우리는 南美諸國에 대해서는 別로 아는바가 없었고 Colombia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Bogoda 中心街에 있는 Golden Musco (黃金博物館)을 보고서는 再認識해야만 했다. 이 博物館은 Colombia의 名物의 하나로서 黃金으로된 遺物만을 陳列하고 있기에 名稱도 그렇게 지어진거다. 博物館 建物로서도 特異했고 各 陳列室은 “샷타”가 있어 約20名 程度의 觀客을 入室시키고는 執銃한 憲兵이 1名은 門밖에 1名은 觀客과 같이 室內로 들어오곤 “샷타”를 내려 버린다. 그 室內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室內의 憲兵이 信號를 하면 照明이 徐徐히 켜져서 室內 全體가 보이게 된다.

모든 觀客들은 와-하고 嘆聲을 올린다. 그것은 4面壁의 陳列棚속에 너무도 많은 金製品이 燦爛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遺品들이 많아서 陳列도 못하고 山뻘미처럼 마구 쌓아 놓았다고 해야 옳을것 같다. 우리 新羅의 金冠이나 天馬塚의 金冠, 金器, 몇種을 가지고 所重히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金板이나 金箔이 아니고 金塊로 各種 裝飾品이나 動物에서 祭器에 이르기까지가 金덩어리로만 들어졌고 그 規模나 量이나 精巧性이나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andes 山脈에 金이 얼마나 많이 있기에 옛부터 이 山脈을 끼고있는 나라들의 金屬文化가 이처럼 發達했을까. 冊에 보면 南美를 占領한 Spain 이나 Portugal 이 數없이 많은 金을 掠奪해 가고도 이처럼 많은 金이 남아 있다니 어처구니 없을 程度이다.

나는 數次의 紀行文을 土協誌에 寄稿해 왔으나 毎回마다 強調했드시 여기서도 그런 생각은 如前했다. 卽우린 新羅文化를 大端한 것으로 學生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나 果然 世界文化史에 新羅文化에 대해 몇줄이나 쓰여져 있는가 말이다. 外國의 文化들을 보지도 못한 모르는 學生들에게 世界的으로 燦爛한 新羅文化라고만 가르쳐야만 할 것 인지는 좀 생각해 볼 必要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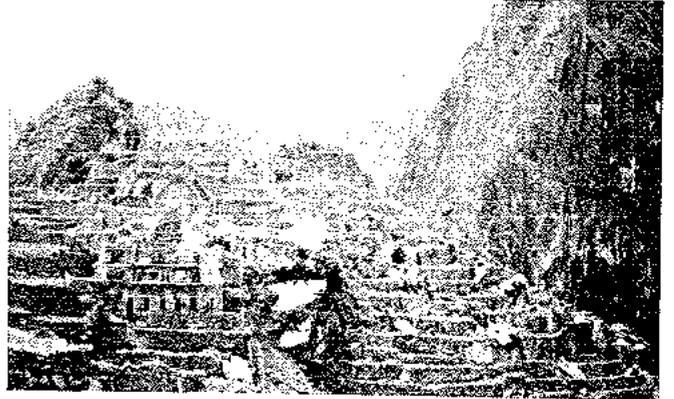
우린 hotel 에서 南美 各國을 돌아다니면서 카지노 player 가 職業이라는 젊은 青年을 만났다. 그것도 그럴것이 bogoda 에서 英語가 通하지 않아서 hotel - front 에서 옥신각신 하는데 그青年이 英語를 했기 때문에 親하게 된 것이다.

그의 말에 依하면 (그는 Colombia人이다) 白晝에도 그러 하지만 夜間에는 더욱 거리에 날치기 왜가 날된다는 것이고, taxi 도 hotel 에서 紹介해준 것 만을 利用하라고 하며 거리에 女人들을 特別히 操心하라고 알려 준다.

나는 저녁 무렵에 好奇心이 나서 거리의 뒷골목을 일부러 걸어 보았다. 카메라, 紙烟, paseport 등은 모두 hotel 에 맡기고 運動靴를 신고 나섰다. 야니나 다를까 뒷골목 異常한 집들 玄關에 야릇한 차림의 女人들이 득실거리고 히히덕 거리면서 行人에게 수작을 걸어온다. 그 옆에는 반드시 印象이 좋지 못한 놈쟁이 二·三名이 꼭 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泰然히 걸어가노라니, 나에게도 수작을 걸어오는데 日本人인줄 알고 “모시모시”아노네” 등의 日本語를 써부린다. 대꾸 않고 걸어 가노라니 한 놈쟁이가 와서 나의 어깨를 搦치면서 “좀 들어가서 놀다가라”는 시늉을 하기에 No하고 그를 뿌리쳤다기 보다는 밀어버렸더니, 그는 일부러인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가 발딱 일어서서 다가온다. 그 氣勢가 是非를 걸어들 것이 틀림 없기에 될대로 되라 하는 마음에 다가오는 그를 발길로 急所를 힘껏 차 버렸다. 그는 악／ 하고 주저 앉는데 이때다 하고 두 다리야 날 살려라 위었다. 등 뒤에서 女人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hotel로 달려와서 한숨을 쉬고 말을 닦는데, 例의그青年이 “왜그러냐고 물가에 事實을 얘기 했더니 그러기에 操心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한다. 우린 그의 말대로 모든 貴重品은 hotel 에 맡기고 全員이 거리로 나섰다.

勿論 hotel 에서 불러준 taxi로 말이다. 運轉士가 떠들거리는 英語로 旧 bogoda 市街며 政府庁舎, 裁判所, 兵營, 百貨店, 博物館을 가르쳐준다. 一行中에 누구인가(勿論 旅行者의 氣分으로) 술과 춤과 女子가 있는 곳이 없느냐 했더니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安心할만한 곳이 있다면서 自己가 保障하니 危險하지 않다는 곳에 車를 세우고 自身이 먼저 그집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나옴테니 車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다. 이윽고 한 青年을 데리고 나와서 自己는 車에서 기다릴테니 青年을 따라 가라고 한다. 우리 一行은 青年을 따라 꼬불한 좁은 階段으로 三層

에 올라 갔다. 아—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40~50 명의 女人들이 거의 半裸의 모양으로 우리 一行에 넘버 는다.



MACHU PICHU



古代의 農耕地(階設式) 옥수수가 主作物이다



MACHU PICHU 頂上에서 뒤에 HWAINA PICHU 호이 보인다.



BOGODA 市全景

勿論 다른 손님들도 많았으나 모두가 우리 一行을 보더니 조용해지고 슬금 슬금 일어서 나간다. 女人들 거의 全員이 우리 一行에게로 몰려와서 저희들끼리 떠들어 대고 있다. 아마도 日本人이다, 中國人이다, 商人이다, 官吏들이다. 하는 모양인데 到底히 이런 狀況에선 어쩔수가 없다. 案内한 青年이 뭐라고 떠드니까 조용해졌다. 우린 그 青年에게 이 나라의 傳統音樂이나 舞蹈를 불러고 했는데 이게 무어냐고 했더니 그는 異常한 表情을 짓더니 運転手의 이야기와는 다른 판이구나 番地數가 다르다는 몸짓 발 것이다. 우린 눈치를 채고 우루루나와서 taxi 를 타고 運転手를 나무랬더니 그는 빙그레 웃을뿐 泰然하다. 기가 막힐 親旧 같으니라구! 큰 거리에서 食堂에 들어가서 저녁 食事を 하는데 또 웃음이 터졌다. 말이 전혀 通하지 않는다. 할수없이 나는 boy 의 팔을 끌고 만 손님들의 食卓을 두루두루 돌아 다니면서 그들이 먹고 있는 飲食을 가리키면서 이거 몇개 저거 몇개 식으로 注文했다. 飲食의 맛이나 냄새가 고약해서 到底히 먹을 수가 없다. 할수 없이 果實店에 가서 이것저것 果實로 배를 채우고 웃어대면서 hotel 로 돌아왔다. 그래도 우린 즐거웠다.

11月 2日.

모두들 늦잠을 자고 hotel 食堂에서 食事を 마쳤을 때는 午前 10時가 지났다. Lima 로 가는 票를 確認하고 全員이 큰 taxi 를 賃切해서 거리求景에 나섰다. 거리태야 別다를 것은 없으나 新市街는 제법 現代의 國際都市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 旧市街가 더욱 興味 있었다. 모두가 單層집 土담이고 家屋의 外部色이 黃土色이다. 이날 따라 하늘이 紺碧色으로 快晴이라 그色調가 아주 어울렸다.우린 運転士에게 bogoda 全部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더니 北쪽 높은 山길을 올라가는데 標高가 높은 地帶인지 아주 숨이차온다. 肥大한 몸집의 運転士는 山中턱에서 더 以上 숨이 차서 못가겠다기에 車에서 내려서 bogoda 全市를 굽어 보았다. 右側 新市街는 近年에 開發한 곳이라 제법 高層建物이 우뚝우뚝 섰고 左側의 丘陵地帶에 旧市街가 있다. 땅에 착들어 붙어 있는듯한 黃土色의 廣範한 地域이다. 山길에는 “인디오”들이 “노새”나 “라마”를 끌고 다니는 것이 보인다. mexico 나 peru 나 Colombia나가 古代의 文化를 이룩한 것은 그들 “인디오”들의 祖上들인데 現在는 混血이나 白人들이 모두 政權이나 勢力이나 富를 차지하고 이들은 아직도 貧困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

이런 狀況은 南美 各國에 있는 現狀이다. 廣闊한 大盆地에 그 옛날의 榮華는 現代文明에 밀려서 觀光資源으로 되어 버린 旧市街地 하늘은 푸르고 空氣는 맑고 구름은 예나 이제나 다름바 없는데 왜 “인디오”그대들은 祖上들의 文化를 懷顧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에 貧困에 허덕이고 있는가. 숲속에 “인디오”少年이 부는 풀피리 소리는 哀

처롭기만하다. 榮枯盛衰는 時運이런가, 午後 5시 bogoda 空港을 出發해서 3時間이면 peru Lima 에 닿는다. peru 는 이번 旅行中 가장長時間 滯在했고 또 旅行 第2目的이라고 할. “인카”文明의 遺蹟을 보아야 할 애기거리가 많은 곳이고 또 나 個人으로서는 더욱 뜻 있고 신나는 곳이기도 했다. 그것은 peru 이야기 以前에 若干의 說明이 必要하다. 卽 나는 1975년에 spain 의 madrid 에서 開催된 U. I. A會議에 參席했을때 8日間の madrid 滯在中에 peru 代表團들과 偶然히 알게 되었고 그 中에서 女性建築家 數名과 親해졌고 特別히 so-corro estrada 라는 大學을 나온지 얼마 안되는 o-vserver 로 따라온 媿女建築家와는 아주 親해졌고 歸國後도 3年間이나 書信이 오고 갔다. 이번 mexico會議에 그 女도 參席한다고 했고 會議가 끝나면 自己 나라로 가서 “인카”遺蹟을 案内해 준다고 約束했기에 mexico-에 到着하자마자 peru 代表團을 찾았으나 6,000名이나 되는 人員中에서 찾아내기란 어려웠고 途中에 merida 에도 다녀왔고 해서 우리 一行 全員에게도 peru 代表團을 찾아서 그 女를 찾아달라고 附托을 했으나 못 찾았다.

結局 acapulco 會議場에서야 peru 建築家夫婦를 만나 그 女의 消息을 물었더니 그 女는 現在 Lima의 自己집에서 設計事務室을 하고 peru 建築家協會正會員이며 女性으로서는 가장 建築活動을 活潑하게 하는 便이고 家門이 좋고 이번 mexico會議에 參席하려다가 現場일이 바빠서 못 왔고 韓國代表團中 崔氏를 찾아서 Lima 로 꼭 오라고 伝해 달라는 附托을 받았다고 하면서 自己도 韓國代表團을 찾아서 헤메었다고 하며 반겼다. 그의 婦人도 같은 建築家이라 親히 지내는 사이며 acapulco 會議가 끝나면 꼭 Lima 로 오라고 하면서”그 女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면서 異常한 웃음을 짓는다.

그들은 Mexico airline 從業員들이 罷業을 할 氣勢도 있고 또 일이 바빠서 하루 먼저 떠나겠다면서 Lima 에 가는데 그 女에게 다섯명의 韓國建築家들이 Mr 崔와 같이 11월 2日 Lima 에 온다고 伝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궁금했다. 그 女가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또 우리 一行을 어떻게 案内해 줄것인가? 우리 一行은 事前에 그 女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지만 그 女와 나 사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 異常 야릇한 心情이었고 小学生마냥 興奮하고 있었다 peru air Line 機가 Lima 空港에 着陸한 것이 午後 7時 좀 지나 해는 지고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나는 가슴이 설레이고 어쩔줄을 몰랐다. 마침 英語를 잘하는 觀光案内員들을 만나 그들의 車로 호텔 riveria 에 投宿했다. S嬢의 住所와 電話는 알고 있지만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나니 10時가 지났기에 連絡하는 것을

참고 案内嬢에게 그녀의 電話번호와 姓名을 적어서 내일 아침 일찌기 그 女에 連絡해서 우리 一行이 Riveria - 호텔에 投宿했다고 伝해 달라고 附托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一行들은 내일 아침에 그 女가 오면 相議해서 遺蹟見学の 日程을 짜자고 했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三年만의 만남이다. madrid 에서 애뵈고 귀여운 그 女가 얼마나 成長했을까?

spain 에서 그 女와 즐겁던 일들이 되살아나고 많은 便紙의 句節도 생각나고 何如間 異常 야릇한 心情에서 그 女에게 줄 韓國에서 갖고온 贈物들을 쟁겨 놓고서야 이불을 뒤집어 썼다

11월 3일

지난 밤 늦게야 잠이 들었기에 9시에야 일어나서 食堂에 내려가니 一行은 벌써 다 食事を 하고 있었다. 食事を 하고 있는데 FRONT에서 Mr崔 전화라고 連絡이 왔다. 달려갔다. 오- 그 女의 呼吸소리다. 틀림없는 그 女의 肉声이다. 그 女도 興奮했는지 말을 잘 못한다. "soco - rro 빨리와" "예 곧 갈게요"이런 式의 전화였다.

成兄이 "어느 程度의 女子이길래 야단ियो"하면서 놀려댄다.

"응 보고만 죽어"하고 나도 웃었다.

全員 lobby 의 coffee shop 에 앉아서 그 女를 기다렸다. 나는 正門쪽만 쳐다 보고 있었다. 正門 앞에 灰色大型 自家用車가 닿고 그 女가 내리는 것이 roby 에서 보인다. 뛰어나갔다. 그 때 光景은 쓰지 않기로 하자. 一行들의 10個의 눈이 우리 두사람의 動作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暗轉, 나는 그 女를 一行에 紹介하고 一行을 그 女에게 紹介했다. 握手를 하고 人事를 나누었다. 그런데 張兄과 黃兄이 그 女의 뒤에서 있는 젊은 女人을 의아스럽게 보고 있다. 처음 보는 眼鏡 쓴 그 女는 빙그레 웃고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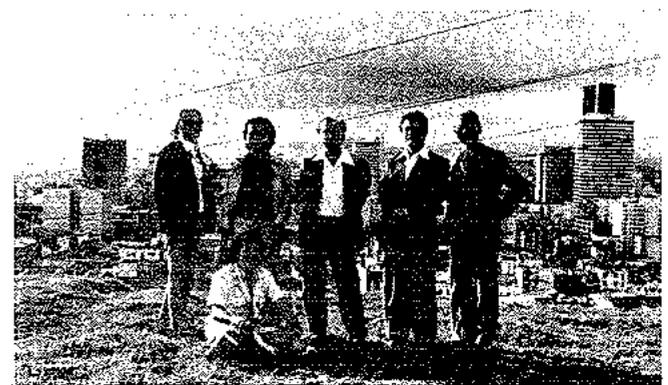
S嬢이 잇었다는 듯이 나에게 自己가 英語가 서툴러서 自己後輩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女는 英語를 잘 한다면서 紹介를 한다. "maki" 그 女의 이름이다. 아직 女大生 같았는데 卒業한지 2年이나 되며 S嬢일을 도와 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Lima 大學 建築科 卒業生들이란다. "maki"嬢도 peru 建築家協會 准會員이란다. 우리 一行은 그 女들과 지체없이 親해졌고 농담도 하면서 行動開始의 日程表를 짰다.

即 "maki"와 張, 黃은 移民局 航空社로 떠나고 S嬢과 나와 金枝泰氏는 郵便局으로 가서 冊들과 무거운 짐들을 船便으로 発送하고 成兄과 韓會長(한정섭)은 호텔서 기다리고 全員12時 11刻까지는 호텔에 集會 점심하고 市内觀光과 大使館訪問을 할 作定이고 明朝5時에 出發 cuzu

co로 出發 "잉카"의 大遺蹟인 machu-Pichu 로 떠나기로 計劃을 세웠고 그 女들도 同行하기로 했다.



MACHU PICHU의 一行 帽子 쓴 少年은 案内者의 아들이다.



BOGODA市에 一行全員



聖堂 앞 広場에서 S嬢과 나란히선 筆者



안데스山脈의 봉우리들

peru 에는 machu pichu 을 비롯해서 cuzuco , n-
azuca 등 꼭 보아야 할 곳이 많은데 Lima 에서 모두遠
距離에 있어 飛行機며 호텔 予約等 複雜한 일이 많았고
chire argentina 로갈 予定日 이 定해져 있어 時間이
아쉬웠다.

一行은 相議 끝에 chire 를 포기하고 Lima 에 1日을
머무기로 하고 Lima 에서 直接 argentina 로 뜨기
로 變更했다.

S嬢은 自己車로 4時間이나 우리 一行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案内해 주었고 勿論 maki 도 같이 뛰여 주었다.
女子들의 몫으로 自己들의 일은 全廢하고 말이다. 真心으
로 고마웠다.

英語가 通하지 않는 나라이라 그 女들이 通譯에서 부터
모든일을 다 수고해 주었다. 郵便局에선 가게에 가서 천,
바늘, 실 등을 사다가 小包을 만들어 바늘로 꿰고 여덟
개나 되는 小包을 發送해 주었고 우리 그지 옆에서 멍하
니 求景만 한 셈이다. maki 組는 그들 나름대로 打字까
지 쳐서 移民局에서 書類을 만들어 우리 一行의 旅卷을
다 찾고(어젯밤 空港에서 旅卷을 移民局이 保管 했었다)
cuzuco 行 飛行機 8人分 予約이며 호텔 予約과 naza-
ca 行 5人乘 飛行機 專賃 予約에서부터 온 종일 點心도
못하고 일을 했다는 것이다.

거리엔 學生들의 데모가 나서 가게들은 샷타를 내리는
등 법적인데 밖에 나간 두 組가 돌아오지 않으니 호텔에
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걱정이 되고 나간 사람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그 女들은 두 곳에서의 일을 거의 다 해 주었
다. 結局 3시에 호텔로 와보니 maki 組에서 전화가 와서
5시가 되어 끝나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끝나는대로
우리 大使船으로 오라고 하고 大使船으로 달려 갔다. 大
使任도 職員들에게 S嬢을 紹介하고 오늘 한일 들을
이야기 했더니 大使任이 直接 S嬢에게 고맙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 大使任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던中 전화가 와
서 到底히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S嬢에게 韓, 成, 金兄을 호텔에 데려다
주고 나와 같이 maki 組 쪽으로 가자고 했다. S嬢도 初
面に 張, 黃 두사람에게 親旧를 맡겨놓고 온 終日 못 만
났으니 親旧 걱정도 되니 곧 가자고 했다. 호텔에 到着해
서 세 사람을 내려놓고 떠나려는데 maki 一行이 왔다.

모두 暈초가 되어 돌아 왔다. 나는 그 女들의 勞苦에
너무도 未安해서 저녁을 待接하기로 하고 張·黃兄과 S
嬢의 車로 거리로 나갔다. 나는 그 女에게 말했다. “두사
람은 오늘 너무도 手苦가 많았다. peru 에서 가장 高級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먹자. 그리고 peru 의 傳統音樂과
舞踊을 하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알만하다고 끄덕
이며 運轉을 한다. 이윽고 어떤 家庭집 앞에 車를 세운다.
maki 가 socorro 의 집이란다. 옷을 갈아 입고 얼굴
도 만져야겠다는 것이고 父母任에게도 걱정 안 되게 해

야 하다면서 들어오라고 한다. 우린 玄關으로 들어갔다.
豪華住宅이다. 勿論 S嬢의 設計란다. 넓은 応接室에 들
어서니 裝飾장에 日本人形이 있다. 나는 그 人形을 집어
서 바닥에 던지고 S嬢에게 내가 준 太極旗를 이 자리에
놓으라고 했더니 順順히 말을 듣는다. “왜 韓國人들은 日
本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maki 의 물음이다 “簡單히 說
明할 순 없다 그들은 侵略者들이고 軍國主義者이고 變節
者들이고, 經濟動物이기 때문이다.” 張兄의 答이다. “내가
歸國하면 韓國의 예쁜 人形을 보내줄테니 그것을 太極旗
옆에 놓으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겠다. 꼭 보내달라 나는
아직 韓國人形을 못 보았다.” 안쪽에서 어린애 소리가 난
다. “socorro 의 애기인가?” 黃兄이 maki 에게 물었
다 “오— socorro is miss ” 그 女의 오빠는 醫學博士
이고 큰病院을 經營하고 있는데 조카애의 소리다. 아빠
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 “崔會長
任 未安합니다.” 張兄이 내게 비비꼬는 말이다. 우린 모두
S嬢의 집을 나왔다. 나는 玄關에서 亞熱帶植物的 일을
하나 따서 포켓속에 넣었다. 이 나무 잎은至今도 記念으
로 나의 事務室 冊 갈피에 끼여 있다.

駐車場이 있는 單層집 앞에 車가 섰다. 꽃과는 아이들
이 우루루 물려 온다. 나는 붉은 장미 두 송이를 사서 그
女들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san fransisco에 가
거든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란 노래가 생각났다. 室內에
2~3,000名의 손님이 차 있었고 色다른 曲調와 樂器의
音樂이 흐르고 있었다. 食事와 술을 주문했다. S嬢도 疲
困한지 술을 마시겠다고 했다. 比較的 적은 舞台에 몇몇
의 손님이 춤을 추고 있다. S嬢에게 madrid 以來의 오
래간만인데 춤을 추자고 했더니 선뜻 應한다. 우린 3年
만에 Lima 에서 신나게 춤을 추었다.

그 女는 成長해서 madrid 에서의 애먼 아가씨는 아니
었다. 能熟한 舞姿의 춤이다. 춤엔 若干의 自信이 있는
나도 惝惶했다. 나는 그 女의 귀에다 소곤했다. buenos
peruvian woman ”(아름답고 귀여운 페루의 아가씨
여)그 女는 얼굴을 붉히면 微笑 지으며 “oh / brave -
korean architects ”(오 / 勇敢한 韓國의 建築家 여)라
고 대구한다. 이저 무슨 戀愛小說의 한場面같은 紀行文
이 되어 未安하지만 이때의 情景을 表現할 文章力이 나
에게는 없다.

옆에 여러쌍의 춤꾼속엔 벌써 張兄이 maki 을 안고 돌
고 있다. 食卓엔 黃兄이 혼자 앉아서 音樂에 맞추어 몸짓
을 하고 있다.

우린 交代로 그 女들과 춤을 즐겼다. 밤이 깊어 가는줄
도 모랐다. 이윽고 peru 의 傳統音樂이 나오고 손님들은
제자리로 돌아와 앉고 男女 두사람이 異常한 服裝으로 나
와 舞踊을 한다. 마치 쓰련의 꼬빠춤 같기도 하고 터키
춤 아니 몽고춤이다. 確實히 몽고 style 의 춤을 춘다.
拍手, 拍手 몇차례가 지나고 司會者가 幕間을 한다.

어느나라에서도 그런 幕間이 있다. 卽 손님들을 紹介하면서 歡迎을 뜻하는 拍手를 보내는 順序이다.

“伊太利에서 온 두분 손님 저기 제합니다”하며 손짓으로 가르키면서 滿場의 손님들이 와-하면서 拍手를 보내고 樂隊가 伊太利 노래를 演奏하고 多幸히 司會者가 알고 있으면 伊太利語로 노래를 부른다. 勿論 司會者는 몇 나라의 노래를 練習해 두고 있다.

突然히 司會가 困難한 表情으로 쪽지를 보면서 우리쪽을 손짓하면서 “地球上에서 가장 먼 나라 韓國에서는 세분의 建築家가 저쪽에 제합니다. 우리 이 멀리서 오신 손님들에게 拍手를 보냅니다場內가 와-하고 拍手가 터져 나왔다. 나는 일어서서 두손을 마주 쥐고 흔들며 보였다. 또 拍手가 나왔다. 약삭 빠른 maki가 쪽지를 적어서 어느사이에 司會者에게 傳했다는 것이다. “不幸이도 나는 韓國노래를 모르고 우리 樂隊는 韓國音樂을 모릅니다. 未安합니다. 司會者가 謝過를 한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무어라고 떠든다. maki가 韓國노래를 부르라고 한다는 것이다. 나는 黃,張兄에게 나가서 셋이 合唱으로 아리랑을 부르자고 했다. 안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S嬢이 spain 語로 “韓國노래는 韓國音樂 없이는 못 부른다고 소리쳤다”當身은 누구냐?”“나는 이분들의 親舊인 peru 이이다”와-拍手 웃음소리……우린 즐거웠다. 하루의 疲勞도 잊었다. 신이 났다 그 女들도 즐거워 했고 어깨 동무 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勿論 通禁이 있을리 없지만 밤3時이다.

그 女들은 우릴 호텔 까지 데려다 주고 來日아침 5時 30分 空港에서 만나자고 約束하고 헤어졌다.

來日은 cuzuco 에 갔다가 모레 machupichi 를 보고 다음날은 Lima 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Lima에 와서는 5人乘 專賞機로 nazuca 에 가서 不可思議의 巨大한 그림을 보고 저녁에 buenosaiies 로 떠날 計劃이다.

11월 4 일 快晴

아침 5時30分 lima 空港의 5名의 一行이 나갔다.(成兄은 高血壓으로 cuzuco 行을 拋棄하고 3日間 Lima 에 기다리기로 했다). 이윽고 S, M두 아가씨가 登山服 차림으로 왔다. 勿論우리들도 4,860M高地로 가는 것임에 가벼운 차림으로 準備하고 나섰다. 飛行機가 離陸해서 몇分 안되어서 andes 山脈위를 날고 있고 또 몇分後부터는 白雪이 쌓인 山岳上空을 날고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거의 4,000m以上の 高地들이다眼下엔 白雪과 凍結한 大小의 湖水가 가끔 보이고 人家나 村落은 거의 없는 無人之境이다. 1時間 程度를 날고 부터는 白雪이 적어지고 樹木도 보이고 가끔 人家가 드문드문 한 곳도 있고 若干의 傾斜地農土같은 것도 보인다.

飛行機는 어떤 山頂에 달락달락하게 低空으로 날고

있어 地上이 아주 가깝게 보인다. 가끔山비탈에 “라마”나 “아르카카”떼가 풀을 뜯어 먹는 것도 보인다. 確實히 이런 光景은 이제까지 못보던 光景이다.

Lima 을 出發해서 約2時間 좀 지날 무렵 山頂의 大盆地같은곳에 적은 簡易 飛行機場같은 곳에 着陸했다.

여기가 4,000m가 若干넘는 世界의 最高地의 都市인 cuzuco 이다. 人口가 約30만이 넘는 大學도 있는 古色이 蒼然한 잉카 帝國의 옛 모습을 想像할 수 있는 唯一의 都市이다.

왜, 그들은 이렇게 交通도 不便하고 農土도 적은 곳에 都市를 建設했을까? 飛行場에 내린 손님들의 거의가 그 有名한 machu - pichu 를 求景하러온 것이다.

予約한 호텔에서 案内人과 車가 와 있다. 市内로 들어가는 途中의 담벼락에 소련國旗며 過激한 文句의 檄文이 落書처럼 써 있고 黑色과 赤色の 線이 마구 그어져 있다.

南美各國에서는 이 黑赤의 線이 그어져 있으면 으레히 데모나 革命的 示威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me xico 에서도 colombia 에서도 後에 brasil 에서도 이런 線이 그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特히 各國의 大學構內엔 거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호텔에 到着하니 (호텔이라고해야 시골 簡易旅館 같은 것)案内者가 高地帶氣壓에 適應하기 위해 全員 約4時間 程度 조용히 누어 잠자고 點心後에 市内를 案内하겠다고 한다. 이런일은 不問律로 되어 있어 어떠한 觀光客도 다 지키고 있다.

S嬢과 M嬢은 學生時節에 見學을 했고 또 本土人들이라 氣壓에 別로 苦痛을 느끼지 않는 모양이나 우리一行은 生理的인 變化를 느꼈다. 韓會長은 完全히 쓰러지다, 시피 頭痛과 惡寒과 呼吸困難이 일어나서 來日 machu - pichu 에 갈수 있을까 걱정될 程度로 衰弱해졌다. 나도 頭痛이 나고 어질어질했다. 모두가 그러하다고 하면서 鎮靜하기 위해 자리에 누었다. 눈을 떴을때 午後2時였다. 食慾없는 點心을 하고 市内 곳곳을 돌았다.

spain 人들이 지은 聖堂이며 博物館, 毛布店, 襪골목의 石築(잉카 文明은 一名 石築文化라고도 한다)이며 公會堂에서 展示하고 있는 建築展도 보았다. 作品의 表現이 아주 幼稚하다. 우리의 工高展보다도 未裕하다. 展示場 受付에 앉아 있던 女學生들이 우리 一行을 보고 珍奇하다는 表情이다. S, M嬢이 우리들의 身分을 말하니까 비로소 微笑지며 poster 를 나누어 준다. 特別待偶인 것이다.

나는 socorro嬢에게 이展示會는 peru 에서 어느 水準의 展示會냐고 물었더니 부끄러워 하면서 Lima 大學과 cuzuco 大學生들의 것이고 가끔 peru 의 現役建築家들것도 있다고 한다. “아-이것도 作品이냐? 到底히

알수가 없다” “peru의 建築水準은 아주 낮아요” 하면서 辯明을 한다.

며칠에 한번씩 장(市場)이 열린다는 聖堂 앞 大廣場의 한 쪽에서는 그들의 말로 meeting이라고 부르는 데모가 始作되고 고래 고래 高喊을 지르고 圖을 그려서 뛰기도 하고 야단들이다.

저게 무슨 데모냐” “庶民層의 生活保障하라” “現政府는 틀러 먹었다” “社會主義萬才” 등의 口號라고 한다. 異常한 일이다. 南美各國의 大部分의 데모가 다 그러하듯이 왜 共產主義나 社會主義를 讚揚할까? 그들은 第一次, 第二次 世界大戰에 介入치 않은 나라 늘이다. 貧富의 差도 많지만 먹을 것이 있어 갑싸게 먹을수가 있어 배가 고프지는 않는데 / 果然 그들이 共產主義나 社會主義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떠드는 것인지? 하나의 流行인지? 알 수가 없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紀行文 3회分에서 言及하기로 하자.

毛皮店에 가보니 “라마”나 “아르파카”의 毛皮로된 各種의 商品인데 아주 靛성한 것들이다. 午後부터 靄氣가 사나와지고 눈과진눈깨비가 뿌리고 바람이 아주 強하게 불기 始作했다.

高地帶인지 日氣의 變덕이 甚하다. 이 模樣으로 가던 來日 machu - Pichu 行이 어려워진다고 S嬢이 걱정을 한다. 우린 萬一을 對備해서 帽子며 “판초”(만또 같이 뒤집어 쓰는 담요)을 샀다. 紀念品 等等을 若干 샀다. 저녁에는 食堂에 가서 뜨겁고 매운 국을 달라고 하니 영通하질 않아 s. m嬢이 說明해서 겨우 매운 국을 먹을수가 있었다.

국에다 그매운 mexico 고추를 듬북 치는 것을 보고 S嬢이 mr. 崔 왜 東洋人들은 그렇게 매운 飲食을 좋아하느냐? 고 묻는다. 東洋人이라고 나 매운 것을 좋아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崔氏이기 때문에 매운 것을 잘 먹는다. 했더니 왜 崔氏가 그러냐? 나는 말을 해 놓고 보니 窘이 難免해서 농담으로 얼버무렸다.

即 “No grass Under the Seats after Mr Choi Stand”란 우리 俗談이 있다”(崔氏 앉은 자리엔 풀도 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女는 놀라면서 “아이 崔氏 무서워”한다 - 一同은 爆笑를 터뜨렸다. 이렇듯 우리는 多情했고 즐겁기만 했다.

食事後 案内者와 같이 一行은 劇場에 가서 cuzuco - 大學 演劇部 學生들의 “잉카 古典音樂과 舞踊을 보았는데 너무도 單調하고 形便 없었다. 마치 小學校 學芸會 求景하는 느낌이다.

다른 많은 觀光客들도 同感인지 우~하면서 아쉬웠다. 호텔로 돌아 오는데 S嬢이 혼자 빗속을 달리면서 뒷골목으로 간다. 나는 걱정이 되어서 maki에게 “socorro가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藥局에 간다고 했다. “어디몸이 아프냐?” “그렇나”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묻자 張兄

이 가로 막으면서 “아이고 답답도 하지 崔會長任 그 눈치도 못 차리시고”아 - 그렇구나 그는 女子이니까 있을법도 하지, 나는 썩 스러웠고 maki는 처담도 안하고 있다가 “아이 Mr.張도” 한다. 호텔에 와서 沐浴을 할려고 하니 더운 물이 안 나온다.

잠자리에 들어서 숨이 가빠서 가끔 일어나서 深呼吸을 해야만 했다.

韓會長은 더욱 苦痛이 甚해져서 劇場에도 안갔고 저녁 食事도 못했다. 나는 來日의 旅行을 中斷하고 여기서 쉬려고 했다.

無理하면 途中에서 큰일난다고 했더니 여기까지 와서

Machu pichu 를 못 본다면 어떻게 하오. 죽는限이 있더라도 가겠소”

이렇듯 우리 一行은 그곳을 보기 위해 決死的인 것이다.

어제 Lima 大使館에서 大使나 職員들도 몹시 걱정을 했고 前年에 外務部 某 官이 와서 cuzuco 까지 갔다가 쓰러져서 Lima 에서 飛行機로 酸素를 供給받아 겨우 machu - Pichu 를 못 본채 돌아 왔다고 無理하지 말고 操心을 하라고 했다. 나는 Lima 에서 떠날때 成兄의 가족 코-트를 빌려 입고 왔으나 韓會長에게 주고나니 아주 추워서 견딜수가 없다. 아침 7時에 停車場에 高校先生이라는 案内者 父子와 合流해서 汽車를 탔다. 지그자그로 汽車는 허덕이면서 高地로 高地로 올라간다. (옛날 우리 竹嶺고개 水仁線 같은 적은 옛날 汽車이다. 다섯 여섯번 지그자그로 올라 가더니 高原의 平地이고 꼬불꼬불 오르고 내려가고 3時間을 달렸다. 비는 오고 안개는 자욱하고 間隔히 山봉우리며 溪谷이 보이고 가끔 城趾 같은 것 溪流(흙탕물이다 이것이 야마존江의 上流이다). 도 보인다.

農村落, 옥수수밭, 山谷의 小都邑等 茂州九天洞이나 內雪嶽의 溪谷은 相對도 안될 만큼인 峻險한 곳을 지나 終着驛에 到着했을때 안개가 끼어 옆이 잘 보이지 않을 程度였으나 비는 끝났다 비닐雨衣을 cuzuco 驛前에서 사온 것도 쓸모가 없다. 汽車에서 내린 數 많은 손님들은 小型 巴士에 分乘했다. 驛前에는 인디오들의 商人들이 紀念品을 사라고 아우성이다.

巴士는 안개 낀 山봉우리로 잘지字로 10余回나 돌면서 約40分程度 올라 갔다. 若干 넓은 땅이 있고 食堂도 있다. 그 食堂에서 點心을 먹고 있노라니 인디오 5人組 樂人들이 노래(合唱)와 인디오 樂器演奏를 한다. 그 멜로디는 길게 매는 마디가 없고 짧은 連續音으로 되어 있고 主樂器인 피리는 꼭 우리나라 풀피리 소리와도 같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衰調된 曲일까? 나는 눈물이 날 程度로 애처로운 音律이었다. 나의 表情을 보고 S嬢이 “인디오의 恨과 슬픔이 깃든 인디오 固有의 音樂”이라고 說明해준다.

音樂이 끝나고 한사람이 帽子를 꺼꾸로 들고 손님 사이로 다니면서 돈을 求는한다. 나는 시슴치 않고 많은 돈을 帽子에 주었더니 그는 몇번이고 절을 하며 Thank you을 連發했다.

S嬢도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나는 눈치였다.

食堂에서 5분도 못가서 좁은 山길을 돌아가니까 아!! 이것이 두고 두고 보려고 버르던 machu-pichu이다.

美國考古學者가 이곳을 發見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政府는 peru cuzuco에 飛行場을 만들고 汽車를 놓았고 觀光地로 開發했다는 것이다.

4,860m의 標高의 이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規模의 大建築의 遺蹟이 있으니,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성냥갑 같은 汽車驛 千尋의 溪谷에 흐르는 아마존의 最上流, 저 물을 어떻게 여기까지 길어 올렸을까? 石築이며 祭壇이며 法廷이며 政庁이며 監獄이며 望樓, 広場等等이 이 높은 山頂에 있으니 말이다. 階段式으로된 넓은 곳은 農作을 한 곳이라고 案内人이 말한다. 銃구멍이 있는 城壁, 案内人이 이곳 壁이 파인 곳에 머리를 놓으라고 해서 모두들 그곳에 머리를 들이 밀었더니 案内者도 그곳에 머리를 넣고 “여기 韓國의 5名의 建築家가 이곳에 왔읍니다. 그들의 이 旅行이 無事하기를 비읍니다”라고 低音으로 엄숙하게 말하니 우리들 各己의 귀에 아주 明確하게 잘 傳達된다.

音響學이 그 옛날에도 이렇게 發達했다고 說明한다.

이곳은 會議場이라고 했다.

맞은 便의 높은 hwaina Pichu 봉우리 그 저 便으로 無限히 延續된 大小의 봉우리들 그 山頂에 하얀 실오라기같이 보였다. 끊어 졌다 한 줄의 線은 所謂잉카로드이다. 저 마르코포로가 티베트의 天山山脈과 昆侖山脈의 溪谷을 따라 中國으로 온 “실크로드”와 맞먹는 잉카人들의 唯一한 길인 것이다. “실크로드”는 溪谷을 따라 있지만 “잉카로드”는 山頂을 따라 있다는게 特徵이다. 이 좁은 길을 잉카人들은 “라마”나 “아르파카”를 이끌고 긴 旅行을 했을 것이다.

이 machu-pichu 遺蹟은 이때까지 發見한 잉카帝國의 가장 큰 遺蹟이지만 아직 發見 못한 이 程度의 或은 더 큰 遺蹟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란다. 小學時節에 世界一週旅行者가 講演을 할때 (日本人 探險家였다) 안테스 山脈의 어느 溪谷에서 數千萬個의 骸骨을 보았다고 했다. 그 骸骨溪谷에 서서 찍은 寫眞을 보여 준 記憶이 난다. 마야 民族은 遺骨하나 發見 못했기에 不可思議로 되어 있지만 잉카 民族은 그들의 遺骨이 안테스 山脈 到處의 溪谷에서 發見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마야” 民族이 안테스 山脈을 타고 南下해서 “잉카” 文明을 建設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石築의 樣式이며 現在있는 인디오들의 容貌나 피부色

音樂, 舞踊이 어찌면 東洋的이라는 데서 볼때 “마야” 民族이 몽고族의 後裔들이라면 “잉카” 民族들도 몽고族의 후예即 우리와 같은 血統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런 저런 생각에서 나는 祭壇石위에 앉아서 눈을 감고 먼 空想을 해 보았다. 몽고族의 一部가 滿州를 거쳐서 韓國으로 一部는 아라스카를 거쳐서 美國의 인디언이고 더 南下해서 mexico에서 “마야” 文化를 이룩했고 더욱 南下해서 peru에 와서 “잉카” 文明을 이룩했다면 아-偉大할진저 몽고 民族이여! 우리의 祖上들이여 우리에게 榮光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오늘 아침 6時에 S嬢의 房을 찾았을때 M嬢만 있고 S嬢은 없어서 어디 갔느냐고 했더니 聖堂에 祈禱하러 갔다고 했다. 아마도 S嬢은 카톨릭 信徒이니 우리의 旅行을 無事하게 해 달라고 기도드릴 것이라고 보면 神은 그 女의 뜻을 이루어 주었음인가, 이곳에 到着했을때 햇빛이 낮고 안개기 걸히고 따듯했고 一行이 다시 下山해서 汽車를 타니 다시 미가 내려기 始作했다. 우리 汽車속에서 그 女의 기도가 효험이 있었다고 했더니 그 女는 부끄러운듯이 “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해서 모두가 웃어댔다.

下山할때 小型버스가 올라간 길을 다시 갈지자로 내려 오는데 인디오 少年(13才가량)이 손을 흔들며 good-by를 의했다.

그다음 꾸부러 지는 곳에 오니 그 少年은 直線으로 密林 사이를 내려 와서 또 good-by 를 소리친다.

이렇게 꾸부러지는 곳마다 그가 백스보다 먼저 와 있었다.

結局 汽車 停車場에도 먼저와서 擧手敬禮를 하고 손을 내민다.

손님들이 畷異해서 몇분씩 던져 주었다. 3時間의 汽車속에서 알자리에 앉은 spain 中年親旧가 S嬢과 多情하게 이야기들 러나 spain 語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昔는 英語도 제법하는 被服商人이라고 했다. 나는 氣分이 좋지 않아 그 親旧에게 是非를 걸기 始作했다. 나의 짧은 英語로 손짓 발짓 하면서 도전했다 曰, 너는 machu-pichu에 왜 왔는가 女性觀光客들의 스카트를 보러 왔느냐 장사나 하면 되지? “너는 建築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 祖上들이 이 나라를 侵犯해서 金은 모두 掠奪해 갔는데 遺蹟地에 金이나 남아 있는 줄 알고 왔느냐” “너희 祖上들은 強盜들이야” “너희 祖上인 “피사로”라는 海賊이 말이다. 大砲 두門만을 가지고 peru를 占領했는데 그렇게 잉카帝國이 無力했는줄 아느냐 千萬의 말씀이다” “잉카帝王은 宗教的 啓示를 받고 神이 보내는 怪異한 사람에게 잉카帝國은 順從하라 했단 말이야, 때마침 피사르가 200名을 이끌고 오직 大砲 두門만 가지고 왔기에 神이 보낸 人인줄 알고 갖어다 바친 것이지 힘이 없어 占領당한 것이 아니야” “海賊이 運이 좋았지” 式으로 攻擊을 했더니 그는 놀라고 唐惶해서 “왜 나를 잡싸기 攻擊하느냐?”

한다 “侵略者인 주제에 무슨 소리냐”우리 一行들도 내가 왜 그를 攻撃하는지를 눈치채고 킁킁 웃는다. 나는 우리 말로 “이子息 어제부터 S嬢하고 치근거린단 말야”했더니 一行이 와- 하고 웃으면서 “알만도 합니다. 알만도 해요. 네, 네 오죽하시겠습니까”아주 손을 봐서 없애 버리지 지”이건 놀리는 건지 선동하는건지 알수가 없다.

S嬢도 핏대를 올리고 있는 나를 쳐다보면서 感을 잡은 모양이고 M嬢과 눈짓을 한다.

M嬢도 킁킁 웃는다. “찌꺼다 왜웃어,,

(chikita 는 女子 꼬마라는 peru 語다. 우리 M嬢을 chikita 라 불렀다)“웃으우니깐 웃지요”그래 좋다 좋아 웃어라 사람의 속도 모르고”汽車가 cuzuco 에 到着했을때 저녁 8 時였다. 驛前에는 오늘도 데모가 있다. 우리는 古代 잉카인이 된 氛分으로 돌아왔는데 이 데모소리에現世에 왔구나 하는 實感이났다.

聖堂広場 옆 大食堂에서 cuzuco 의 마지막 晚餐을뜨거운 국을 마시면서 술도 마셨다. S. M嬢도 若干의 술을 마셨다. 그들도 案内가 無事했음을 満足했고 來日 Lima 에서 우리와 離別이 아쉬운지 黙黙히 食事を 했다.

11월 6 일

아침 8 時 cuzuco 出発 Lima 에 돌아왔다.

離別의 점심을 成兄도 같이하고 5 時發 argentina 行을 탈 時間이 남아 있어 S嬢이 海邊을 드라이브 해주었다.

S嬢은 우리 全員에게 銀製의 작은 목걸이를 하나씩 주고 나에게 “婦人에게 드리세요”한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歸國하면 좋은 贈物을 보낼게. 飛行場에서의 離別은 슬펐다. 그 女들은 數日間 그래도 建築家들이라고 우리 一行을 極真히 도와 주었다. 一行들도 真心으로 고마워했고 나에게 50 \$씩 거두어주며 “崔會長이 알아서 贈物을 보내주라고 까지했다” 勿論歸國하자마자 300\$ 分의 贈物을 그 女들에게 郵送했다.

S嬢은 空港員에게 말해서 飛行場까지 들어 왔다. 一行은 눈치 채리고 먼저 굳은 握手들을 하고 “트랩”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 女에게 “來年 九月에 꼭 韓國으로 오라 maki도 데리고 내가 恩惠를 갚겠다. “確約은 못하지만 努力하겠다”“아니 꼭 와야하오 一行의 所願이요”“네 가도록 하지요”목메인 소리다. 나도 사나이 답지 못하게 눈시울이 뜨거웠다.

나는 그 女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휙 돌아 서서 달렸다. 뒤도 돌아 보지 않고 달렸다. 아디오스 peru / 아디오스 socorro / maki 讀者들이여 웃지마시요 旅行이란 이런 아기자기한 맛도 있는것입니다.

부디 旅行들을 하십시오.

—계 속—

알 림

1979년도 회원 작품 기고는 다음 요령에 의해 원고를 작성 투고 바랍니다.

작성요령

1. 도면작성은 트레싱 paper나, 켄트지에 inking할 것.
2. 축척표기는 도표로하여 축소,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것.
(例 0 1 2 3)
3. 1층 평면도와 배치도를 겸하는 것은 가급적 피할 것.

1. 도면작성 가) 평면도 ($\frac{1}{100}$, $\frac{1}{200}$)

나) 단면도 ($\frac{1}{100}$)

다) 배치도 ($\frac{1}{200}$, $\frac{1}{300}$, $\frac{1}{600}$)

라) 주요부분 상세도 ($\frac{1}{30}$, $\frac{1}{60}$) (必要時)

2. 설계개요서 : 일반적 기술보다는 계획과정과 계획개념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하기 바람. 200자 원고지 × 3 ~ 5매

3. 사진 : 가) 전경사진

나) 내장사진

다) 부분사진 (Detail Design 에 주안점을 줄것.)

라) 설계자사진 (명함판 사이즈로 프로필이나 가능한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음).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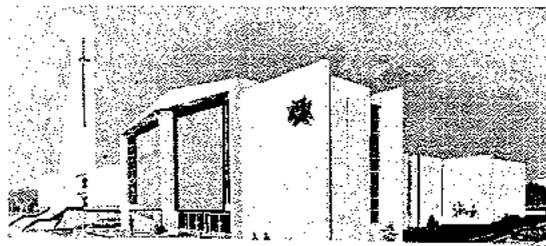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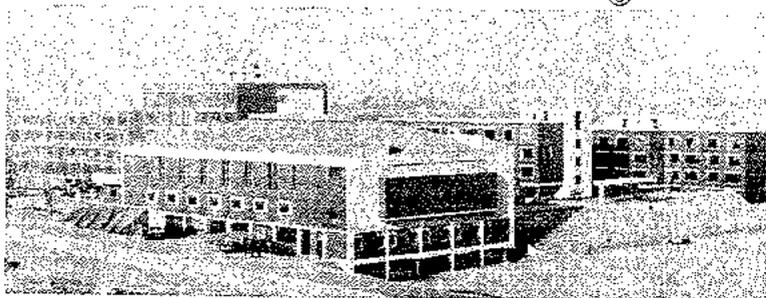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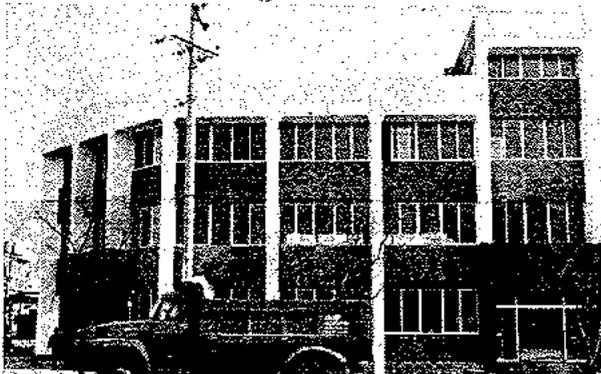
⑥



⑦



⑧



⑨

- ① 태양건설기술공사
- ② 한국건축연구소
- ③ 흥진건축연구소
- ④ 범양건축연구소
- 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⑥ 건축연구소원건사
- ⑦ 차건축연구소
- ⑧ 삼미건축연구소
- ⑨ 동신종합설계공사

부산 남천동H씨댁

설 계 : 柳 光 弘 한국건축연구소

위 치 : 부산 남구 남천동

건물면적 : 지 층 29. ㎡

1 층 96. ㎡

중간층 78. ㎡

2 층 68. ㎡

연 면 적 : 272. ㎡



설계 개요

대지 선정에서부터 의뢰받았었고 건물이 남양이나 전망이 좋은 경사지 동향이냐로 무척 고심했다. 결국 남향으로 하고 바다를 볼 수 있는 동향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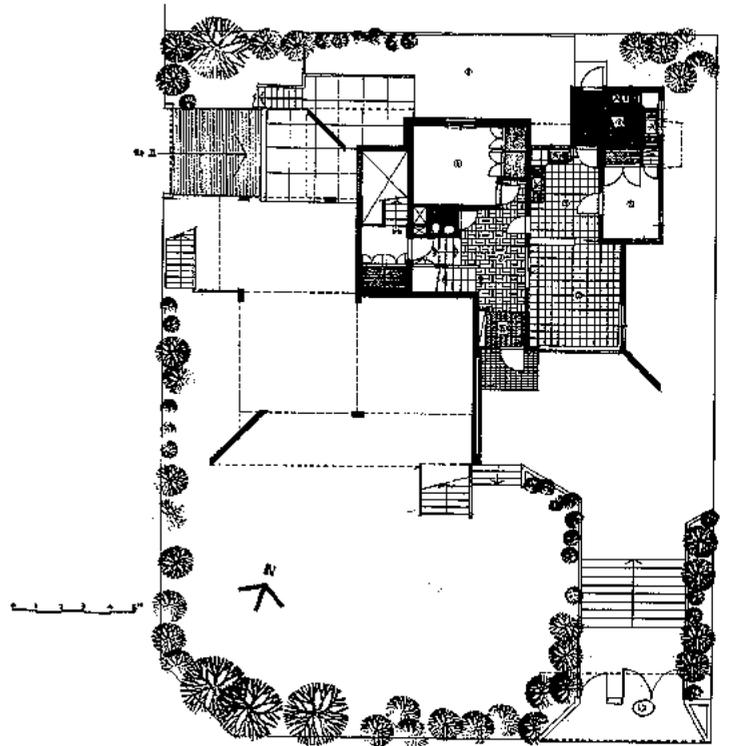
제단을住宅 내부 한가운데 두어 Skip Floor System으로 하고 거형을 이용하여 1층과 2층 사이에 중간층을 두고 주인사용 부분인 중간층에서 2층 아동 사용 부분과 1층 공용 사용부분 또 정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住宅 내부나 외부마감을 단순하게 처리하여 가구, 조명, 커튼등이 상식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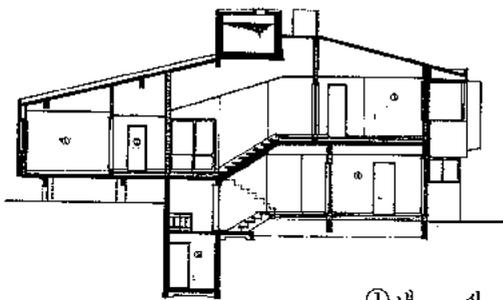


정원에서

- ① 객실
- ② 거실 및 식당
- ③ 양식부엌
- ④ 한식부엌
- ⑤ 가정부방
- ⑥ 현관
- ⑦ 현관 홀
- ⑧ 서비스 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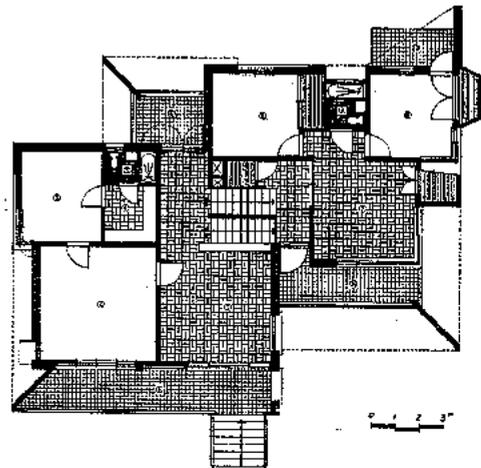


1층평면도



- ① 내 실
- ② 의 상 실
- ③ 아동거실
- ④ 거실및식당
- ⑤ 보일러실

단 면 도



- 중간층 부분
- ① 부부거실
- ② 내실
- ③ 부부침실
- ④ 의상실
- ⑤ 욕실
- ⑥ 발코니
- 2층 부분
- ⑦ 아동거실
- ⑧ 아동실
- ⑨ 베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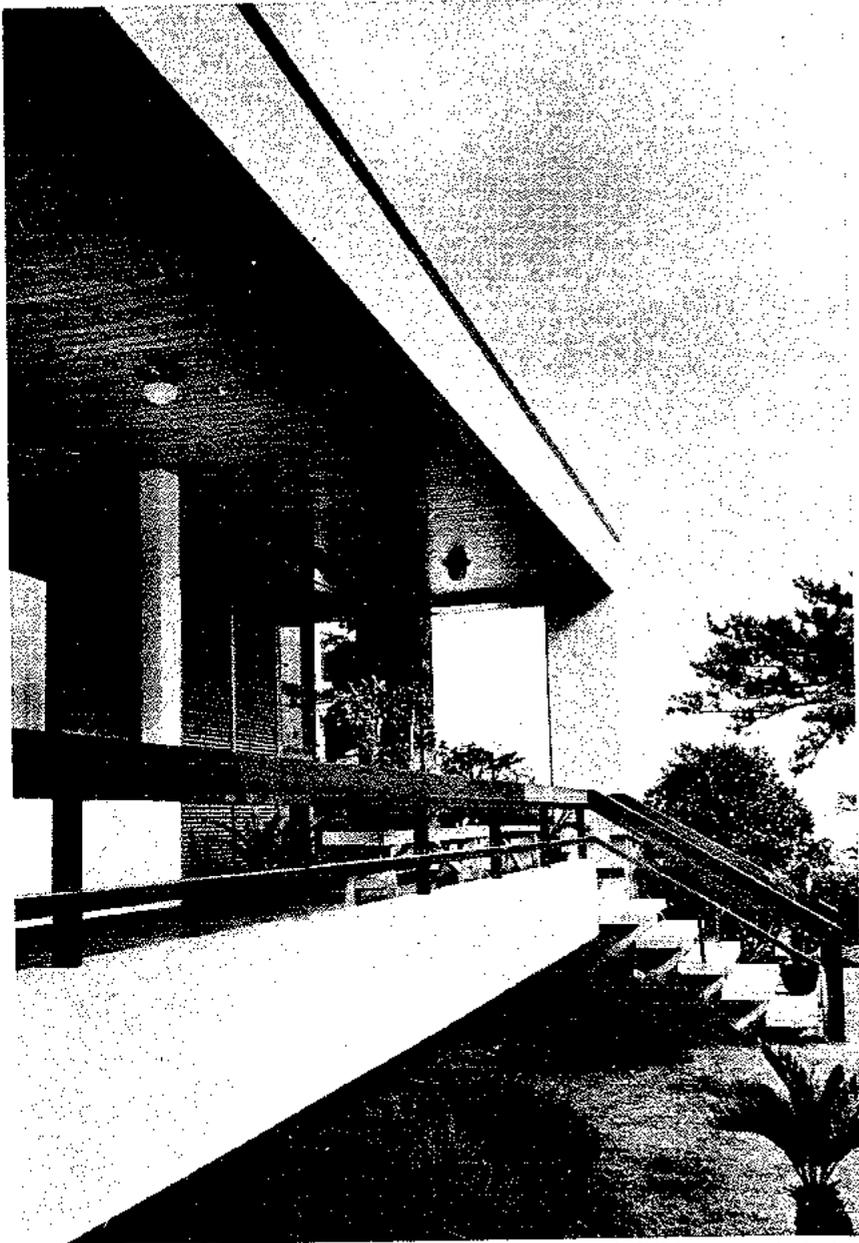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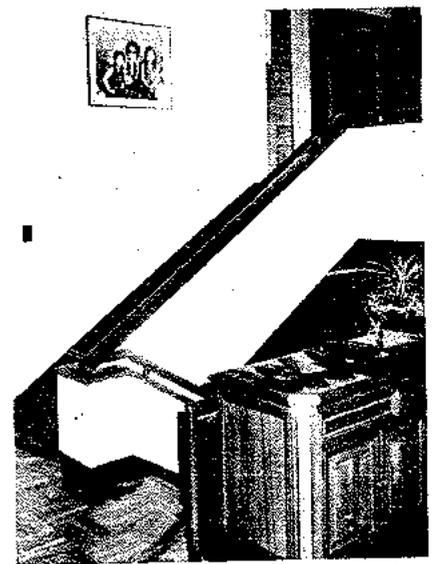
전경



침실 부분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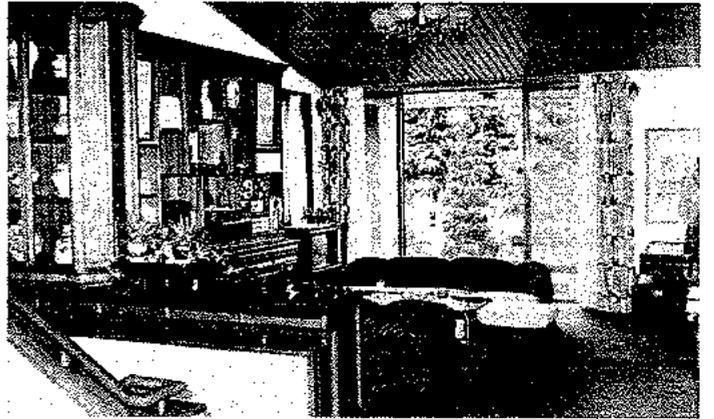
정원서본 거실 앞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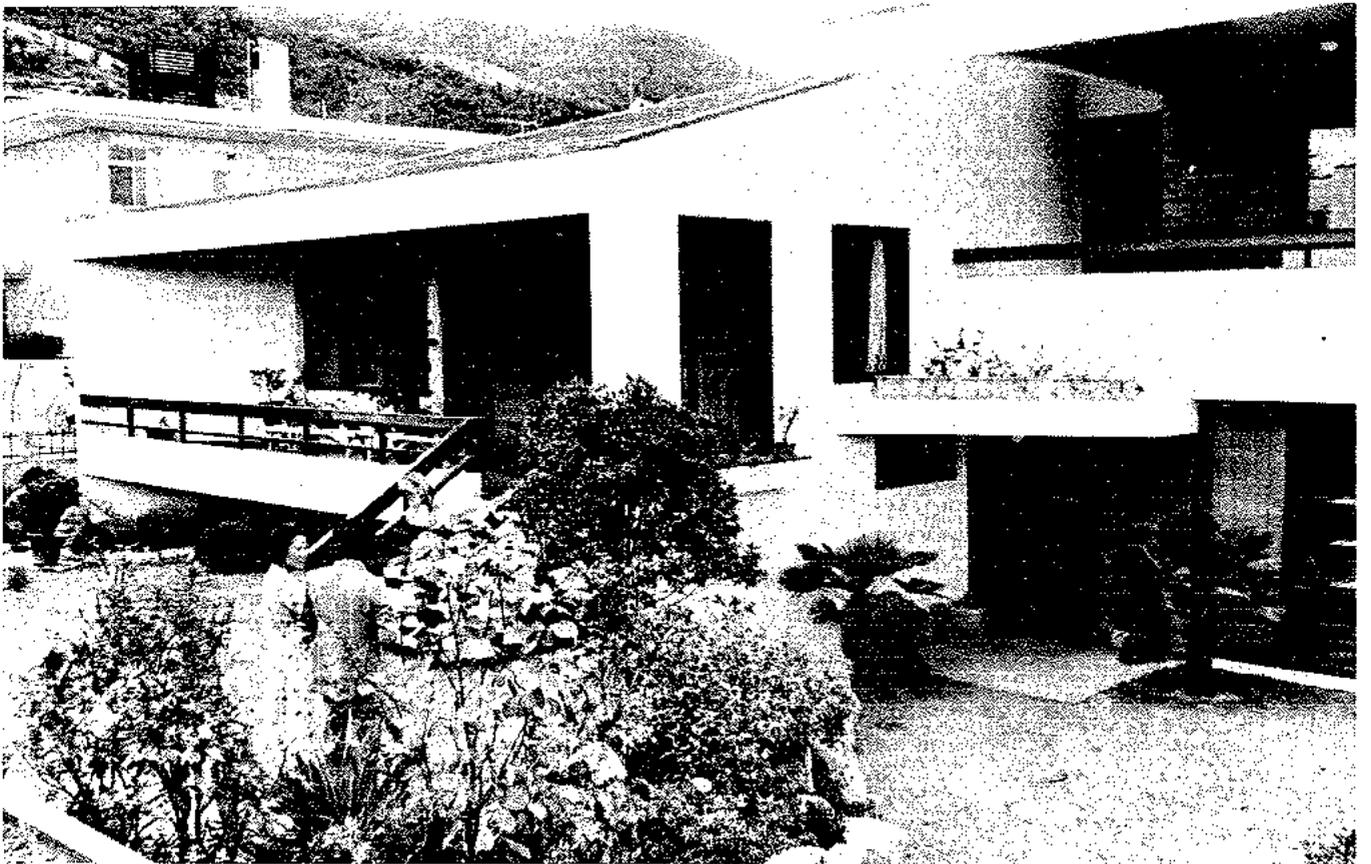
거실에서 본 계단



거실 및 내실 앞 발코니



거실 내부



구의동 H씨택

설 계 : 洪哲洙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건물위치 : 성동구 구의동

건물면적 : 1층 85.83㎡

2층 5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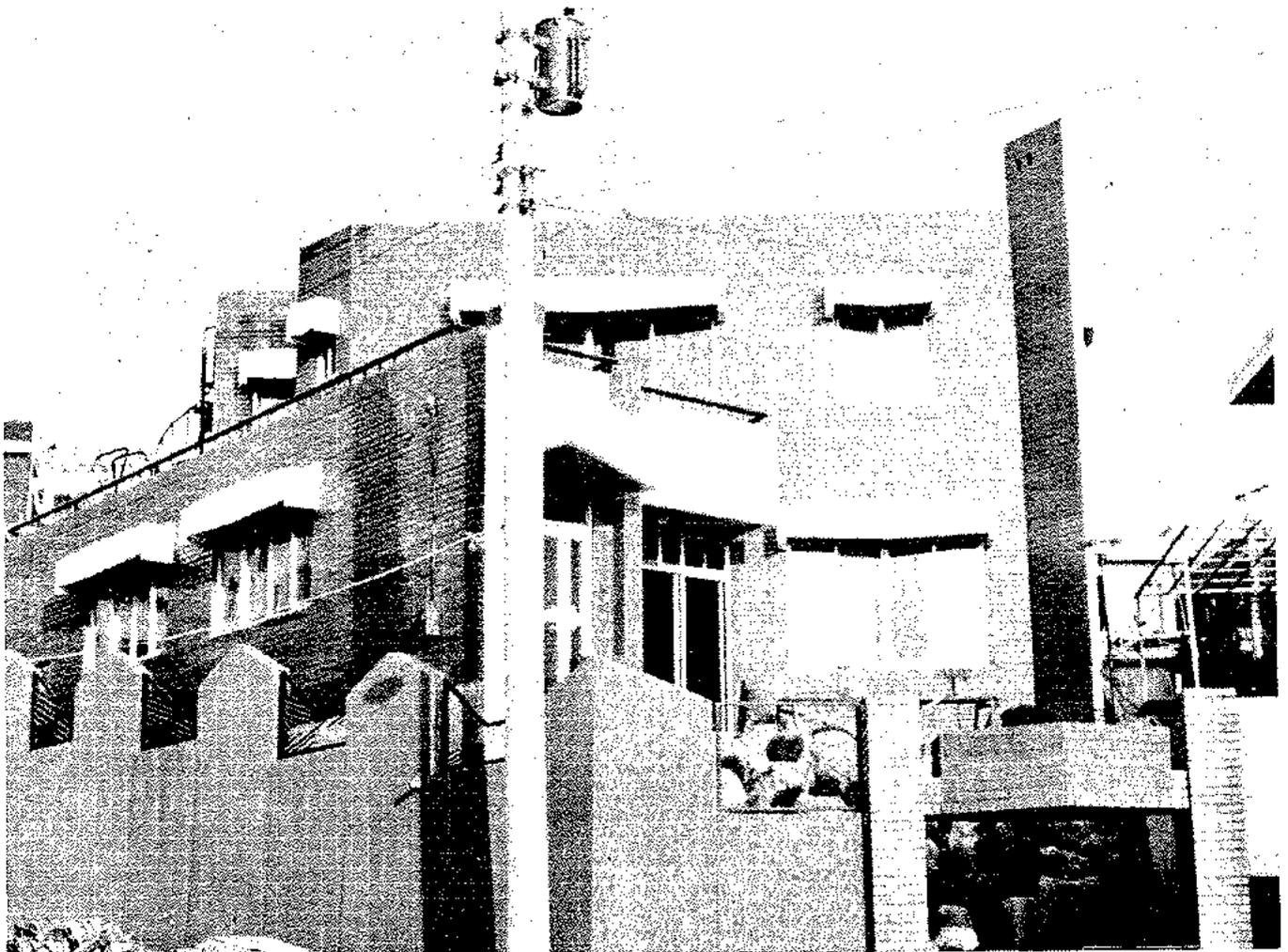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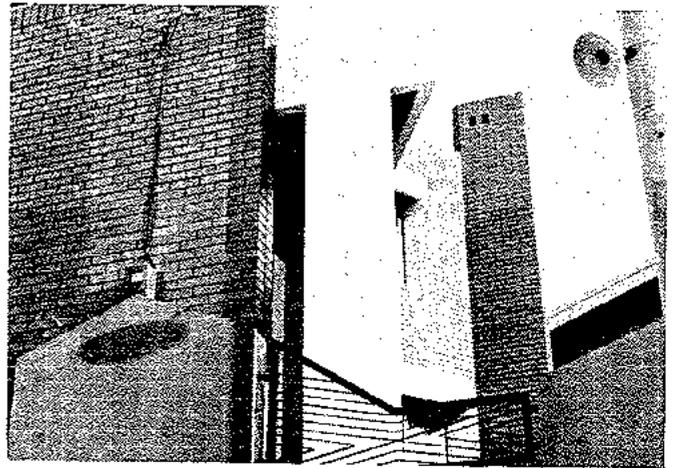
대지 형태가 불리한 삼각형에 가까운 조건이어서 본주택의 외관에 미치는 문제점을 기본계획에서부터 파악 삼각형의 주택으로 보이지 않도록 시각적인 외관 처리에 신경을 썼으며 삼각형의 형태에서 는 평면상의 문제점도 공간상의 허실 면적이 나.

각실의 형태 분활에 있어서 무리한 구성을 피했으며 본 주택의 특색은 1층에서 거실과 식당 그리고 부엌과 가정부방을 개방형으로 계획 공간의 확대 이용계획에 힘을 썼고 주택의 주요 공간을 동남으로 향하여 하계 일조권의 환경문제와 동남향의 서울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조망에의 시야 확보에도 노력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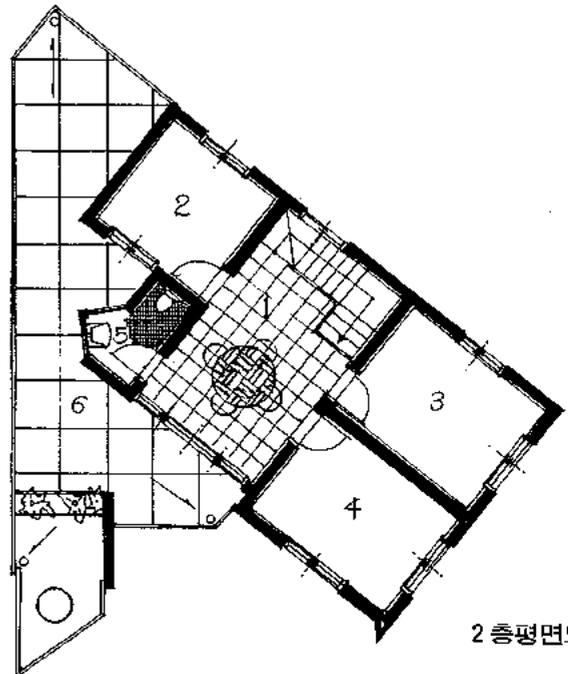
전경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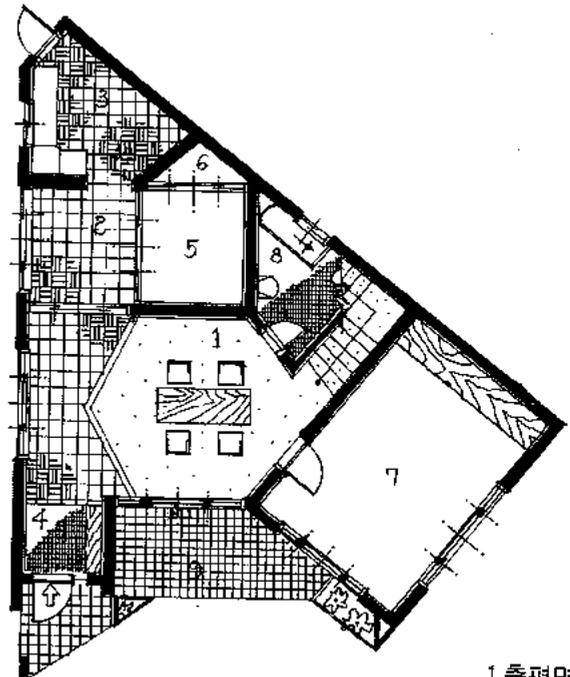
- ① 가족실
- ② 아동실
- ③ 아동실
- ④ 아동실
- ⑤ 화장실
- ⑥ 베란다



2층평면도



- ① 거실
- ② 식당
- ③ 부엌
- ④ 현관
- ⑤ 가정부실
- ⑥ 안침
- ⑦ 안방
- ⑧ 욕실
- ⑨ 테라스



1층평면도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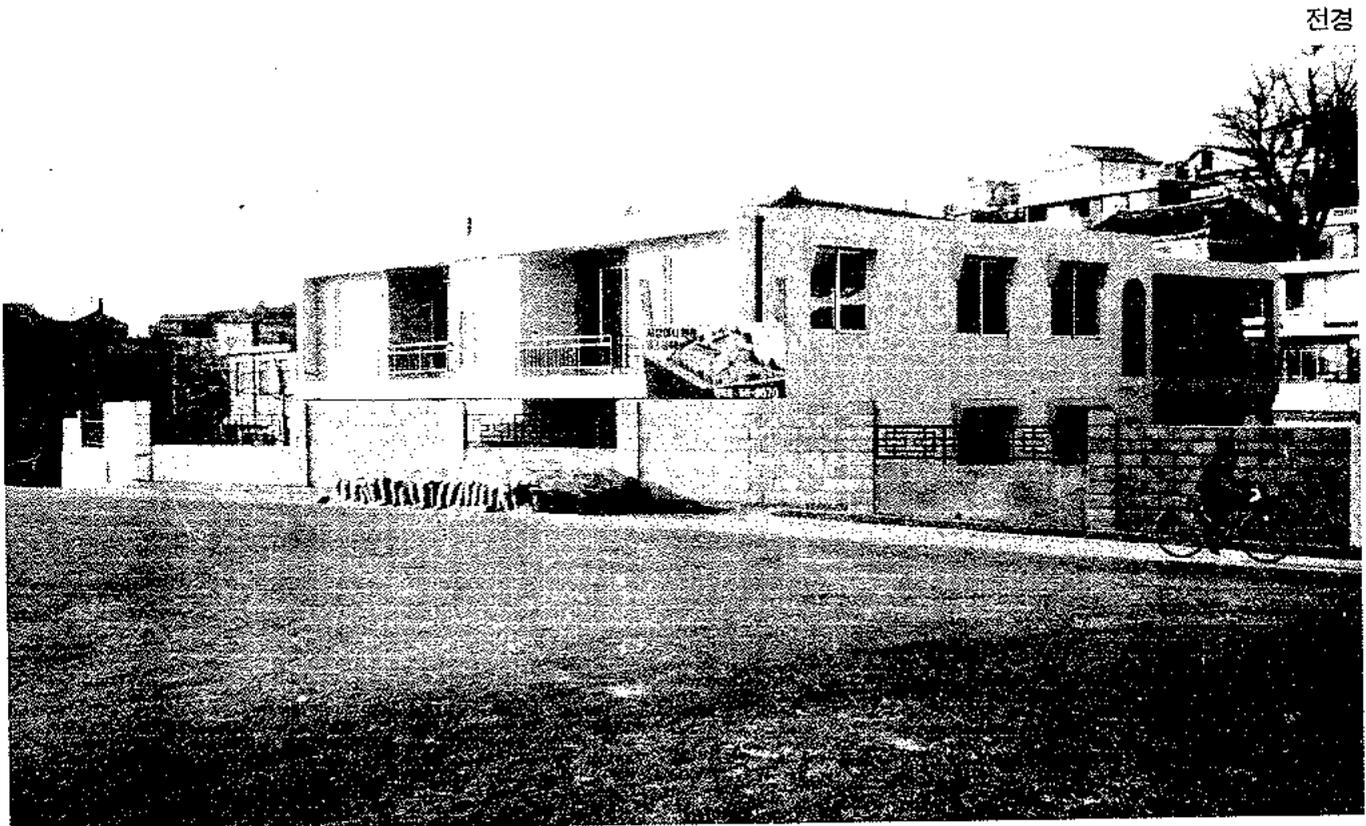
하수동 연립 주택

설 계 : 康 平 參 태양건설기술공사
 건물위치 : 서울시 마포구 하수동 103-1
 대지면적 : 620.7
 건축면적 :

세대별	지	층	1	층	2	층
A형	39.7	80.7	80.7			
B형	39.7	82.7	82.7			
C형	39.7	80.7	80.7			



구 조 : 시멘트 벽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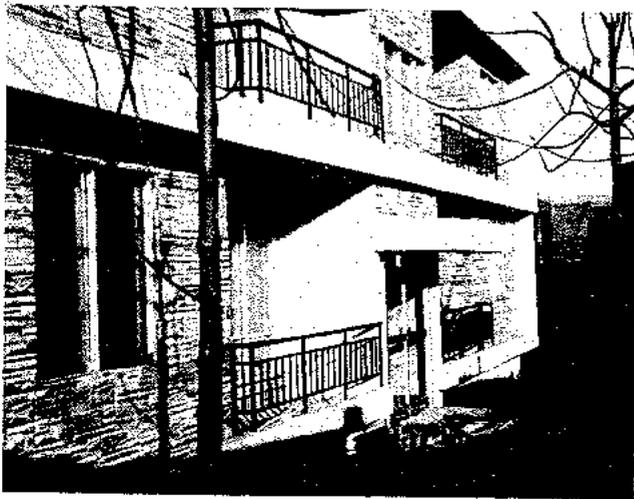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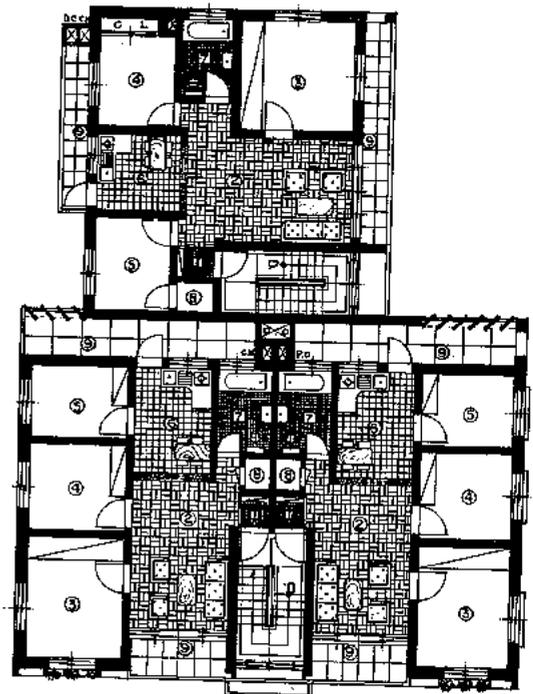
전경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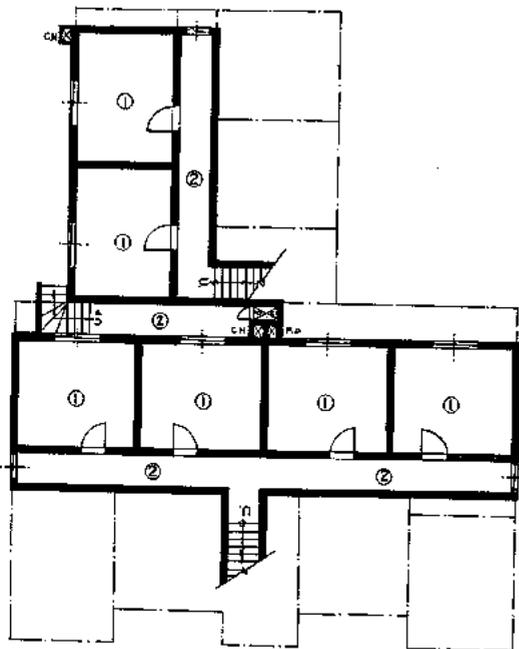
1. 본 대지 형태가 다각형으로 생겨 건물배치 및 평면 계획에 애로사항은 있었으나 전면에 정원을 두고 대지 모퉁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를 구상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토록 하여 작품의 동선을 최대한으로 살려 본 것이다.
2. 세대별 독립된 내부 현관에서 마루방을 중심으로 각실의 동선이 연결되었고 특히 주방 및 식당, 욕실 겸 화장실을 건물 후면에 위치하여 외기에 면하도록 하고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주방전용 발코니와 지하에는 보이라실을 세대별로 구획하여 사용하도록 설치하였다.
3. 외관은 건물이 한동하면서 순수한 기와집 두동으로 보이면서 건물 외부에 살아있는 청선을 주거 생활을 차분하게 감싸주면서 현대 건축 감각을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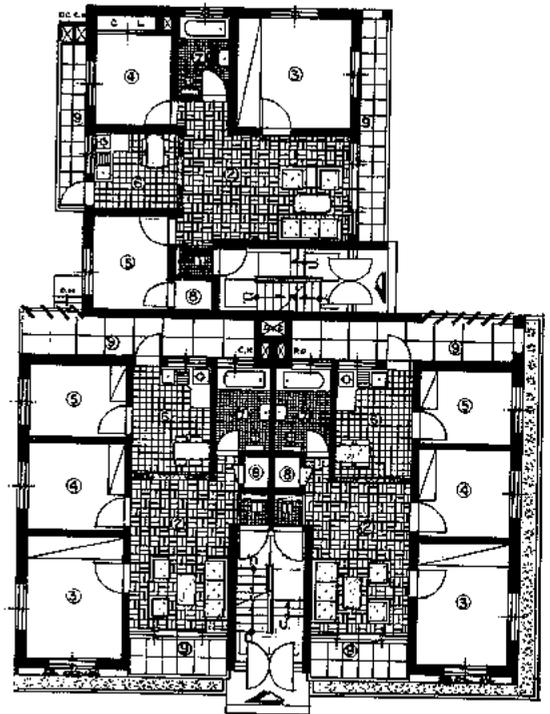
- 1 현 관 4 아동방 7 화장실 및 욕실
- 2 거 실 5 아동방 8 창 고
- 3 안 방 6 식당 및 부엌 9 발코니



- 1 현 관 4 아동방 7 화장실 및 욕실 2 층평면도
- 2 거 실 5 아동방 8 창 고
- 3 안 방 6 식당 및 부엌 9 발코니



- 1 보이 라실 지층평면도
- 2 복 도



1 층평면도

會員作品

반포동 Y 氏댁

설 계 : 鄭 昭 흥진건축연구소

건물위치 : 강남구 반포동

대지면적 : 208㎡

건축면적 : 1층90㎡

2층42㎡

지하30㎡(차고 포함)



전 경



설계개요 :

이 집을 짓기 위해서 Y 氏는 십여년동안 피땀어린 저축생활을 했단다.

한강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반포동 언덕밭이, 높지 않은 축대 위의 조그만 데지, 먼저지은 옆집의 뒷모양이 중압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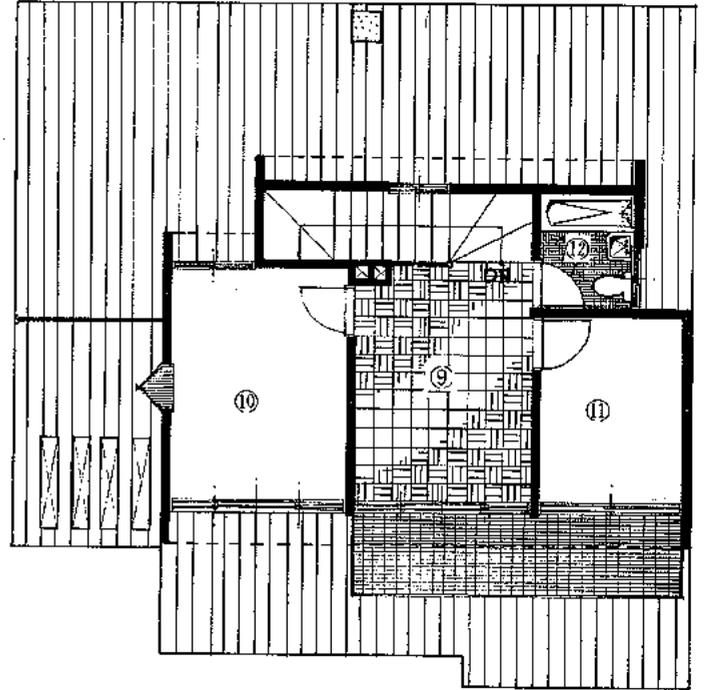
Y 氏 아이들이 훗날 어른이 된뒤에 어릴때의 올망졸망한 그런 추억들을 느낄지, 자신이 없다.

콘크리트로 말끔히 포장된 골목, 차라리 꼬불꼬불한 토담이 마주한 그런 골목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막연히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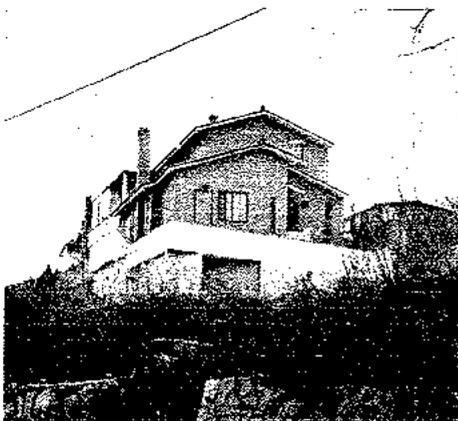
함락눈이나 흙뻘 내렸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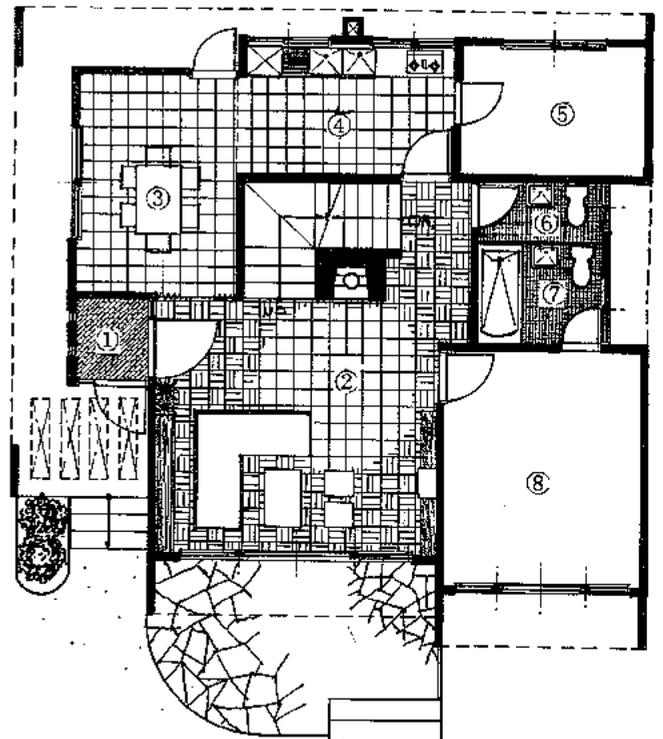
- ⑨ 가족실
- ⑩ 방그
- ⑪ 방2
- ⑫ 욕실



2층평면도



- ① 현관
- ② 거실
- ③ 식당
- ④ 부엌
- ⑤ 부엌방
- ⑥ 화장실
- ⑦ 욕실
- ⑧ 부부침실



1층평면도

會員作品

회문 중 고등학교

설 개 : 朴 亨 三 삼비전속연구소

건물위치 : 서울 강남구

대지면적 : 37837. ⁹m²

건축면적 : 본관 과학관 3195. ⁰⁰m²

고등학교 A동 2606. ⁷⁰m²

고등학교 B동 2096. ⁰⁰m²

중학교 동 4285. ⁰⁰m²

체육관 강당 3815. ⁰⁰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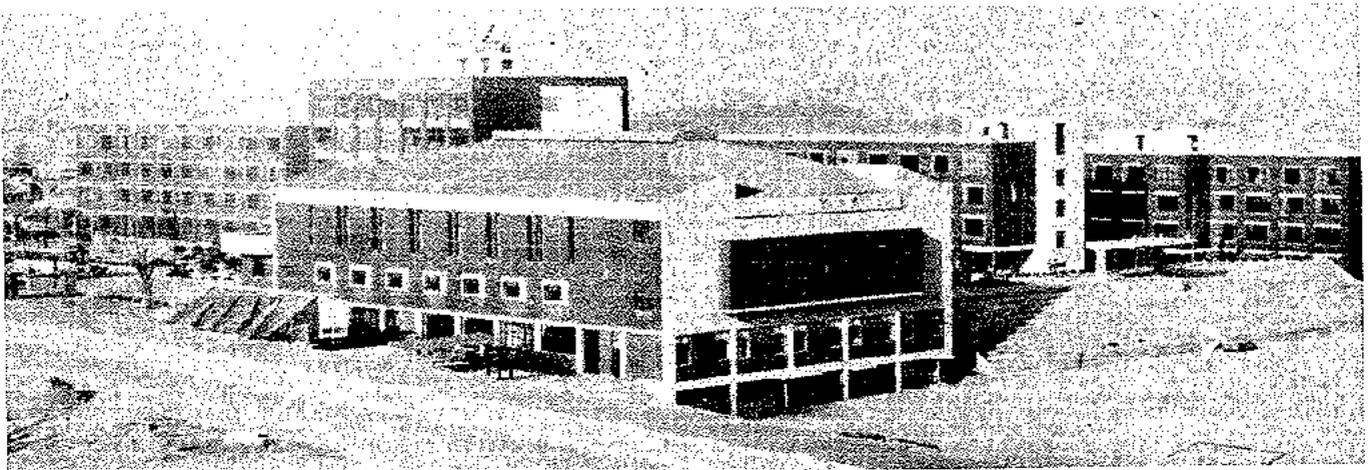
기 타 277. ⁰⁰m²

계 16276. ⁰⁰m²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전 경



설계개요 :

정서적인 교육 환경과 경제적 기능적인 공간처 리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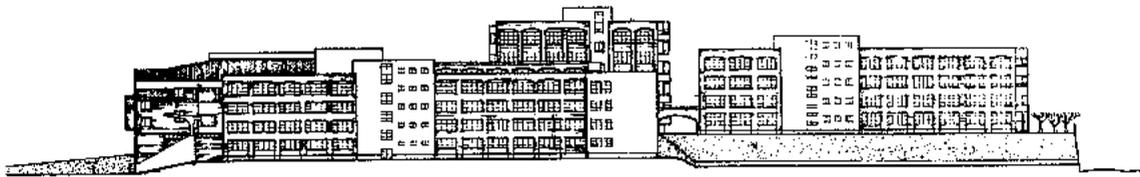
1. 지형을 이용 각 건물의 효율적인 동적공간의 처리
2. 영구적인 오지벽들의 중후한 질감을 살려 건

실한 분위기 조성과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케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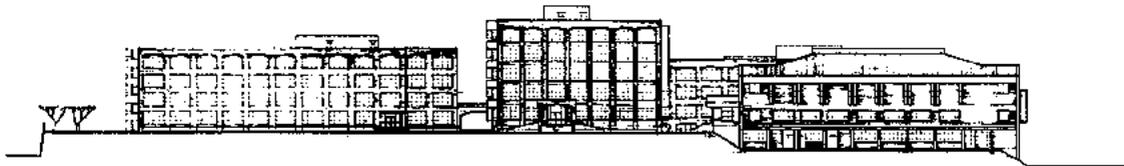
3. 내벽을 붉은벽돌 사용 온도차에 의한 수축균열이 전무케한 처리
4. 외벽및 옥상천정에 암면을 삽입 방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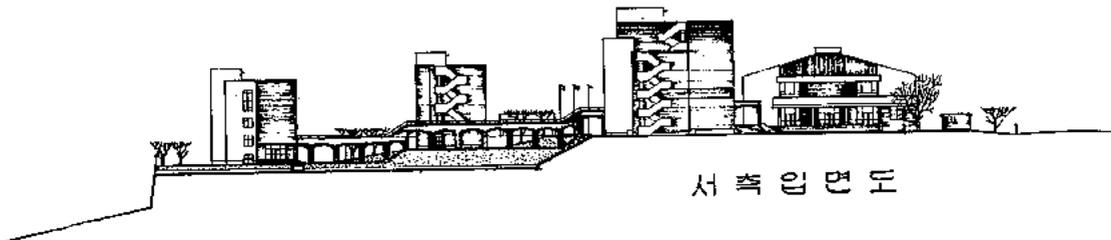
강당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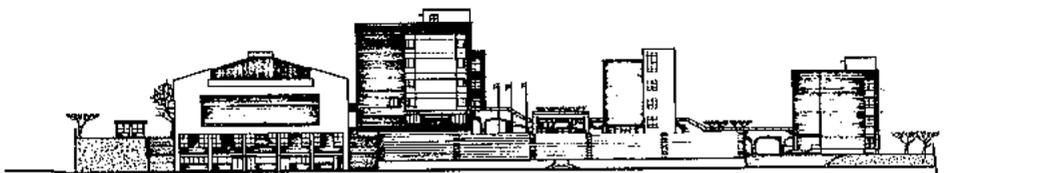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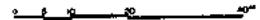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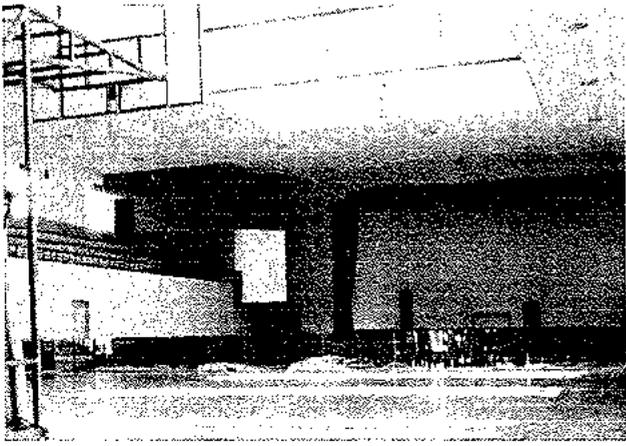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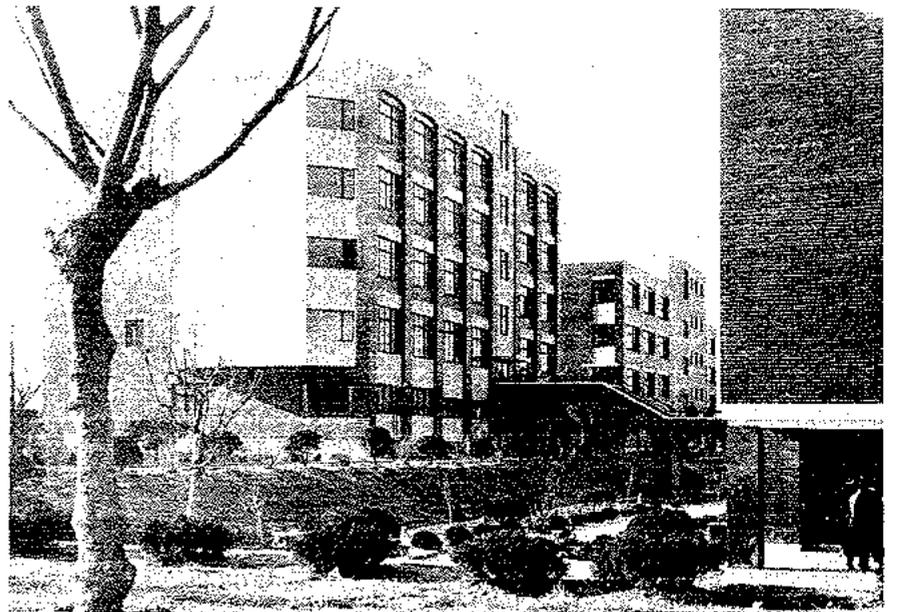
동측입면도



강당체육관내부



본관및 과학관



동측에서본 본관및 교사

會員作品

창동 점포 사무실

설 계 : 박 동 호 통신종합설계공사

건물위치 : 도봉구 창동

건물면적 : 1,473.4 m²

지층 : 358.4 m²

1 층 : 358.4 m²

2 층 : 358.4 m²

3 층 : 358.4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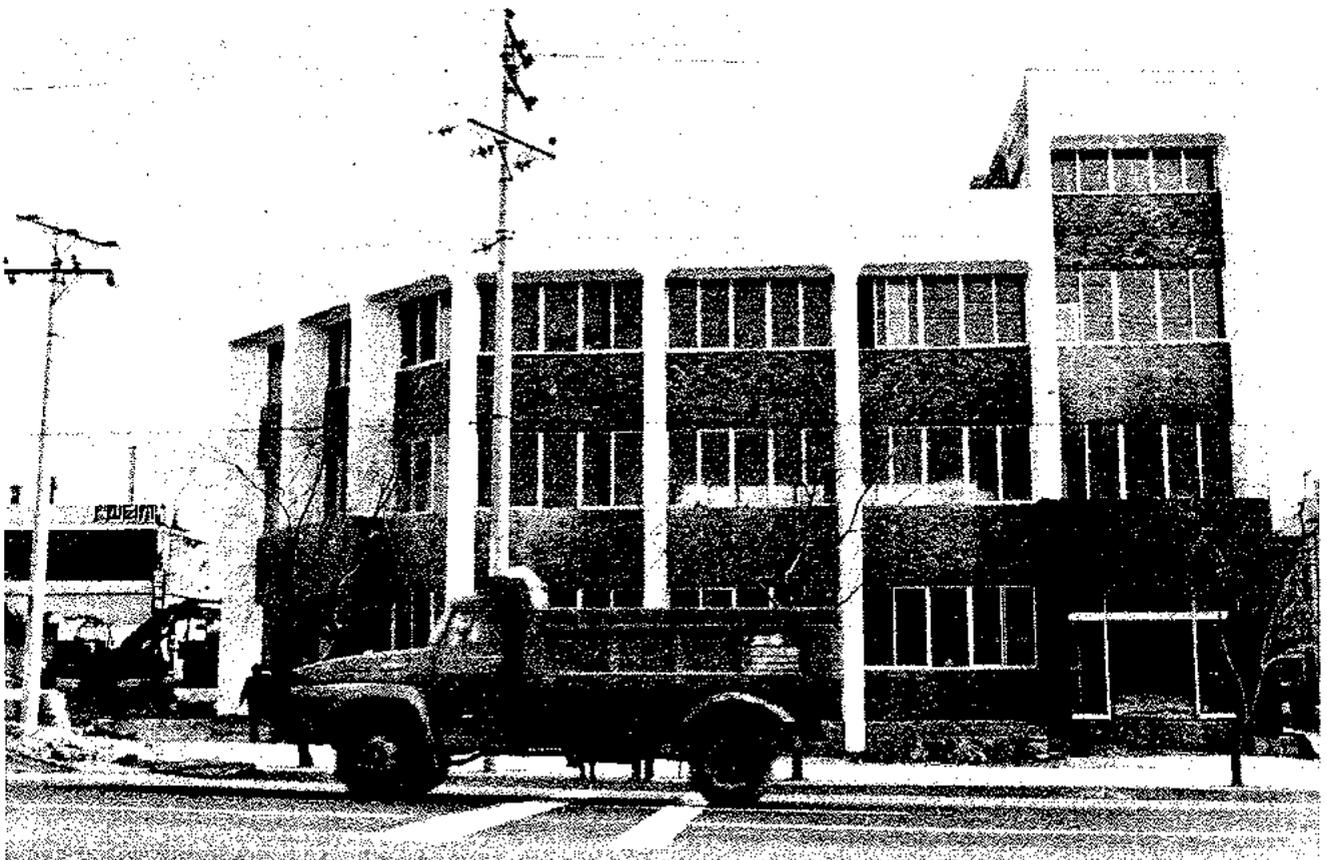
옥탑 : 40.4 m²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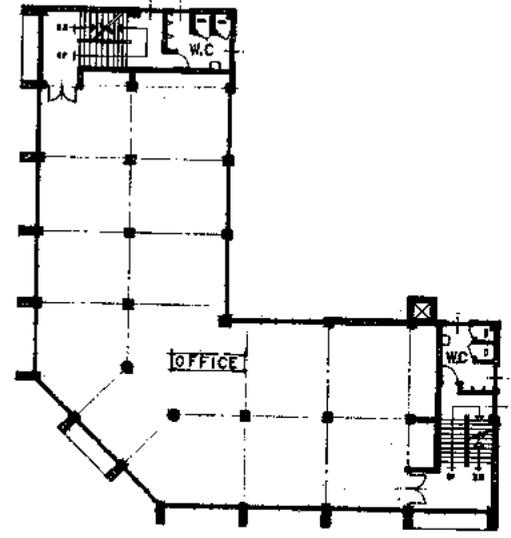


설계개요 : 점포로서 알맞은 대지조건을 충분히 살려 건물을 우선미를 목적으로 계획하여 외장처리는 백색 본타일과 흑색 타일로 조화를 이루게 하였고 내부를 밝고 아늑하게 조성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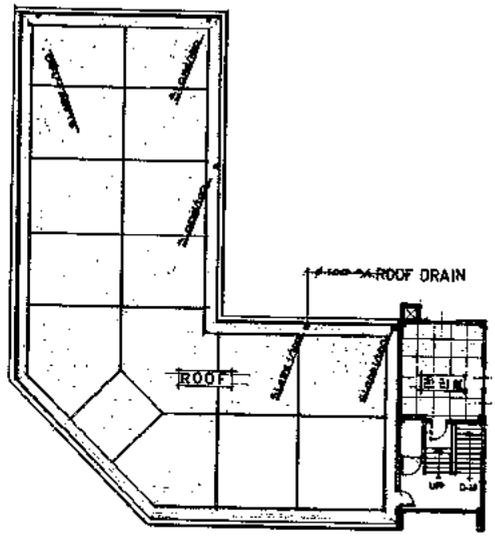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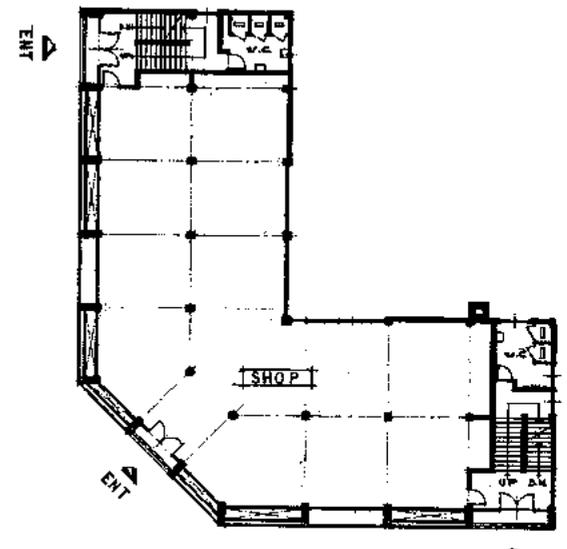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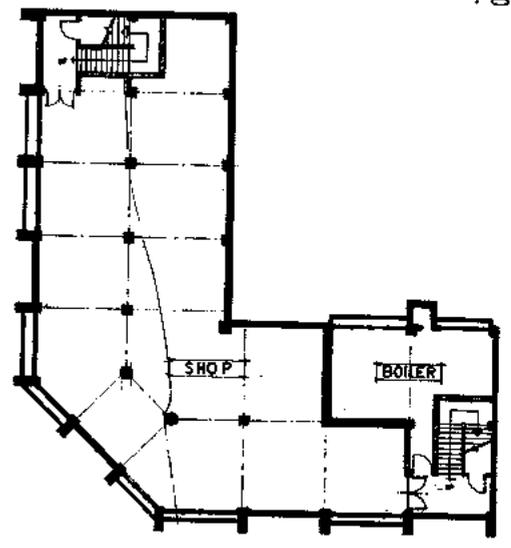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1층 평면도



지층 평면도

會員作品

雙林빌딩新築工事

設 計：車東明(車建築研究所)

建物位置：서울 中区 雙林洞 151-11

건축면적：730.4㎡

연 면 적：10,111.4㎡

준 공：1978.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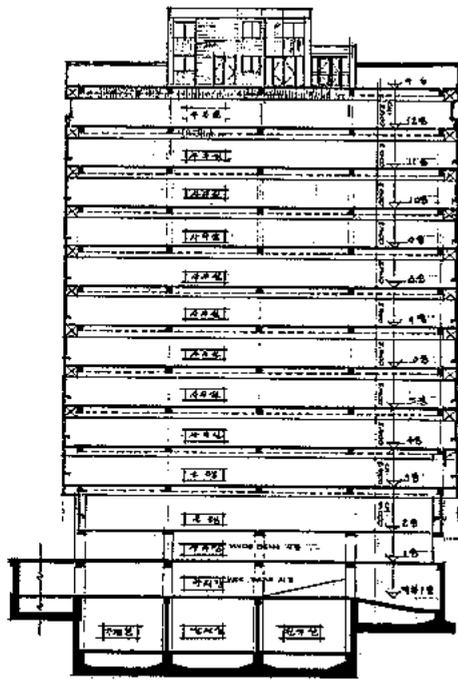
구조개요：철근 CONCRETE RAHMEN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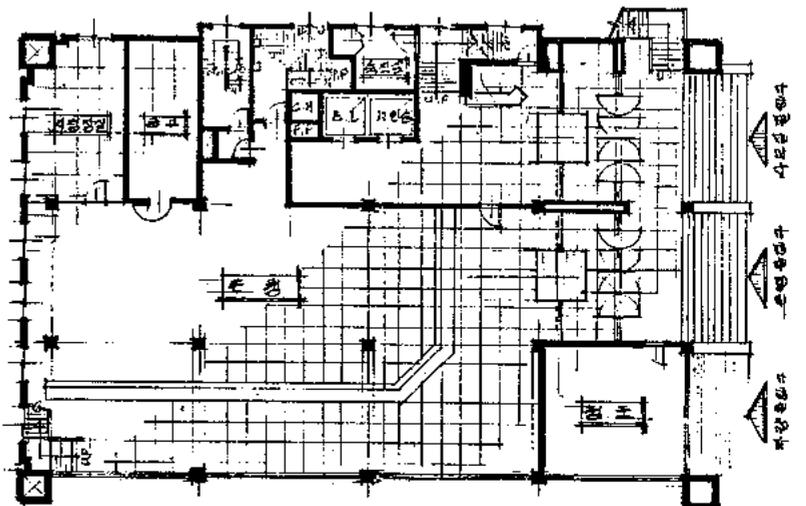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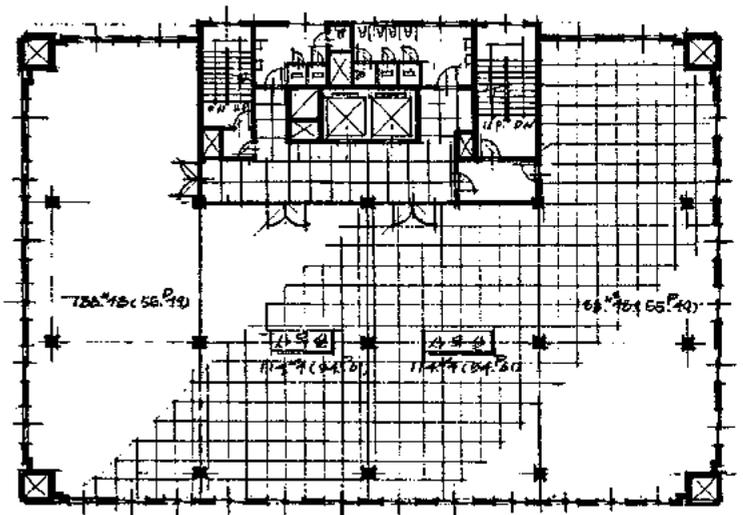
設計概要：純粹한 OFFICE BL로서 空調冷熱房設備을 하였으며 現行法에 依한 充分한 주차장시설과 消防設備을 갖
추고 窓面積을 줄임으로서 斷熱效果를 增大시켰음.



단면도



2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육군 사관학교 기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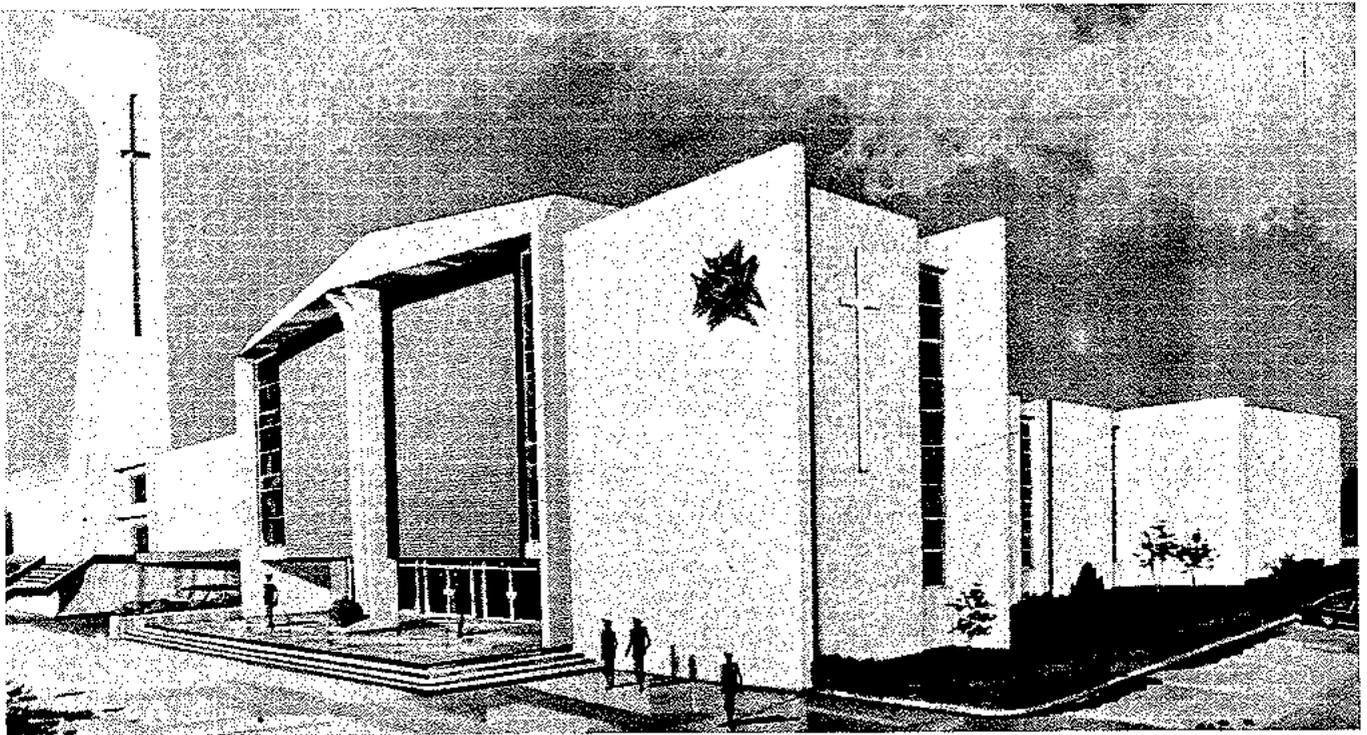
설 계 : 尹 鳳 源 건축 연구소 원전사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태릉

1 층 : 488 m²
2 층 : 536 m²
중 3 층 : 296 m²
4 층 : 146 m²
합 계 : 1,466 m²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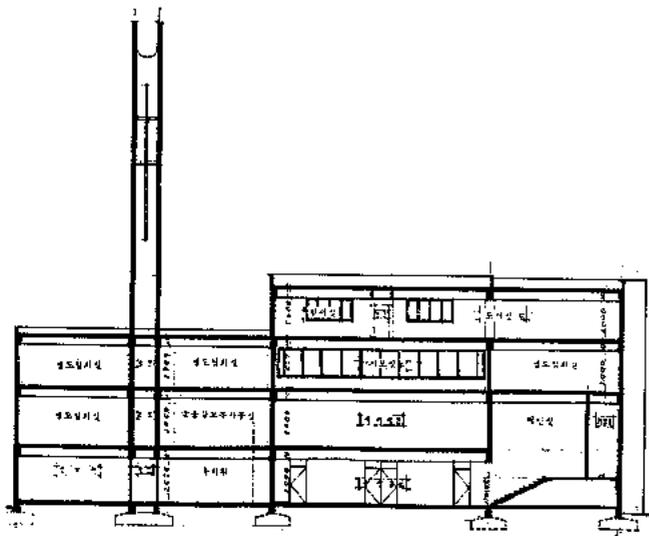


설계개요 : 국방의 요직을 담당할 생도들을 교육하는 장소에 정신무장 및 종교의 요람으로써 그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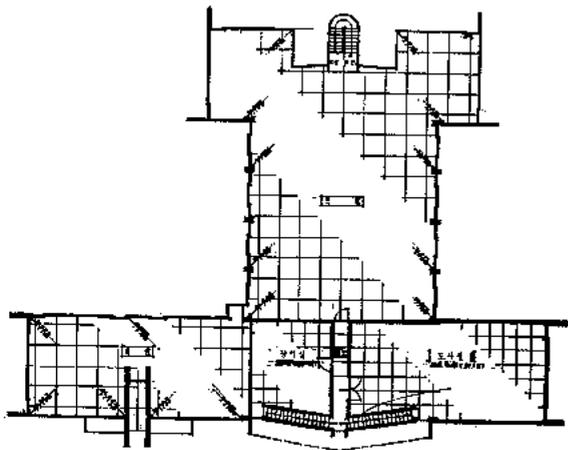
동시에 500명 정도의 교인이 예배할 수 있는

- ① 예배공간
- ② 교육공간
- ③ 생활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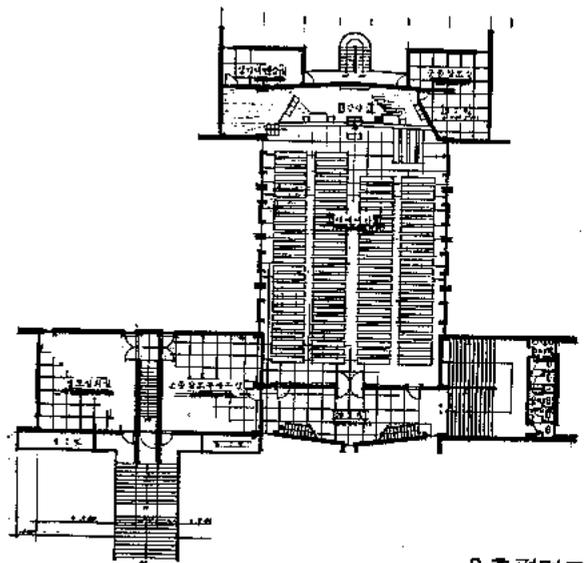
현재 교회에서 필요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을 확보했으며 교회 위치는 민간인도(외부교인 및 군인가족)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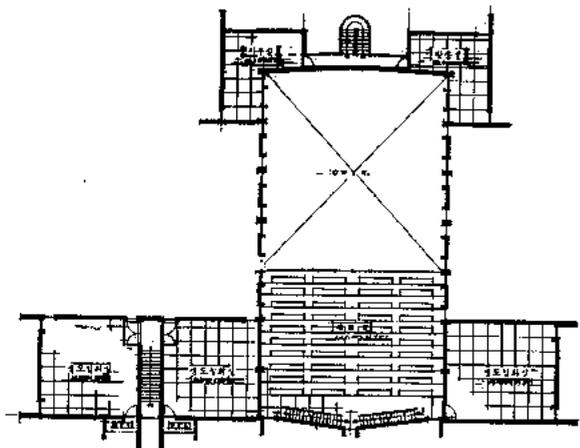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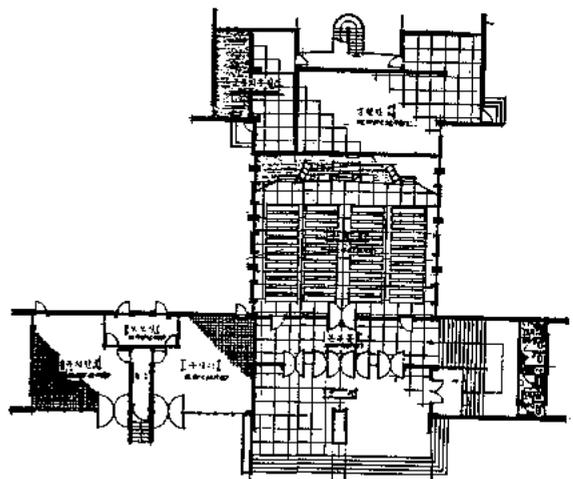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會員作品

평창동 L氏댁

설 계 : 劉 圭 成 범양건축연구소

건물위치 : 종로구 평창동

구 조 : 연와조

대지면적 : 600. ²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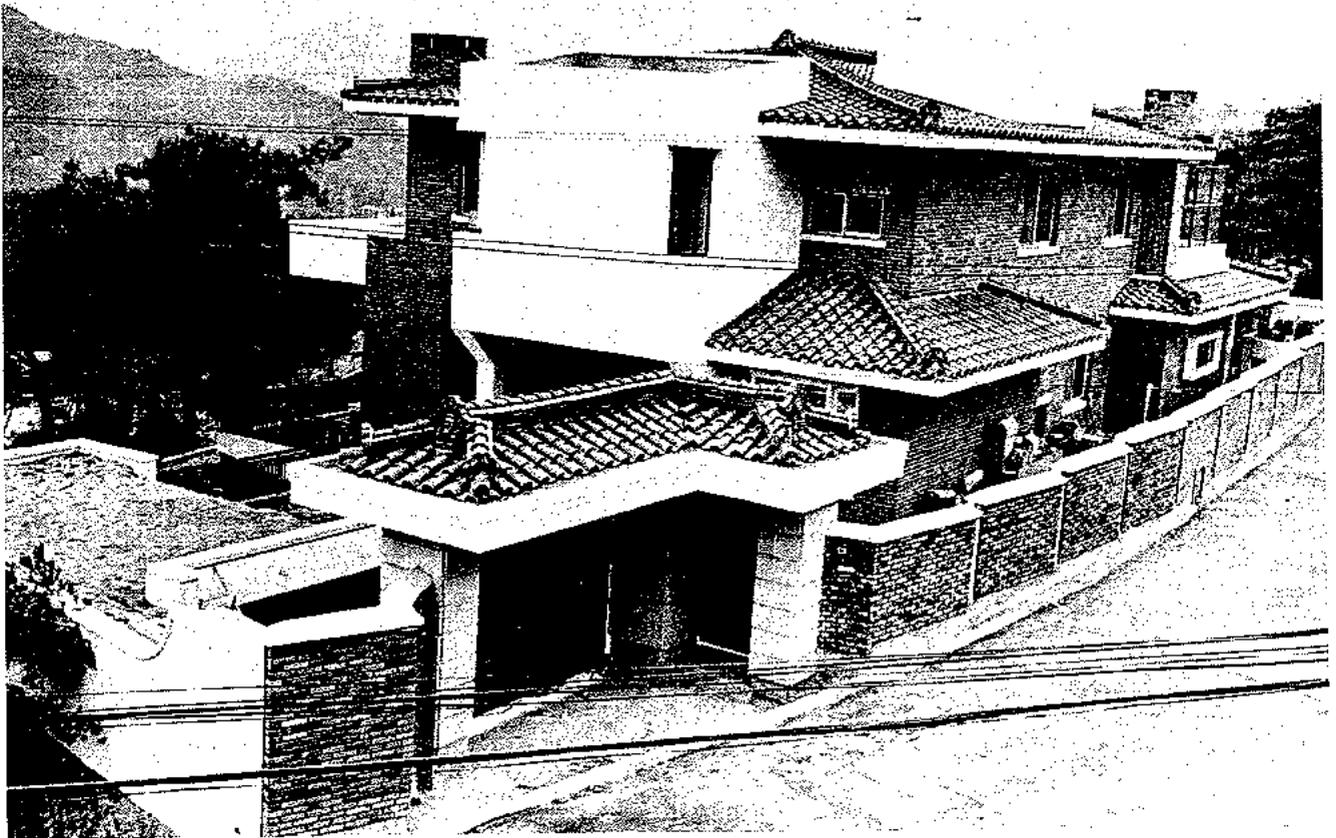
건물면적 : 지하층 45.36 ²m

1 층 177. ²m

2 층 101. ²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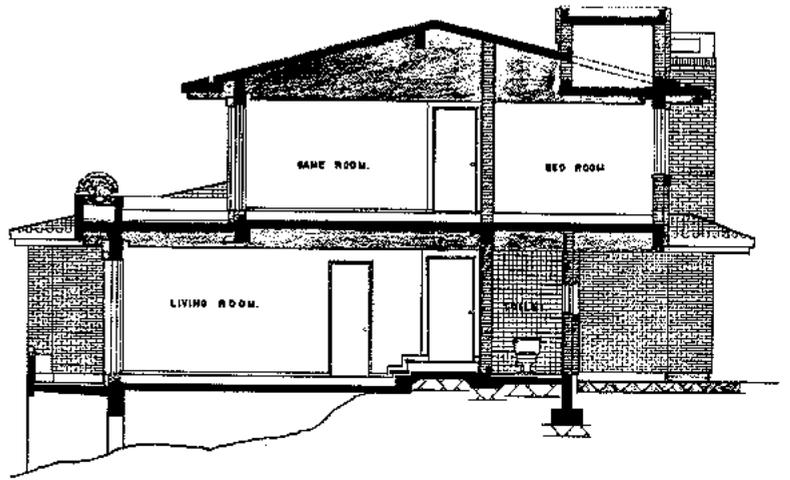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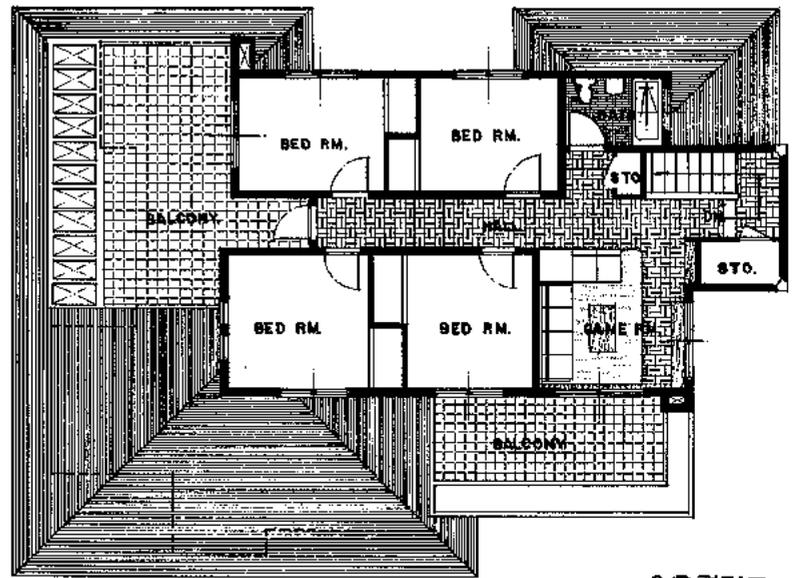


설계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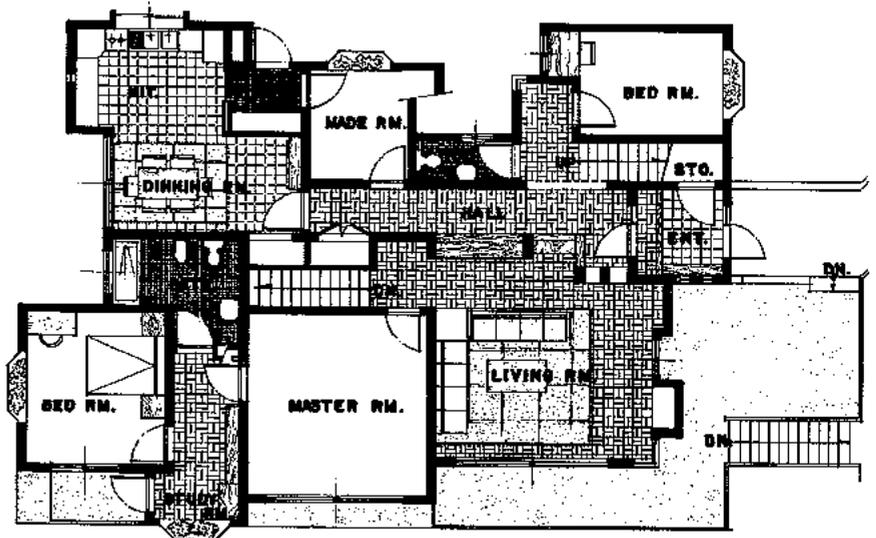
대지의 남쪽은 수목으로 우거진 가파른 산등성이며 북쪽으로 길이 있는 조망이 양호한 조건속에 현대기술을 한국적으로 소화시켜 정서적인 생활을 영구히 누릴수 있도록 구상된 주택이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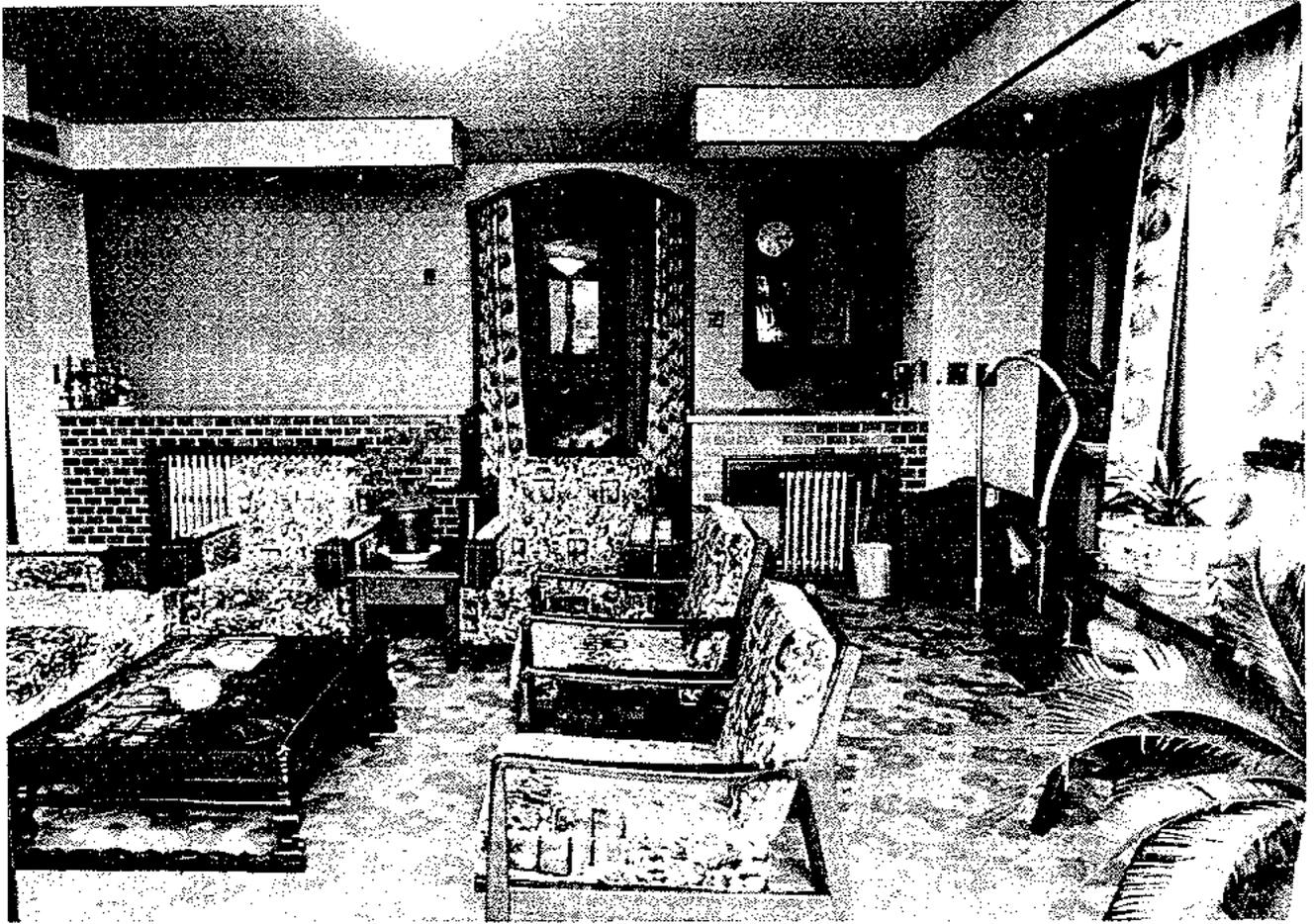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會員作品



會員作品

科学 — 人間

尹 太 鉉

現代 科学의 發達이 人間生活에 많은 便宜을 주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TV를 通하여 안방에 앉아서 世界 구석구석을 볼 수 있다. 坐見千里가 헛말이 아니다. 高速 버스는 当日로 釜山 서울間의 불일을 볼 수 있게 한다. 盲臟 手術쯤이야 手術이라 할 수 없는 程度. 웬만한 病은 治療한다. 以外 通信, 冷蔵庫, 洗濯器 등등 日用品에 이르기까지 많은 便利를 주고 있다.

더욱이 科学은 지금 38萬km만 저쪽 달의 世界에 人間을 보내게끔 進歩하였다. 李太白이 저승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아랑곳 없이 人間들은 달의 征服에만 汲汲하고 있다. 如何든 人類 發生以來 剛期的인 大偉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科学은 또한 人間의 慾望을(自然克服) 부채질하고 人間의 可能性을 북돋우고 그 限界를 最大限으로 充足시 커주는 뜻에서 一等功臣으로 可賞할만 한 存在가 되었다. ○ ○ ○

그러나 現在 우리들의 地上은 果然 科学의 이러한 功勞로 平和속에 幸福하게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中東이나 越南에 아직도 砲煙이 남아 있는 것이 어떠한 理由일까? 언제 어디서 戰爭이 폭발할지? 人類는 지금 不安과 恐怖속에 살고 있다. 이 작은 地球라는 별 위에 百餘個의 大小 國家가 割拠하여 서로 疑心, 暗闘, 謀略으로 原子爆彈 水素爆彈, 毒가스, 細菌등등 殺人 武器를 大量生産 하면서 虎視眈眈 機會를 노리고 있는 것은 어찌 된 것일까?

人口增加는 暴騰하고 食糧은 不足, 數萬의 餓死者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美, 蘇를 비롯 덕덕한 나라들은 이를 돌볼생 각조차 없이 呑不關焉이다. “아폴로 11號”가 月面に 着陸한 報導에 美國이 拳國의으로 感激의 도가니 속에 있을때, 그 나라의 黑人들은 “그러한 莫大한 돈을 空飛하려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떼모까지 하였다한다.

우리들은 重大한 時期에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科学이 進歩할수록 따라서 人間의 不安이 더해진다는 것, 그리고 生活이 便利한 反面에 被害가 더크다는 것이다. 交通事故도 大量死亡으로 單位가 올랐다. 車가 없던 時代에 比하면 몇명 죽어도 어림없다. 아마 車에 犧牲된 家族들은 車가 생긴 것을 怨望할거다 “다시는 車를 타지 말아야지”라고 할거다. 거름 盟誓할지이다.

科学의 排斥인 公害問題는 날로 深刻하여 解決또한 골

치 거리가 됐다.

農藥으로 農作物의 被害가 늘어진 것은 좋은 現象이나, 이 때문에 家畜이 傷하고 人体에 害로운 食水는 어떻게 허나 工場의 廢水로 河川이 汚染되어 고기나 새가 못 살고 農土가 줄어들다, 가스로 空氣가 더럽고 騒音으로 精神을 못차린다. 물, 공기, 음식 모두가 人間에게 害를 주게됐다. 여기서 各種 病이 發生하게 됐다, 病菌의 單位가 높아지고 따라서 藥의 單位도 높아진다. 人間의 壽命은 짧아지게 되었다. 자승자박인 꼴이 되었다.

○ ○ ○
오늘날 人類의 危機는 公害外에 核武器의 出現과 그 高性能化를 主要한 直接 原因으로 하고 있지만 더 캐어보면 二十世紀初에 있어서의 原子物理学이란 怪物의 出現과 이를 研究 發達시킨데 있다고 본다. 現代人의 生活 樣式과 職業內容의 急速한 變化도 結局은 科学의 諸分野의 發達한 結果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科学의 發達は 나시 말해서 人間을 幸福과 繁榮으로 이르게 한 反面 恐怖와 不安, 그리고 破滅에 이르게한 可能性을 주었다.

幸不幸 그 어느 쪽을 挾하느냐는 科学自身的 問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科学이 進歩한 現代에 살고있는 人間自身的 問題인 것이다. 人間全體가운데는 科学者도 包含되어 있다. 그렇다고 “나는 科学者가 아니니까 相關할 바 아니다”라고 말할수도 없게 되었다. 이 眞任은 누구 누구라기 보다 바로 人間의 責任인 것이다. 政治家, 宗教人, 企業人, 技術者 누구나 다 人間이면 責任지어야 할 일이다.

○ ○ ○
世界二次大戰의 終止符는 日本 廣島에 떨어진 原子彈이었다 數十數百萬의 人命을 犧牲시키고, 아직도 그 余波인 原子病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는 “原子彈 에 놈이 나쁘다”라고 꾸짖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놈을 研究하고 製作한 科学者인가 아니면 이 놈을 떨어뜨리라고 命命한 大統領이나 그때, 國會議員들인가 아니면 이를 싣고 가서 떨어뜨린 飛行士에게 욕할 것인가, 담담한 노릇이다.

科学의 成果는 實用性을 갖어오는 것이겠지만 反面에 倫理道德 問題가 들어가게 됨을 피할수 없는 것이다.

科學의 進歩는 人間의 外에 있는 世界, 即 自然科學 이나 物質文明을 合理的으로 理解하고 利用하는데 成功하였다 본다. 그러나 反面에 이 “外”라는 世界에는 人間으로서는 未知인 것 또는 合理的으로는 不可解인 것 등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갈수록 切感하게 된다.

아무리 人造人間이 모든 機能을 다 한다지만 눈물은 흘리지 못한다, 사랑도 못 할 것이다. 꿈도 없을 것이다.

人工受胎에 成功하였으나 그 精子는 不可解로 만들 수 없다.

이런 意味로 人間은 外의 世界에 살고 있는 反面, 人間은 內에 있는 世界 即, “마음의 世界”라는 것,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望望 輕視되거나 잊어 지거나 하여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科學과 技術이 結付되어 그 技術이 人間 世界의 여러 가지 利害關係와 結付된 경우에는 人間性이라 하는 것은, 合理的인 打算的인 側面만에 局限해서 問題 삼아온 것에 不過한 일이 아닐까 본다. 原子物理學者가 物質의 構造를 研究하는 限에 있어서, 그 學者 自身이 人間으로서 어떠한 生活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은 別로 問題로 할 必要가 없었던 것이다. 研究以外에 그 學者의 思想이나 生活과 物質構造의 研究와는 一次 分離시켜 생각해도 別로 相關없는 것이었다. 科學 萬能이라 할까.

그러나 原子의 研究와 進歩, 그리고 原子力을 利用할 可能性이 생긴 瞬間부터 研究者로서의 사는 方法 또는 생각하는 方法과 그 以外로서의 사는 方法 또는 생각하는 方法을 分離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原子力이 어떠한 目的으로 利用되어서도 研究者 自身이 “나는 別相關없다. 研究할 따름이다”라고 敢히 말 할 수 있을까, 萬一에 核所有國間의 紛爭으로 原子力이 戰爭의 殺人武器로 사용될 경우 이때가서 研究者는 果然 어떻게 自身의 生을 保障 받을 것인가, 설혹 살아 남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죽어간 數萬의 人間들의 靈魂에 대해 무어라 辯明할 것인가.

広島에 原子彈을 떨어뜨린 飛行士가 근처에 와서 그의 回顧記를 썼다.

平和로운 거리에 通學하는 兒童을 向해 原子彈을 投下 보던을 눌렀을때의 自身의 心情을 表現하면서 平生을 두고 良心의 苛責으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勿論 이 飛行士를 보고 “너는 殺人者, 下手人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美國이나 日本이나 누구 相對로 是非를 가릴 수도 없다. 그 當時의 爲政者, 科學者, 製作者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인가.

“人間/다만 人間이다”人間 自体가 어리석고 人間自体가 불쌍할 따름이다. 왜 들이러는가.

科學의 發達은 人間性의 여러 가지 側面, 그리고 統一된 人間像의 形成이나 發展을 助長하기는 커녕, 오히려 分裂

과 破壞를 가져온 結果를 낳은 것이다.

科學은 自然界를 여러 가지 方向으로 分化하여 局部的으로 精細한 見을 만한 知識이나 技術을 가진 專門家를 만들어 낸 것은 事實이다.

人間이 만들어 내는 機械의 種類가 늘어, 그것이 精巧하게 갈 수록 그것을 使用하는 人間은 “機械의 일”에 介入하여 機械를 理解하고 手苦하고 勞를 避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便利하니까 쓴다”라고만 滿足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機械를 使用하고 있다는 人間自体가 어느새 機械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어갈 수 없는 生物로 變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停電이 되면 一大 混亂이 온다. 冷蔵庫, 洗濯器, TV 엘리베이터 등 을 스톱이다. 눈 뜬 장님이다. 오도 가도 못한다 또한 車事故로 혼났으면서도 車를 타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다.

機械가 人間의 힘을 덜어주고 補強 또는 擴大시켜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컴퓨터-터나 人造人間의 登場으로 “人間의 일”까지 점점 機械가 뺏아간다면 結局 人間이 가는 곳 끝은 어딘가? 새로운 疑問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이 갈수록 모이여 人間性의 여러 側面의 統一을 破壞하여 結果는 人間性의 喪失을 일으킬 憂慮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分裂이 人間에게서 幸福을 빼앗는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高速버스와 地方완행 버스안의 人情味가 다른 스피드 時代, 마이카 時代에 눌러 人間性이 흐려진 것이다.

根本적으로 科學의 進歩가 반드시 人間을 幸福하게 한다는 保證은 없었다. 科學이란 人間 周邊의 未知의 世界를 開拓하여 가는 努力의 表現인 것이며 人間에 있어서의 새로운 可能性의 發見이었다. 未知의 世界속에 果然 무엇이 있는가? 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불 于先 물어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可能性이 發見되고 人間 生活에 便利를 준 것이 반듯이 人間에게 幸福을 준다는 保證은 原來 없는 것이다.

그것은 幸福과 繁榮에의 可能性의 發見이 될지도 모르며 人類의 破滅과 人間性의 喪失에의 可能性의 發見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人間의 幸福이란 것이 반드시 直接, 學問이나 理論의 對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人間의 喜怒哀樂은 人間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것이다. 이는 機械에서 不可能한 人間 特有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人間의 意識 人間의 反省을 超越한 自然發生인 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인 것이다.

人間은 平安하고 넉넉한데서 幸福을 느끼는 것보다 어렵고 不足한데서 얻는 幸福이 比할 바 아니라 본다. 人間은 自己自身도 모르는 自己를 發見할 때가 있다. 人間은 人間이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도 아직 갖고 있다.

自己가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間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人間의 情念인 喜怒哀樂이란 그런것과 깊이 結付되어 發生하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의 幸福이라는 것을 問題로 할 경우에, 이러한 素因을 떠나서 科學으로 簡單히 풀이해 본다거나, 科學과 結付시켜 본다는 것은 困難한 것이며 不可한 것이다.

人間 世界에 있어서 누가 보나 바람직한 일이며 原理적으로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容易하게 實現되지 않고 反對로 많은 異論이 있는 不當한 일이 實現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人間이 意識된 自己가 合理的인 思考나 反省의 對象이 되는 自己만으로서도 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들 人間이 自己들이 갖고있는 理性和 合理的인 思考能力을 輕視해도 좋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反對로 우리들은 自己의 意識속에 깊이 간직한 自己를 發見하여 참 모습의 自己를 浮刻시키든가, 또는 우리 人間의 理性을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서 人間性的의 보다 넓은 領域으로 擴大시키고 開發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努力에 依하여 今後의 世界에 있어서 人間性的의 喪失이라는것 또는 分裂이라는 것 등 이러한 危險을 救하는 方向으로 人間은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科學의 發達은 人間에게 生活의 便宜와 生活水準의 向上, 人間 送信的의 減少, 未來에의 期待등등 여러모로 功利가 있는 反面에 原子力에 對한 恐怖와 機械 依存 到에서 오는 不安, 人間性的의 喪失, 人間의 情念의 枯渴 등등 人間本然의 存在를 脅위 하는데 무엇보다도 크나큰 損失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自然 科學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전혀 “外인 世界”를 探求하는데 “內의 世界”에 對해서 새로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機械는 “計算” “헛일” 헛 手苦가 없다 따라서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다. 그러나 人間에게는 “헛”이 있고 詩가 있고 노래가 있다. 또 人間은 生命의 貴重함을 알고 있다. 自己의 生命을 아낄 줄 알고 남의 生命을 아낄 줄 안다.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人間이다.

人間은 機械일수는 없다.
機械가 人間일 수도 없다.
그러나 機械는 人間이 만든것
人間없이 機械는 있을 수 없다.

人間이 機械의 奴隸일 수는 없다
人間은 人間을 찾고
人間은 人間이어야 한다.

그래서 人間이라면 宇宙旅行에 앞서 干先 地球上에 한 사람의 餓死者라도 求하여야 한다. 그리고 人間이라면 生命의 貴重함을 알고 人間이 人間을 아끼고 人間이 人間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人間이 만든 科學의 產物인 機械를 잘 利用 하며 人間이 人間으로서 잘 살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다.

“遊於芸”란 孔子의 말씀이 생각난다. “人生을 藝術과 함께 놀라”라는 뜻이 된다. 詩와 노래 그리고 愛情이 넘치는 곳에서 人生을 즐길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가.

거기에 “唯生道”即 오직 사는 길인 “知自” “利他” “謝世” 三要素인 먼저 自己를 알고 다음 남에게 利를 주고 그리고 世上에 感謝함으로써 우리 人間은 地上樂園을 이루고 살수 있다고 確信한다.

太極建築代表

工業配置法

1977년12월31일

法律第3,069號

국회에서 의결된 공업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第1章 總 則

第1條 (目 的) 이 법은 工業을 合理的으로 配置하여 適正한 工場立地를 造成하고 工場의 再配置를 促進함으로써 過度한 工業의 集中을 防止하여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과 國民福祉의 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工場”이란 함은 製造業(物品의 加工·修理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物品製造工程(加工·修理工程을 포함한다)을 形成하는 機械 또는 裝置가 設置된 建築物 또는 事業場을 말한다.
2. “移轉促進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도와 人口增加率이 顯著히 높아 工場의 移轉이 필요한 大都市 및 그 周邊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3. “制限整備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도와 人口增加率이 높아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制限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4. “誘致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도가 낮아 工業의 誘致와 雇傭의 增大가 필요한 地域으로서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 (處分行為 등의 承繼人에 대한 効力)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命의 規定에 의한 處分節次 기타의 行為는 그 行為의 對象이 된 工場에 대하여 所有權·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의 承繼人에 대하여 그 効力を 가진다.

第2章 工業配置基本計劃

第4條 (工業配置基本計劃) ① 商工部長官은 全國土의 工業配置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工業配置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工業의 年度別·業種別·地域別配置에 관한 事項.
2. 移轉促進地域 또는 制限整備地域에서 誘致 地域으로의 工場移轉에 관한 事項

3. 工場用地의 長期需要에 관한 事項

4. 業種別·地域別 公害의 豫防과 環境保全·整備에 관한 事項

5. 기타 工業配置에 관한 主要事項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部處의 長과 協議하고,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의 部處의 長과 協議하고,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은 國土建設綜合計劃土地利用計劃 등 다른 國土利用計劃과의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⑤ 商工部長官은 工業配置基本計劃의 推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用地의 需給計劃을 作成하고, 이를 農水産部長官에게 각각 通報하여야 한다.

第5條 (工場立地의 調査) ① 商工部長官은 工業配置基本計劃의 樹立과 그 推進 및 工場立地의 基準設定을 위하여 地域別工業의 分布와 特性 工場用地의 利用狀況·電力·用水·輸送條件 등 工場立地의 調査를 定期的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②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管轄 地域내의 工場의 運營實態와 工場立地 動向을 調査하여 工場配置에 관한 필요한 事項을 商工部長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③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議에 따라 全國土의 工場立地 狀況을 記錄·備置하고 이를 基礎로 製品別 單位生産에 필요한 用地·從業員·電力·用水의 標準所要量을 設定하여 工場立地行政의 指針으로 活用하여야 한다.

第3章 工場의 立地

第6條 (工場立地의 基準告示) 商工部長官은 관계 部處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한 工場立地의 基準(이하 “立地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1. 製造業種別 工場建築面積에 대한 垜地面積의 比率(이하 “基準工場 面積率”이라 한다)

2. 工場用地的 綠地帶等 環境施設의 設置
3. 特定地域에 관한 製造業種別 立地條件
4. 公害業種(施設·物質을 포함한다)의 立地制限

第7條 (工場設置의 申告) ① 工場佔地面積 또는 工場建築面積의 合計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의 工場(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의 工場을 제외한다)을 新設(建物を 既存 사용하여 製造業을 營為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增設하고자 하는 者は 그 設置工事を 着手하기 전에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 工場設置에 관한 許可·認可·免許 등(이하 “許可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事項중 商工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

第8條 (立地變更 등의 勸告) ① 商工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경우에 이를 審査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立地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場의 立地를 變更하게 하거나 立地基準에 適合한 施設의 設置를 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第7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는 그 申告가 있는 날(第1項 後段의 경우에는 許可등의 申請을 한 날)로부터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第9條 (調整命令 등) ① 商工部長官은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를 받은 者가 그 勸告에 응하지 아니하고 工場을 設置함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立地 또는 事業計劃의 調整 또는 變更을 命할 수 있다.

1. 工場의 設置가 工業配置基本計劃의 地域別配置에 顯著히 反하는 경우
2. 工場建築面積이 基準工場面積率에 顯著히 未達되어 過多한 基準工場面積率에 用地가 遊休化되는 경우
3. 第6條 第3號 또는 第4號의 立地基準에 반하여 周邊地域의 自然條件을 顯著히 害하게 되는 경우
4. 당해 工場의 設置로 인하여 既設工場의 立地條件을 顯著히 害하게 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 또는 變更의 命令은 第8條 第1項의 勸告를 한 날로부터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第10條 (權利·義務의 承繼)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第7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되는 경우의 者를 포함한다. 이하 또는 合併 같다)로부터 工場을 讓受한 者는 그 工場에 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에 관하여 相統 또는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相統人후 存統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 工場에 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第11條 (過多工場用地에 대한 措置) ① 商工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의 工場建築面積이 工場設置를 完了한 날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될 경우에는 그 申告의 內容에 따른 工場用地的 活用등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工場建築面積이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工場의 業種別 基準工場面積率에 따라 算出된 過多工場用地(이하 “基準超過用地”라 한다)에 대하여 地方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18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非業務用土地로 본다.

③ 商工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때에는 그 基準超過用地에 관한 內容을 管轄市長(서울 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郡守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製造業의 種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第12條 (基準超過用地의 賣却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후 大統領令으로 다시 정하는 期間내에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의 工場建築面積이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될 때에는 그 基準超過用地를 工場用地的 所有者를 代身하여 賣却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賣却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却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趣旨를 工場用地的 所有者에게 豫告하고, 事前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用地的 賣却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用地를 賣却할 때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移轉하는 工場(이하 “移轉工場”이라 한다)의 所有者에게 優先賣却하여야 한다.

第4章 工場의 再配置

第13條 (工場設置 등의 制限) ① 移轉促進地域과 制限整備地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移轉促進地域안에서의 工場의 增設, 制限整備地域안에서의 工場의 新設·增設과 移轉促進地域 또는 制限整備地域 안에서의 工場의 移轉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
2. 工場用地的 造成
3. 工場의 移轉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을 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대하여 地方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112

條 第3項 및 同法 第18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안의 工場新設로 본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既存工場の 登録) ① 移轉促進地域과 制限整備地域안에 工場을 所有(賃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있는 者는 그 地域을 定하는 大統領令의 施行日로부터 商工部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道知事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登録事項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の 登録을 받은 때에는 그 內容을 商工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道知事は 工場登録簿를 備置하고 필요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④ 商工部長官은 工業配置基本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移轉促進地域과 制限整備地域 이외의 地域에 工場을 所有하고 있는 者에게도 管轄道知事에게 그 工場을 登録하게 할 수 있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5條 (移轉命令등) ① 商工部長官은 移轉促進地域에서 移轉하여야 할 工場을 指定하여 그 移轉을 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의 對象이 되는 工場의 범위, 移轉命令의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移轉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移轉하여야 할 工場의 범위, 移轉時期 등을 定하여 一定期間 公告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받은 工場의 所有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2年내에 그 工場의 移轉을 完了하여야 한다.

다만, 商工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⑤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의 移轉을 命하거나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期間을 延長한 때에는 그 內容을 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⑥ 商工部長官은 工場移轉記錄簿를 備置하고 필요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16條 (誘致地域의 指定) ① 商工部長官은 全國十에 걸친 工業의 適正한 配置를 기하기 위하여 工業의 集中的인 誘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誘致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地域中에서 이를 指定하여야 한다.

1. 工業의 密集도가 낮을 것.
2. 人口 및 工業의 收容效果가 높을 것.
3. 既存産業과의 系列化를 기할 수 있을 것.
4. 工場用地·用水·電力등 支援施設의 整備가 容易할 것.

③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誘致地域을 指定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7條 (工業誘致計劃) ① 商工部長官은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誘致地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工業配置基本計劃에 따라 工業誘致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誘致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誘致地域豫定地의 位置 및 범위
2. 誘致하고자 하는 工場의 業種 및 그 規模
3. 誘致工場에 필요한 勞動力의 需給
4. 工場用地의 확보
5. 通信施設·職業訓練施設·醫療施設·教育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整備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誘致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道知事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8條 (誘致地域안의 財産處分)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誘致地域안에 所有하는 工場用土地를 賣却하고자 할 때에는 移轉工場의 所有者에게 優先賣却한다.

第19條 (都市計劃등의 優先 實施)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誘致地域안의 道路·水道·住宅등 都市計劃事業을 優先 實施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誘致地域안의 通信·厚生福祉·職業訓練·保健醫療·教育文化 등 支援施設의 整備를 優先 推進한다.

第20條 (誘致地域안에서의 工業團地의 造成) ① 誘致地域안에 工業團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業團地豫定地에 대하여 商工部長官의 指定을 받아야 한다. 指定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業團地豫定地를 指定 또는 變更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豫定地는 國土利用管理法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用途地域에 적합한 地域이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의 造成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23條 내지 第3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指定된 産業基地開發區域에 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1條 (工業整備特別區域의 指定) ① 商工部長官은 工場의 過度한 集中과 그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고, 週邊地域의 環境保全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工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이 있을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工業整備特別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業整備特別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22條 (工業整備實施計劃) ① 道知事は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整備特別區域의 指定이 있을 때에는 工業整備實施計劃을 樹立하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整備實施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整備하여야 할 業種의 工場 및 그 規模
2. 工場의 配置
3. 施設의 整備
4. 기타 工業整備에 필요한 事項

第23條 (工場 등 設置의 制限) ① 工業整備特別區域안에서는 工業整備實施計劃의 目的에 違背되는 工場(機械 및 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工場 등”이라 한다)을 新設 또는 增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 등의 범위 및 그 規模 등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整備命令 등) 道知事は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整備實施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整備對象工場을 指定하여 施設의 改修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의 범위 안에서 期間을 정하여 移轉을 命할 수 있다.

第25條 (工場移轉의 申告 등) ①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 또는 工業整備特別區域 안에서 誘致地域이나 기타의 地域(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誘致地域·工業整備特別區域을 제외한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工場을 移轉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商工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26條 (移轉工場의 優先支援)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는 移轉工場에 대하여는 優先支援하여야 한다.

第27條 (移轉工場의 既存用地의 買入活用 등)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는 移轉工場의 既存用地를 優先買入하거나 都市環境의 保全을 위하여 活用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28條 (租稅의 減免措置)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工業整備特別區域 안에 있는 工場을 誘致地域이나 기타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者 또는 誘致地域 안에 工場을 設置하여 事業을 營為하는 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第29條 (移轉命令의 違反에 대한 措置) ① 商工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移轉命令을 받은 工場을 第15條 第4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移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機關의 長에게 당해 工場에 대한 電氣·電話·水道의 設置나 그 供給을 中止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移轉命令을 받은 工場이 第15條 第4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후 大統領令으로 다시 정하는 期間內에 工場을 移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事業을 營為할 때에는 2年の

범위 안에서 그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の 정지를 命하거나 關係機關의 長에게 당해 事業의 정지 또는 取消을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③ 關係機關의 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第15條 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에 違反하여 移轉하여야 할 期間을 경과한 工場에 대하여 地方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同法 第112條 第3項 및 同法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안의 工場新設로 본다.

第5章 工業配置審議委員會

第30條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의 設置) ① 이 법에 의한 工場의 再配置와 工場의 立地調整에 관한 중요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商工部に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의 構成·機能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支援 및 監督

第31條 (政府의 財政支援) 政府는 移轉工場 또는 誘致地域 안에 工業團地를 造成하는 者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에 대하여 財政的 支援이 필요한 때에는 資金管理特別會計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資金의 一部를 融資할 수 있다.

1. 工場用地의 造成費用
2. 工場의 移轉費用
3. 工場의 建設費用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第32條 (보고 및 檢査) ① 이 법에 의하여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한 者가 그 工場의 建設을 完了한 때에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建設을 完了한 날로부터 1月內에 商工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工場의 運營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그 檢査결과에 따라 工場의 所有者에게 施設의 改修 등 필요한 措置를 指示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④ 商工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誘致地域·工業整備特別區域 또는 기타의 地域 안에 工場을 所有하고 있는 者 및 移轉工場의 所有者나 占有者에게 工場立地 또는 工場의 建設 등에 관한 필요한 事項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7章 補 則

第33條 (地域등의 指定) 이 法에 의한 移轉促進地域등의 범위는 行政區域單位로 指定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34條 (協 調) ① 商工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申告의 受理 또는 許可를 한 때에는 그 內容을 관계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建設部長官이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誘致地域 또는 工業整備特別區域안에 國土利用管理法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工業地域을 指定 또는 變更하거나 細分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商工部長官과 協議 하여야 한다.

第35條 (建築許可등의 制限) 關係機關의 長 또는 道知事は 이 法에 의한 工場의 新設 또는 増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工場의 新設 増設 또는 移轉의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關係 法令에 의한 工場用地의 造成, 工場의 建築許可 또는 營業등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한 때에는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第5項, 第16條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때에는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때에는 地方工業開發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立地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의 指定이 있는 때에는 地方工業開發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開發法獎勵地區의 指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37條 (權限의 委任·委託) 商工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機關의 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託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38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罰 則

第39條 (罰 則)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工場을 新設 또는 増設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虛偽로 한 者

2. 第9條 第1項(第25條 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同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工場을 新設·増設 또는 移轉한 者

4.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工場등을 新設 또는 増設한 者

5. 第2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工場을 移轉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虛偽로 한 者

第40條 (罰 則) 第2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 命令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1條 (罰 則)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妨害· 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2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32條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者

第4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9條 내지 第41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過多工場用地에 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工場을 設置하고 있는 者는 이 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의 工場 建築面積이 이 法 施行日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당해 目的에 相應한 活用이나 處分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후 大統領令으로 다시 정하는 期間이 경과될 때까지 그 工場建築面積이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그 基準超過 用地에 대하여 地方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18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非業務用土地로 본다.

④ 第11條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條 (工業開發獎勵地區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地方工業開發獎勵地區는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開發獎勵地區는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된 誘致地域으로 본다.

공업배치법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업배치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제 9, 250호

1978년 12월 30일

공업배치법시행기일어관한규정

법률 제3,069호 공업배치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법 제 7조 및 동법부칙 제 2조제 1항의 규정은 1979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업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촉진지역) 법 제 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 촉진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의정부시
3.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주내면·백석면·장흥면
별내·진접면·진건면·와부면·미금면
4.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원당면·지도면·중면·벽제면

제3조 (제한정비지역) 법 제 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정비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 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2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1. 부산시(북구 모라동·삼락동·덕포동·폐법동·감전동·학장동, 주례동·염곡동·빛서구 신평동·장림동·다대동을 제외한다).
2. 경기도 인천시
3. 경기도 수원시
4. 경기도 성남시
5. 경기도 안양시
6. 경기도 부천시
7.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8.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서면·남면·외왕면·수암면·군자면·소래면

9.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10.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양서면·서종면

11. 경기도 광주군 광주면·초월면·퇴촌면·남종면·동부면·서부면·중부면

12.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계양면

제4조 (재료의 제출) 상공부장관은 법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이하 "공업배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법 제 4조제 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공장입지의 조사) ① 상공부장관은 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의 조사를 5년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거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장입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장대지면적등의 산출) ① 법 또는 이영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연면적을 말한다.

② 공장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장설치신고의 대상) ① 법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할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공장의 증설인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공장 대지면적과 증설한 부분의 공장대지면적을 합제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공장의 증설인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증설한 부분의 공장면적을 합제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② 법 제 7 조 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자도입법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3. 양곡관리법
4. 농약관리법
5. 비료관리법
6. 사료관리법
7. 축산물가공처리법
8. 수산업법
9. 잠업법
10. 전기사업법
11. 식품위생법
12. 약사법
13. 원호대상자직업제한법
14. 담배판매법
15. 홍삼판매법
16.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③ 주무부장관은 제 2 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치에 관한 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장 입지에 관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 조 (공장신설등의 신고절차) ①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치신고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공장설치신고 확인서를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 9 조 (조정명령) 상공부장관이 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변경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변경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의 달성기간) ① 법 제 11 조 제 1 항에서 “공장설치를 완료한날”이라 함은 건축법상 건축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내에 건축법상 건축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예정일을 공장설치를 완료한 날로 본다.

② 법 제 11 조 제 1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별표 1 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기준초과용지의 유예기간) 법 제 11 조 제 2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제 12 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 ① 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공장대지면적} - (\text{공장건축면적} \times \frac{1}{\text{기준공장면적율}})$$

② 제 1 항의 규정의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 13 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예고기간) 법 제 12 조 제 1 항의 “대통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제 14 조 (기준초과용지의 대리매각권자) 법 제 12 조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2.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제 15 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는 다음 각호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대전시·광주시·전주시 및 이들 도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읍·면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330제곱미터
2. 제 1 호 이외의 시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1,650제곱미터

제 16 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예고기간이 지난 때에는 기준초과용지의 면적, 매각의 취지 및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절차를 공장용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장용지의 소유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 월내에 공장용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장용지의 소유자는 다시 그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 월내에 매각대상 용지의 범위·매각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장용지의 범위·매각방법 및 시기를 정할 때에는 그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 1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협의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30 일 내에 매각대상용지의 매각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장의 범위) ① 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5 인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9조 (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법 제13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안에서 증설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증설의 범의는 1977년 3월25일 현재의 공장건축면적의 100/100이내 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내의 공장일 것.
2.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일 것.

제20조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법 제13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공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의 공장으로서 하나, 별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공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하나, 별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공장의 신설의 경우에는 공장 건축 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의 공장일 것.
2. 다음 요건을 갖춘 공장일 것.
 - 가. 이 영 시행당시 공장용지로 조성되어 있고, 배수시설이 된 폭 6미터 이상의 진입로가 있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을 것.
 - 나. 공업지역으로서의 존속이 불가피할 것.
 - 다. 배수체계 또는 지역조건상 상수도 취수원에 오염 등 도시공해를 유발시키는 지역이 아닐 것.
 - 라. 안양천·탄천수계의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이전) ①법 제13조 제 1항 제 3호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을 패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이전촉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2. 제한정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3. 이전촉진지역안의 공장의 제한정비지역안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제22조 (공장설치등의 허가) 법 제1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전대상공장의 범위) 법 제1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대상공장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하나,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제24조 (이전대상공장의 지정) ①상공부장관이 법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의 안정적·균형적 발전
 2.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성
- ②상공부장관이 법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업 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
 2. 이전하여야 할 지역
 3. 이전시기
 4. 이전에 따른 지원사항
 5. 제 1호 내지 제 4호 이외에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상공부장관은 법 제15조 제 3항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장의 이전을 명하여야 한다.

④공장의 이전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이전 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장 이전의 기간 연장) 상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전 기간내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2.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이전기간 내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지원시설) 법 제17조제 2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수시설
2. 교통시설
3. 전력시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제27조 (공업단지예정지의 지정신청) ①법 제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안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단지예정지 지정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미리 관계 부처의 장 및 당

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③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안에 공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공업단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공업정비특별구역내의 공장의 신·증설 금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없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2. 공장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제29조 (정비대상 공장의 이전기간) 법 제24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0조 (공장이전의 신고)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이전 신고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장설치신고서”는 “공장이전신고서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는 “공장이전신고확인서”로 본다.

제31조 (이전명령위반에 대한 조치예고기간) 법 제2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2조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 기업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부 공업단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2. 경제기획원 투자심사국장
3. 내무부 지방개발국장
4. 재무부 이채국장
5. 농수산부 농지관리국장
6.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7. 건설부 산업입지국장
8. 건설부 산업입지국장
8. 건설부 도시국장
9. 보건사회부 환경관리관
10. 제1 무임소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2급 공무원 1인
11. 서울특별시 산업국장
13. 공업입지 및 공업배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 장관이 위촉한 자

제33조 (위원회의 임기) 제3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업배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전촉진지역안의 이전대상공장에 관한 사항
3. 유치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업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상공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회의에 부의한 의안은 회의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공부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8조 (수당)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 (지원비용)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용지의 매수비용
2. 지원시설의 설치비용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비용
4. 기타 조경비용

제42조 (보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 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의 입지·대지면적 및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
2. 생산제품·생산능력 및 생산시설등 생산에 관한 사항
3. 연료·원재료 및 제품의 수송에 관한 사항
4. 용수·전력등 지원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종업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43조 (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출자유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권한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과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 변경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명령등에 관한 사항
4. 법 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3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
11. 법 부칙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저지에 관한 사항

제4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 제 8 조 및 부칙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도지사는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 또는 설치중인 자의 공장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을 조사하여 이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 2 조제 2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별표 1 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법 부칙 제 2 조제 3 항의 “대통령령이 다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의 조성허가를 받은 것은 제20조제 2 호 “가”의 공장용지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법 제4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수도권내 공장건축 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지방공업개발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안에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업종구분	달성기간
1. 담배, 식료품제조업	1년
2. 섬유, 의복, 가죽산업	1년
3. 나무, 나무제품제조업	1년
4. 종이,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1년
5.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년
6. 박금속, 광물제조업	2년
7. 제 1 차금속산업	2년
8.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2년
9. 기타제조업	2년

[별표 2]

1.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제조업
2. 우유처리업
3.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식빵과 기타 빵 제조업
4. 얼음 제조업
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 직물제품제조업(직물포대 및 캔버스제품 제조업은 제외한다)과 편식의외 제조업
7. 의복제조업
8. 제재업
9. 목재전구제조업과 목재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10.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11.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과 레미콘 제조업
12. 연탄제조업 및 도시가스 제조업
13. 동일단지안에서 제 1 호 내지 제12호에 개기한 사업에 부수되어 행하여지는 제조업
14. 제 1 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제조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도시시민생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제조업

공업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업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대지면적등의 산정방법) 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호, 법 제7조, 법 제9조제1항제2호, 법 제11조, 법 제12조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

제3조(공장설치 신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서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장배치도
2. 공장대지지적도
3. 사업자등록증

제4조(공장설치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장의 소재지
2. 공장의 업종
3. 공장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
4. 공장의 준공예정일

②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장설치 변경신고서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또는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이하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설치신고확인서)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장입지의 의견회시)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에 관한 의견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그 의견을 주무부장관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지변경 또는 시설설치의 권고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변경등의 권고를 받은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권고의 응락 여부를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응락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그 통보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변경명령서)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변경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불응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설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보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신청서)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장신설·증설허가 신청서를, 공장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허가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1:25,000도시계획도)
2. 공장배치도
3. 공장대지지적도
4. 사업자등록증
5. 이전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공장 이전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의 경우에만한다)

③ 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신설·증설허가, 공장의 이전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공장이전허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허가신청서를 이전 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공장의 등록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등록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월내에 공장의 등록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공장의 이전명령서)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공업단지에정지정신청서) 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정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정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조성기본계획서
2.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조사서
3. 기상조사서 및 수질조사서(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4. 위치도(축적 1:25,000지형도)

5. 공장배치도

③ 제2항제1호의 공업단지조성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단지조성의 기본계획개요

2. 공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축적1:50,000도면을 첨부할 것)

3. 조성사업의 자금계획

4.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및 연차별계획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예정지정신청서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지정받은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자의 명칭
2. 공업단지의 위치·범위 및 면적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

제14조(공장이전신고서)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장배치도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

3. 이전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공장이전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는 이 전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신고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법 제25조제1항의 후단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장의 소재지
2. 공장의 업종
3. 공장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
4. 공장의 준공예정일
5. 공장의 이전시기

제15조(공장건설 완료보고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공장건설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상의 건축준공점사서

2. 공장배치도

제16조(검사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目 次

回 論 壇

新年 辞..... 2

HOTEL 機能의 空間分化에 對한 計劃論..... 柳榮進..... 3

유리심유 보강콘크리트와 그 性質..... 金亨杰..... 25

(國際會議에 다녀와서)

2001年の 生活과 職場을 위한 都市空間..... 金 源..... 37

□ 會員作品..... 39

金寬豐 韓珉洙 洪哲洙
 朴尙浩 安日成
 朴運旭 李廷仁

78適用 建築용생 改定·補完 要旨..... 都強會..... 54

建築法中改正法律

建築士法中改正法律..... 57

住宅建設促進法改正法律..... 67

海外作品..... A+U..... 80

消防施設細部早見表..... 86

會員動靜..... 88

月間協會動靜..... 89

建築許可統計..... 89

表紙說明：도깨비무늬·봉황무늬·연꽃무늬·구름무늬·구름무늬·벽돌·鬼面文
 鳳凰文·蓮花文·雲文博 (宝物343)
 百濟時代：도깨비크기 28cm×28cm 두께 4.3cm
 봉황크기 29cm×29cm 두께 4.3cm
 연꽃크기 29cm×29cm 두께 4.3cm
 구름크기 28.5cm×29.2cm 두께 4.3cm

目 次

回 論 壇

세계 최대 건축의 경향들 ②..... 趙英武..... 2

기술적 완벽

国土綜合 開發計劃과 經濟成長..... 盧椿熙..... 13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정책의 문제점..... 姜錫源..... 20

(특히 프랑스의 例와 비교하여)

□ 會員丑一나..... (세 가지 實情)..... 俞景哲..... 22

會員作品..... 23

金 仁 錫 朱 漢 烈
 鄭 祥 鳳 李 祖 源
 尹 鳳 源

紀行文(中東을 다녀와서)..... 曹熾鎭..... 37

技術資料..... 建築構造設計에 關한 小考(4)..... 鄭日榮..... 43

改正建築法 및 同施行令 解說..... 李榮玟..... 49

建物の 壽命과 解体工法(2)..... 徐大烈..... 53

建築工事 標準示方書 改正·補完內容..... 李龍雲..... 61

■ 海外作品..... A+U·日本池袋sunshine city..... 67

會員動靜..... 85

月間協會動靜..... 87

建築許可統計..... 88

建材세리즈..... 90

表紙說明：龍무늬·飛天무늬·기린무늬의 印각세
 龍文·飛天文·麒麟文平瓦當 (國立慶州博物館藏)
 統一新羅時代：上. 길이 29cm, 폭5.5cm
 中. 길이 25cm, 폭7.1cm
 下. 길이 33cm, 폭6.2cm

月刊 建築士

1978. 4

目次

會長就任辭	2
77年度 第1回 臨時總會	3
新任 任員名單 및 略歷	4
月間協會 動靜	5
協會記事	6
☐ 論壇	
韓國古代伽藍 配置新考	金正基
서울特別市 美觀地區 審議委員會議의 実情	姜明求
身體障礙者를 爲한 建築施設	李鍾金
世界現代建築의 傾向들 ④	趙英武
建築構造設計에 關한 小考(5)	鄭日榮
英國의 太陽熱 에 너지 利用에 關한	鄭尚頌
現在の 研究와 未來의 展望	
會員作品	59
金 技 泰	朴 南 俊
朱 寧 伯	宋 基 成
宋 長 福	
海外作品	A + U
會員動靜	71
建築許可統計	84
建築許可統計	89

表紙說明： 연꽃무늬수막대 통일신라시대 국립경주박물관

지름 상좌 16cm 하좌 16cm
상우 15cm 하우 15cm

月刊 「建築士」

1978. 3

目次

토우탈·디자인 (TOTAL DESIGN)	金熙春
Welton Becket 그의 生涯와 哲學	
国土綜合開發計劃과 經濟成長(2)	盧椿熙
世界 現代建築의 傾向들 ③ - Brutalism	趙英武
中東紀行(2)	曹鉄鎬
☐ 會員作品	
李 丞 雨	金 正 澈
金 寬 旭	柳 承 根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 改定令	49
月間協會動靜	64
海外作品	A + U
會員動靜	85
建築許可統計	89

表紙說明： 탐·부처무늬벽돌 塔像文庫
統一新羅時代·現長20cm·두께6.2cm
서울梨花女大博物館藏

1978. 6

目次

□ 建築界三団体懇談會	2	
協會記事	4	
建築法은 어떻게 變遷하여 왔는가	李文輔	5
住宅問題에 대한 小考(아파트를 中心으로)	金眞一	11
故郷은 멀리서(美國生活斷想)	安秉義	17
世界現代 建築의 傾向들	趙英武	20
鉛板을 利用한 建築構造	李璟會	24
老人과 身體障礙者를 위한 設計基準	鄭宰泳	30
(스코트랜드 建築基準紹介)		
世宗文化會館 文講堂 建築音響設計	崔炳虎	36

回 會員作品

가) 경기 반공회관	홍철수(한국건축문화연구소)	45
나) 리도백화점	박길남(태아건축설계)	
다) 코리아스파이서 본사	김동숙(주일건축사무소)	
라) 구미공업기지 옥외 수영장	양영호(정한건축연구소)	
마) 장훈배장로교회	손종모(부친합동사무소)	
바) 영동K제맥	김학신(성신건축연구소)	
사) 서울세종문화회관	연·이 건축연구소	
設計資料	(세종문화회관 상세도)	63
海外作品	프랑스편	72
改正建築士法에 관한 앙케이트		
會員動靜		87
建築許可統計		

1978. 5

目次

協會記事	2	
會員動靜	6	
佛敎建築計劃에 관한 研究	金正秀	8
第2次文芸中興 5 個年計劃立案을 위한 公關討論會發表文中 文化一般	金璟東	18
美術	李逸	23
都市計劃施設 設置基準(3)	尹定燮	26
元老建築人招請學術세미나	朴學在	31
綜合藝術 運動과 建築	金東柱	32
建築設計事務所論	安仁模	38
隨想		40
道路交通의 騒音防止	李龍雲	42
世界現代建築의 傾向들	趙英武	47

會員作品

住宅 영동 L 씨력	黃一仁	55
住宅	姜純一	
首都女子師範大學大講堂	金忠得	
清涼里 第1 安息日 教會	成計哲	
韓國特殊工業社屋	徐忠錫	
韓國電氣安全公社 本社屋	金學錫	
始興郡庁庁舎	朴成圭	

海外作品

A + U	71
建築許可統計	89

協회가 가이한 결심결에 서서 金斗燮 2 ~ 3
 協會記事 4
 月間協會動靜 5
 會員動靜 6
 建築行政相談 (서울支部編) 7 ~ 21
 建築士合同方案研究委員會議 22

精巧·精密·美麗한 施工과 維持管理 張起仁 23 ~ 30
 都心の 機能(2) 盧椿熙 31 ~ 38
 住宅·室内디자인 展開 尹道根 39 ~ 41
 建物診斷 吳昌熙 42 ~ 45
 未來變化에 對処하는 學校建物の 適應性과 劉香山 46 ~ 52
 融通性에 關한 研究의 分析
 建築環境의 保護와 建築家의 役割 李在玉 53 ~ 56
 自然과 藝術 (會員코너) 姜斗錫 57 ~ 58

會員作品 59 ~ 73
 가) 누하동 운씨벽 金琪碩(아람건축연구소) 59
 나) 진실직업훈련소 宋基德(정일엔지니어링) 60
 다) 오림포스관광유원지 李廷仁(삼협건축공사) 61
 라) 부산市立博物館 李喜泰(엄이건축연구소) 62
 마) 建築士의 證 張宗律(진우사건축연구소) 63
 바) 신대방동 K씨벽 鄭 昭(홍진건축연구소) 64

標準示方書改正研究委員會議 74
 海外作品 A + U 75 ~ 84
 資材展示廣告 85
 建築許可統計 86 ~ 87

1978年度 第2回 臨時總會 2
 月間協會動靜 4
 會員動靜 5

回 論壇
 都心の 機能 盧椿熙 7
 先史時代 살림집의 構造에 대한 研究 金鴻植 15
 生活慢筆 尹太鉉 28

回 會員作品 31
 車 東 康 李 康 植
 朴 康 平 朴 商 浩
 金 寅 寅 培 大 魯
 韓 玼 洙 聖 萬
 住居雜記 李鶴榮 51
 우르비노와 루네상스建築 朱南哲 53
 앙케트 ② 57
 建物の 氣密性 李聖國 63

海外作品 프랑스(2)+(A+U) 68
 建築行政相談
 建築許可統計

□ 建築行政機構 改編을 促求한다 金熙春 2
 協會記事 4
 建築士法 施行令 改定令 10

第13周年 紀念 學術討論主題論文

建築許可制度 李文輔 16
 建築設計審議 金眞一 19
 建築工事監理 李明煥 23

病院建築78. (2) 金東柱 26
 學校建物の 適応性と 融通性研究分析(2) 劉香山 30
 屋外騒音과 防止 李聖國 36

(特輯) 創立13周年 紀念大賞 施賞作品 및 1977~1978

1年間 會員作品 紙上展 39

建築行政相談 63
 構造計算을 하기위한 電子計算機에 관하여 鄭日榮 75
 創作人과 共同意識 姜斗錫 78
 建築法令 및 建築案例參考文案內 서울시지부 80
 海外作品 A+U 85
 建築許可統計 89

大統領談話文 ... 「汎國民貯蓄生活化運動」에 즈음하여 2
 貯蓄成功事例發表 金斗燮 4
 協會記事 6
 月間協會動靜 7
 會員動靜 8
 서울건 축사 마을규모 설립을 기메하면서 宋竟植 10
 새로운 意志와 方向 開拓으로 協會活氣 金萬盛 13
 回復을
 建築士法 施行令 改정을 대비한
 각 시도지부의 의견 15

「協會가 가야할 갈림길에 서서」를 읽고 19
 病院建築—78 金東柱 21
 風水地理說과 建築計劃 朴時翼 29
 太陽에너지를利用 메탄가스發生 尹太鉉 41
 淨化槽에 依한 暖方方式
 會員作品 51

구미시청사 金仁鎬 (배 아전숙)
 김 씨 맥 張民秀 (지구전숙)
 식 당 金英其 (한라전숙)
 雪 嶽 門 金寅培 (강희설계)
 銀 行 柳承根 (신건축설계)
 과 학 관 車東明 (차 전 숙)
 연립주택의 일반적 고찰과 개발방향 許範入 67
 日本의 民家(東京地方民家の 平面構成) 박언근 76
 建築行政相談 80
 海外作品紹介 90
 뉴욕에 세워진 最高의 세로운 오피스 타워
 citicorp center
 우수 축재전시 및 자재총람 발간안내 100

1978. 72

目 次

1978年度 第3回 臨時總會	2
會員動靜	3
■ 特 輯	
韓國建築家協會 78年度 建築討論會 基調論文	5
가. 進化하는 建築對象과 建築家の 職能	
나. 建築教育의 目標	李光魯
다. 建築創造와 文化의 媒介問題	李海成
라. 우리時代의 建築家—그存在形式에 관하여—尹承重	金壽根
意見論文	
가. 變化하는 建築對象과 建築家の 職能	趙英武
나. 建築教育의 目標	金熙春
다. 建築創造와 文化의 媒介問題	安英培
라. 우리時代의 建築家—그存在形式에 관하여—尹道根	康柄基
建築體系를 通해서 본 形態構成과 表現方法	朱鍾元
紀行文(U. I. A)를 다니와서	尹道根
計劃住宅地의 施設供給에 대하여	崔昌奎
風水地理說과 建築計劃	朴勇模
會員作品	朴時翼
各大学 建築科巡訪	弘益大学校編
建築士法施行規則	82
海外作品	(A+U) 84
建築許可統計	99

197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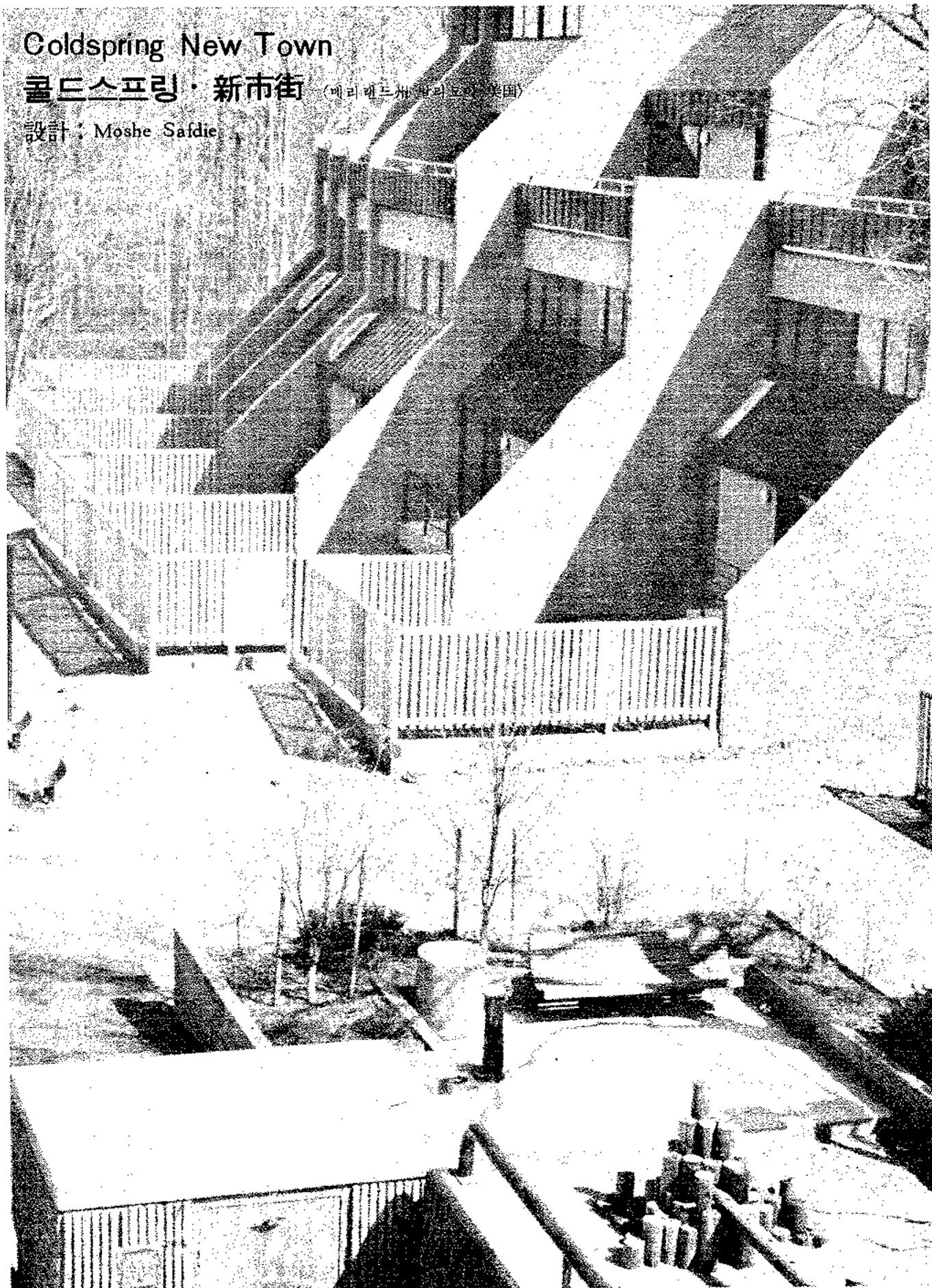
目 次

會長人事말씀	2
1978年度 庶政刷新促進大會 및 第13回 定期總會	3
1978年度 監査報告	5
會員動靜	7
月間協會動靜	9
朝鮮後期서울·京畿地方上流住宅의 平面構成에 대한 研究	金鴻植
建築構造 理論의 發展과 課題	李甲造
<會員코너>	
第1期 建築士研修教育受講記	安箕泰
(三日間の 教訓)	
不條理 克服을 위한 提案	林潤東
第2政府綜合庁舍懸賞設計當選作	31
各大学建築科巡訪	国民大学編
建築法施行令中改定令	47
建築法施行令 解説	56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中改定令	63
建築行政相談	(서울市支部編) 77
海外作品	A+U 88
建築許可統計	99

Coldspring New Town

콜드스프링·新市街 (메리랜드주·살리모어·美国)

設計: Moshe Safdie





集合住宅設計에 있어 다음 세가지 重要한 크라이테리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個個 住居의 同一性의 表現 둘째, 適切히 相互生活의 一部가 「본다」「보인다」라고 하는 關係에 있는것.

셋째, 居住자들이 自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獨自的 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등 세가지 점을 들수 있다.

이들 “크라이테리아”가 設定되어지는 根底에는, 大地에 接한 獨立住宅이 갖는 利點을 斷念시켜 모여서 산다는 狀況이 생기는 때의 되돌아보는 條件으로서의 意味가 깃들여 있다.

獨立住宅이 갖는 利點으로는 그 表面 또는 外皮가 모두 大氣에 面하고 있다는 것일게다.

그것은 太陽빛, 바람, 비에 露出되는 面積이 크다는 것 즉, 住居를 하나의 生物에 比유하자면 그 皮膚呼吸面積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居住者의 個性이 그 住居의 表情이 되기 쉽다는 것 自己主張이 比較的 容易 하다는 것 과도 通한다.

이와 같은 獨立住宅이 갖는 特色을 어떻게 集合住宅속에 導入시키느냐 하는 것은 集合체속에 어떻게 個個의 同一性을 表現할 것인가가 向題인 것이다.

各住戶(戶口)의 同一性이라는 個別性의 追求와 모여서 산다는 것의 根底에 흐르는 匿名性, 經濟性과의 사이에 相互矛盾을 어떻게 調和 시키느냐 하는 것은 集合住宅의 하나의 큰 要點인 것이다.

다음으로 適切히 「본다」「보인다」와 같은 關係는 獨立住宅이 갖는 性格과는 相反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集合住宅 만이 갖는 貴重한 利點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都市性, 相互의 適切한 視線의 交差가, 社會意識을 育成한다는 安穩한 생각으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산다는 事實에서 발생하는 現象으로서 居住者 相互의 適切한 緊張關係를 계속할것이다.

마지막 獨自的인 것은, 人間누구든지 他人과 같다는 것 보다는 보다 個性의 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自己들이 살고 있는 곳이 獨自的 이기를 바라는 意識이 있다.

먼저 技術한 同一性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住戶(戶口)를 單位로 하는 個의 主張을 意味한 것이 었으나, 여기서 말하려는 獨自性은 集合住宅의 居住者全體의 同一性을 確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은 “크라이테리아”를 通해서 콜드스프링의 맥·타운 하우스를 볼때 그 獨自性, 즉 全體의 同一性을 表現하고 있는 것은 中央을 달리는 덱크 일 것이다.

이 덱크를 中心으로해서 거기에서 個個의 同一성과 「본다」「보인다」와 같은 關係가 成立되어지고 있다.

一般的으로 集合住宅 全體의 同一性을 表現하는 方法으로서 하드갯치(그境界領域을 明瞭하게 周圍와 區別하는)方式이나, 교아方式(集住體의 中心이 될수 있는 特色 있는 場의 形成)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分明히 後者의 교아形式인 것이며 이교아로서 덱크가 採用되어 지고 있다.

住戶(戶口)單位에 垂直으로 區別된 界壁, 덱크에 突出한 住戶에 의 直接 아프로-치 階梯, 個個의 住戶의 廊行等은 個個의 住戶(戶口)同一性을 表現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逆流(逆流)시킨 断面은 個個의 住戶에 對해 보다 많은 外氣接觸面을 부여할뿐 아니라 스케일을 작게 分割시키는 役割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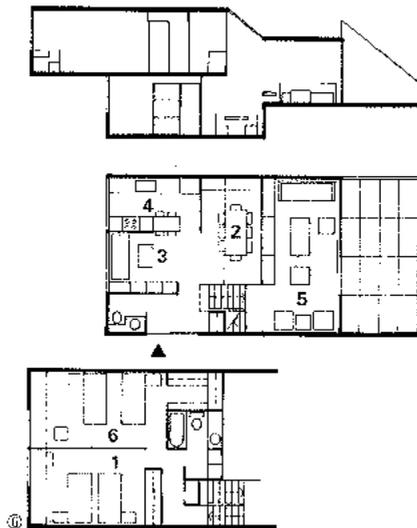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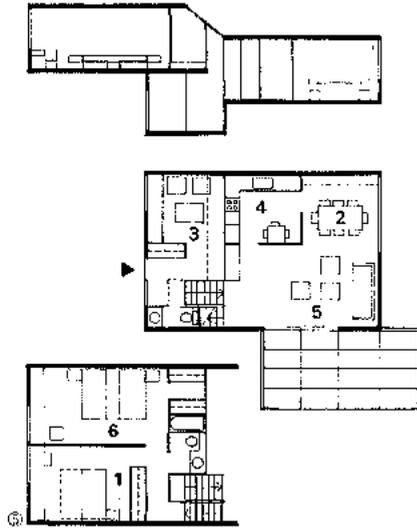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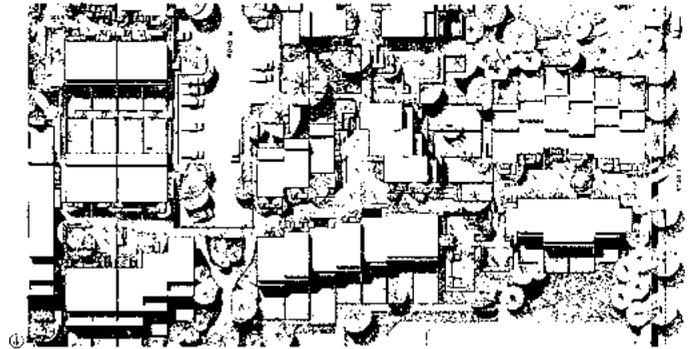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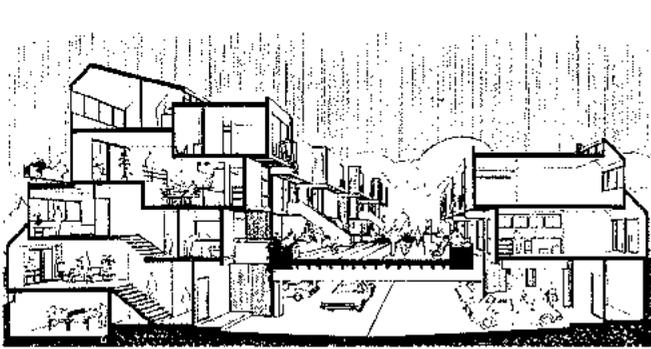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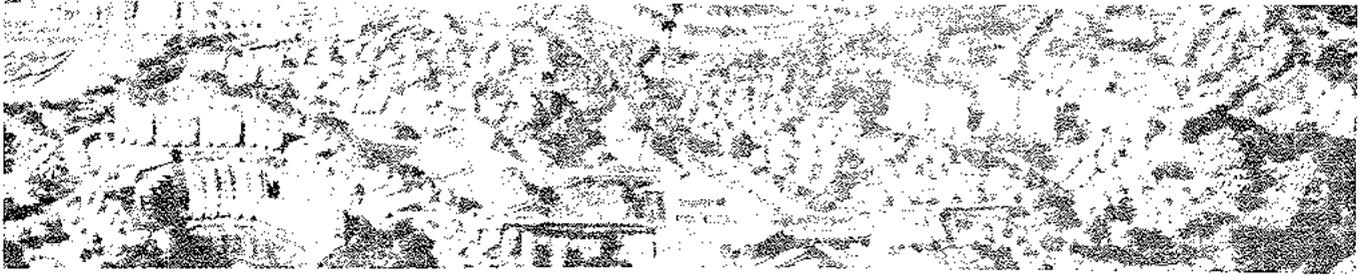
덱크에서는 2층 부분의 住戶의 居室, 食堂, 부엌의 一部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駐車場의 車輛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逆으로 各住戶內에서는 덱크를 通하는 사람들이나 아프로 치階段을 오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맞은편의 住戶속의 一部가 낮은 담사이로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레벨이 틀리는 視線의 交差가 推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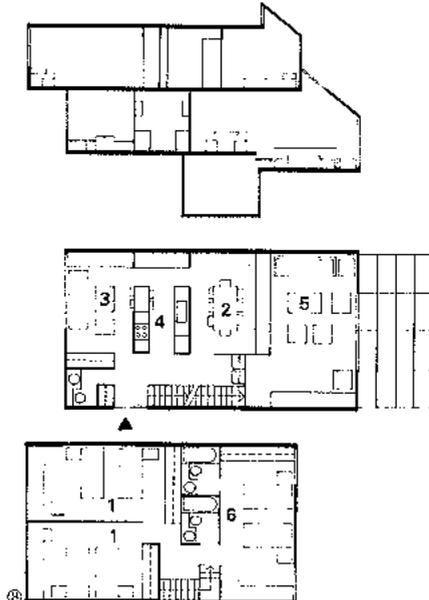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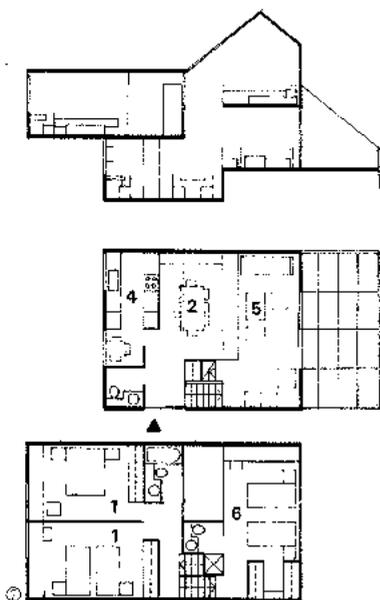
이와 같은 相互의 視線의 交差는 私生活의 確保라는 集合住宅에 있어 重要한 要素와 相反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참뜻으로의 私生活이란 그사람이 혼자 있고 싶을때 그와 같은 空間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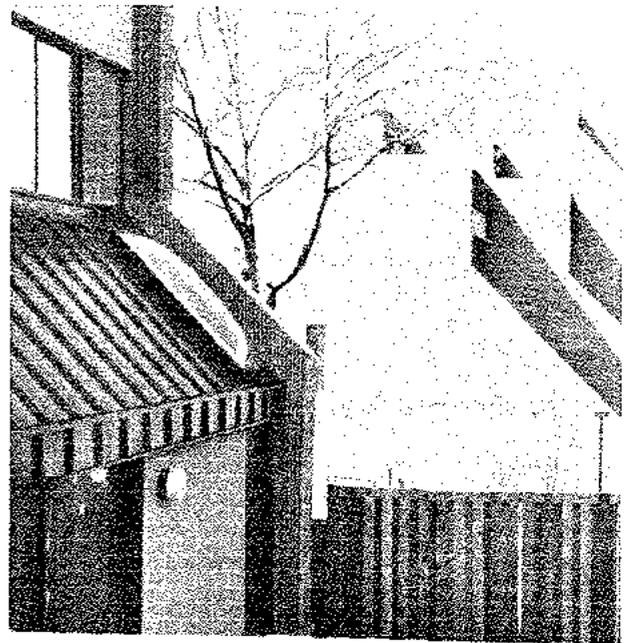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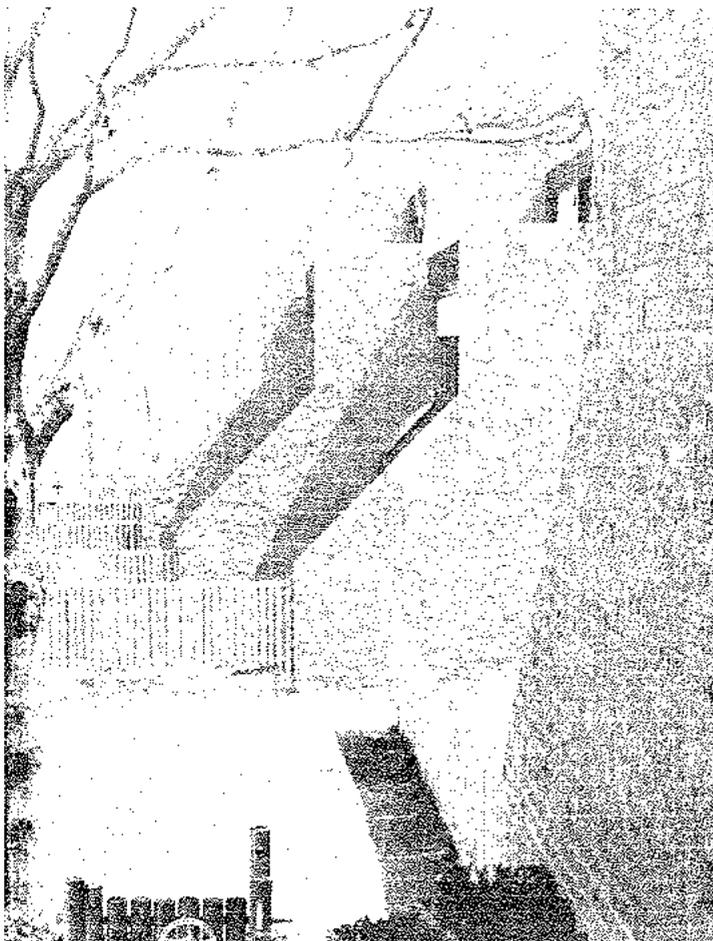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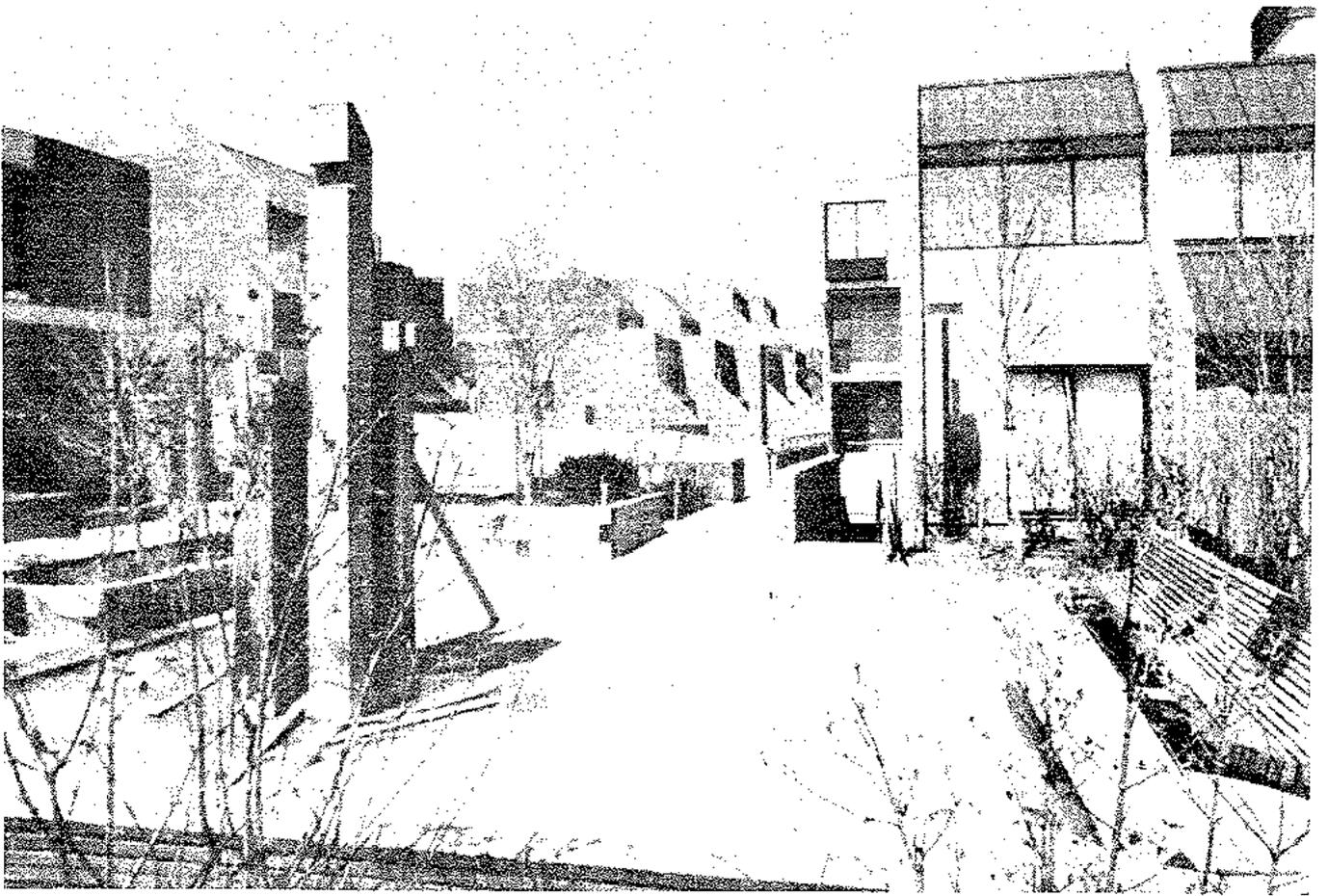
이와 같은 意味로서는 덱크쪽에 寢室一部가 面하고 있는 平面構成에 약간의 強制性을 느끼게 한다.

現在로서는 두부력만 建設되 있으나 当初計劃대로 約 1,000戶의 덱크, 다운하우스가 完成되어질때 이 덱크에는 相當한 活氣가 발생하여 設計者가 意圖했듯이 都市性을 지닌 場으로서의 機能을 갖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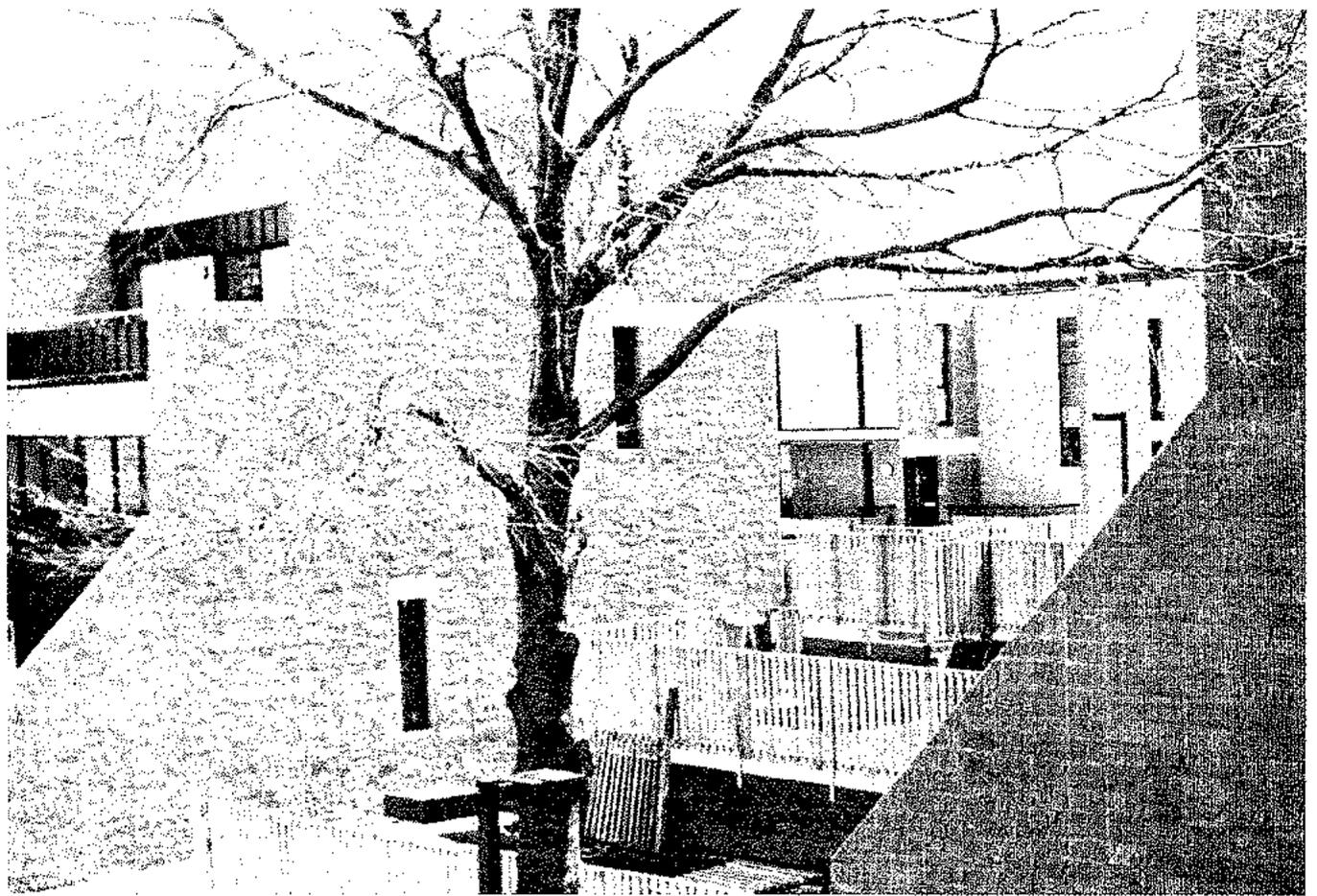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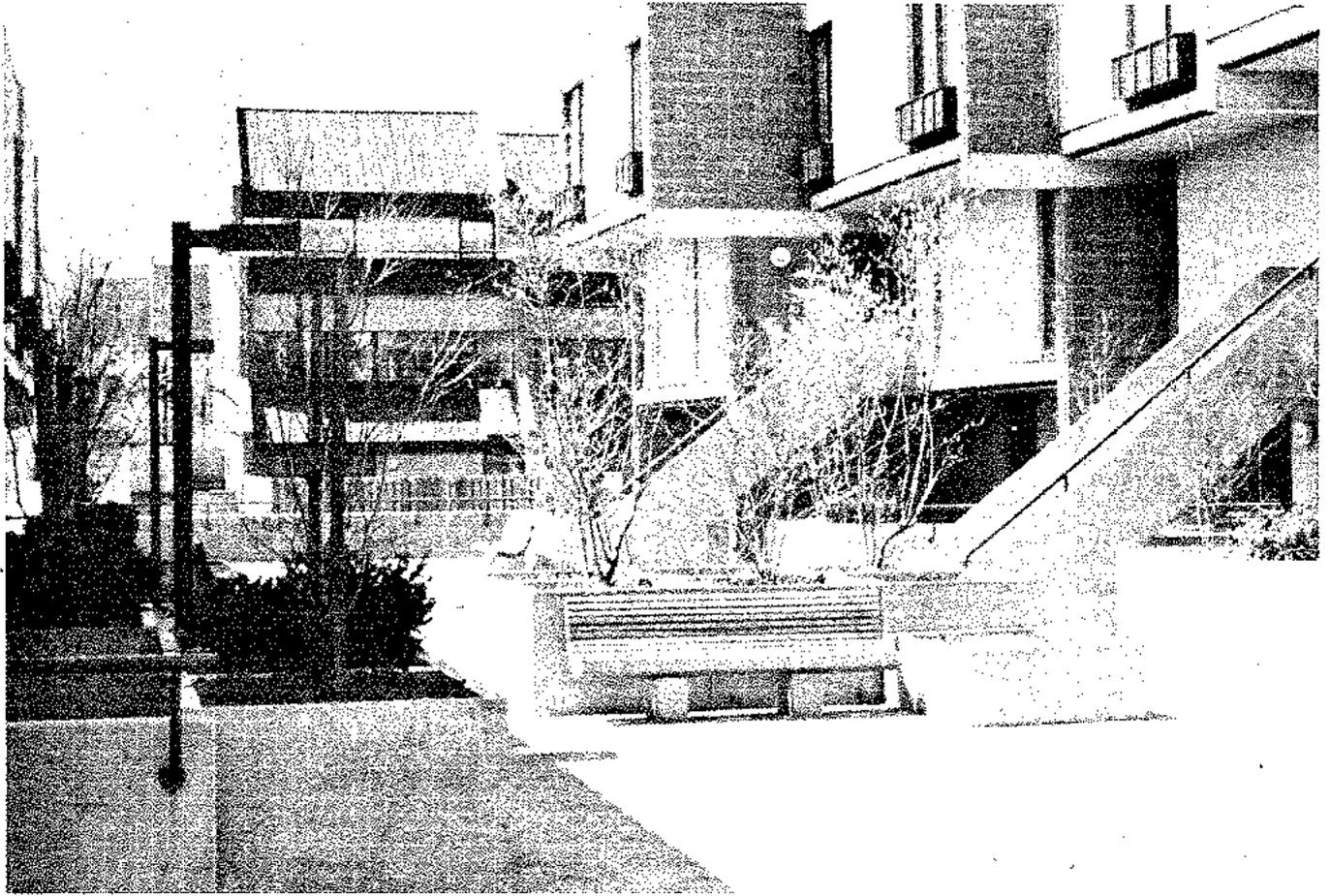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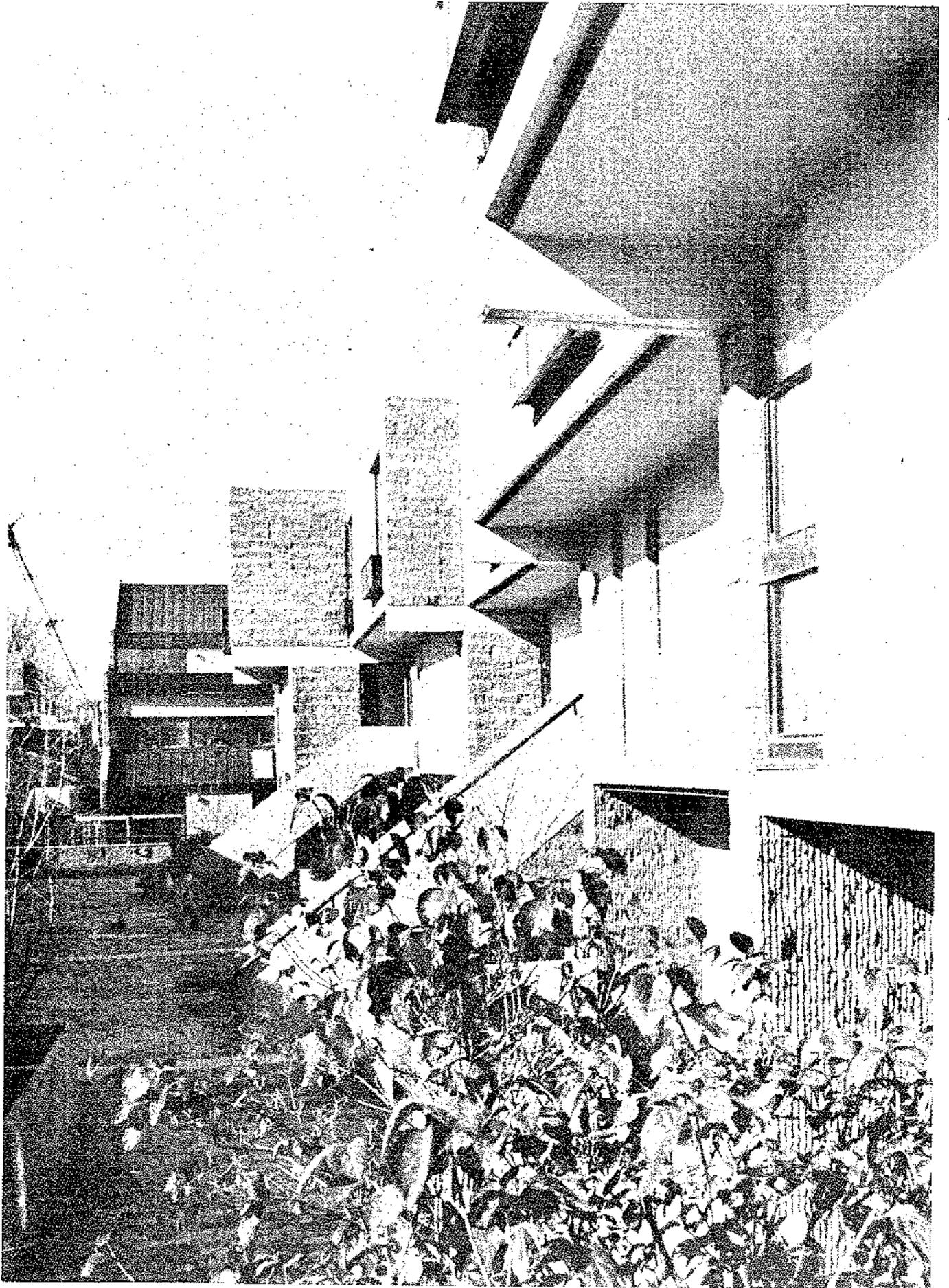
- 13P - 外視, 뜰에서 본다.
 ② 쿨드스프링·신시가
 全体模型
 ③ 맥크·다운하우스 断面圖,
 中央이 맥크
 ④ 現置圖單位 配
 ⑤~⑧ 基本平面圖
 ⑤⑥ - 2 침실유닛드
 ⑦⑧ - 3 침실유닛드
 1 - 침실
 2 - 식당
 3 - 가족실
 4 - 부엌
 5 - 거실
 6 - 주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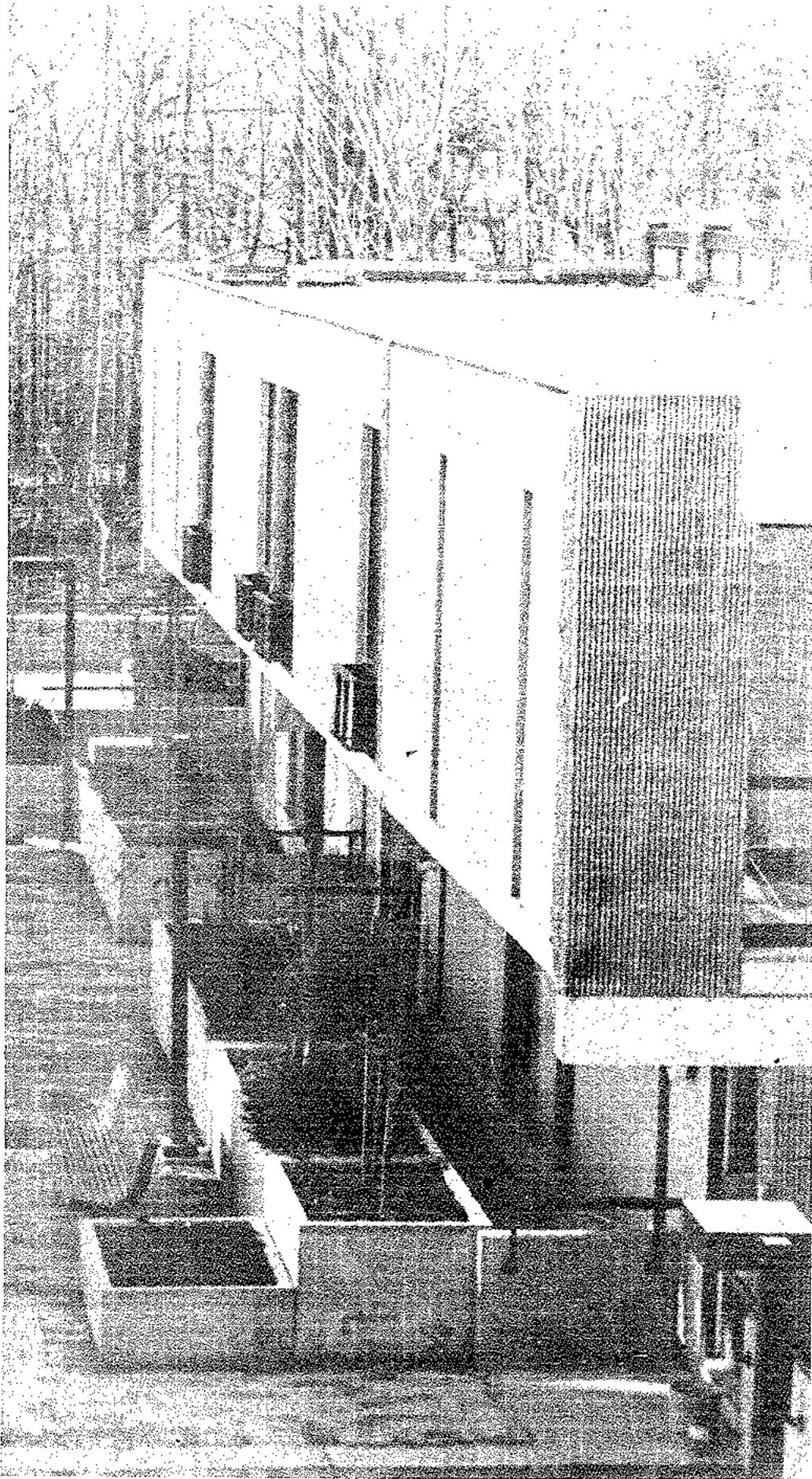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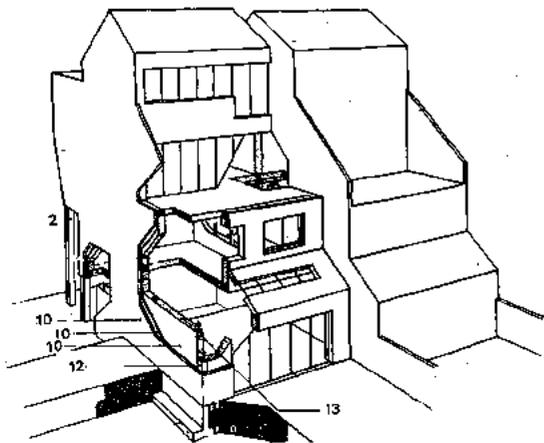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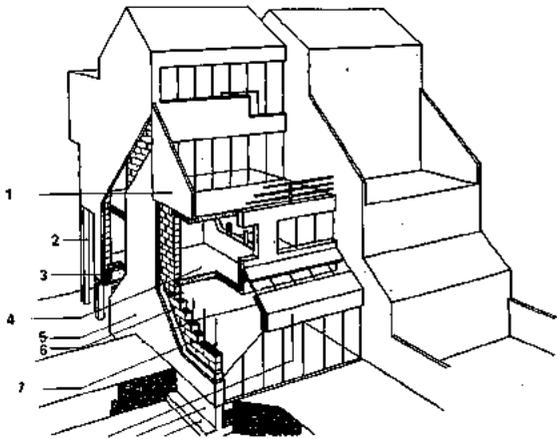
- ⑨ 概視. 정원에서 본다.
- ⑩ 外視 정원에서 본다.
- ⑪ 정원側 外部詳細
- ⑫ 外視 테크쪽을 본다.
- 「여기서는 各樣의 레벨의 視線의 交差가 推側된다」
- ⑬ 정원쪽에서 테크쪽을 바라본다.











⑬⑭⑮⑯ 맥크록 外部詳細

⑰ 맥크 하우스- 一般構造說明圖

⑱ 맥크하우스 패널시스템說明圖

1. 非構造壁
2. 콘크리트拄
3. 콘크리트 보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트리스

5. 프리캐스트 벽패널

6. 斷熱材

7. 콘크리트 메-손리-유닛트

8. 斷熱材가 들어간 프리캐스트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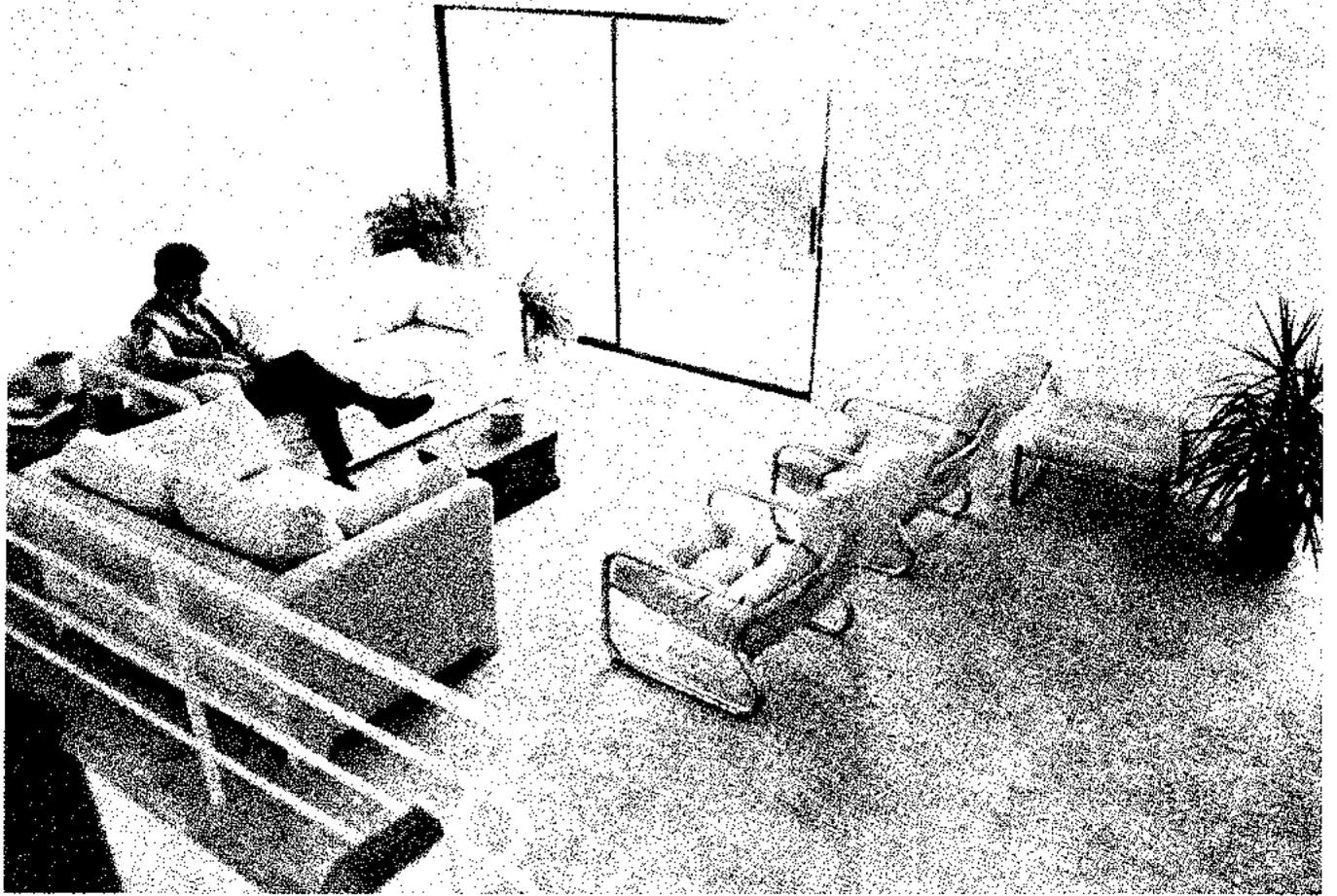
9. 후-팅 (Footing)

10. 外壁 마감

11. 콘크리트

12. 現場打콘크리트 조인트

13. Shear Connector 13.



① 内部 居宅을 본다.
 ② 두 부력의 데크·타운하우스

Soldati Housing

솔다티集合住宅

設計：STAR FF

低層의 建物은 鮮明한 U字型으로 나타나 그것이 街路를 좁혀 連續하는 明快한 System으로 構成되어 있다.

全体로서는, 1,410의 2寢室住居, 1,110의 寢室住居, 490의 4寢室住居, 150의 5寢室住居가 建設되며, 17,880人의 住民을 收容한다.

이 計劃에는, 몇몇의 작은 스케일 그것은 住居單位로서 街路이며 街路欄이며, “구라스타”의 생각이나 都市的인 「微氣象」을 만들어 내는것. “구라스타”에 있어 住居單位를 各已分雜해서 秩序있는 全体의 構成中에 變化를 줄것 등이 意圖되고 있다.

住居群은 高層의 建物과 低層의 建物로 形成되어 있다. 高層의 建物은 4邊形으로 配置되어, 短邊의 일부는 自動車用的 通路로서 開放되어 있다.

이 하나의 4邊形은 이웃하고 있는 4個棟으로 構成되어 있고 4個의 코너에 設置되어진 4個의 에레베이터에 의해 住所는 4個의 區域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區域은 各層모두 16戶의 住居를 收容하고 있다.

住區의 全体計劃은 短形의 敷地의 對用線方向으로 住居群을 配置하여 中央에 Shopping Center를 두고 있다.

住居는 北, 東, 西의 3方으로 正面을 갖고 北쪽에 低層 區域, 南쪽에 高層區域이 計劃되어 있다.

對用線의 方向配置와, 이 住居의 方位는, 알제틴이 南半球의 나라이고 해서 日照의 條件을 重視했다고 한다. 地理上條件에 依해서, 全体計劃 속에 最少의 單位를 形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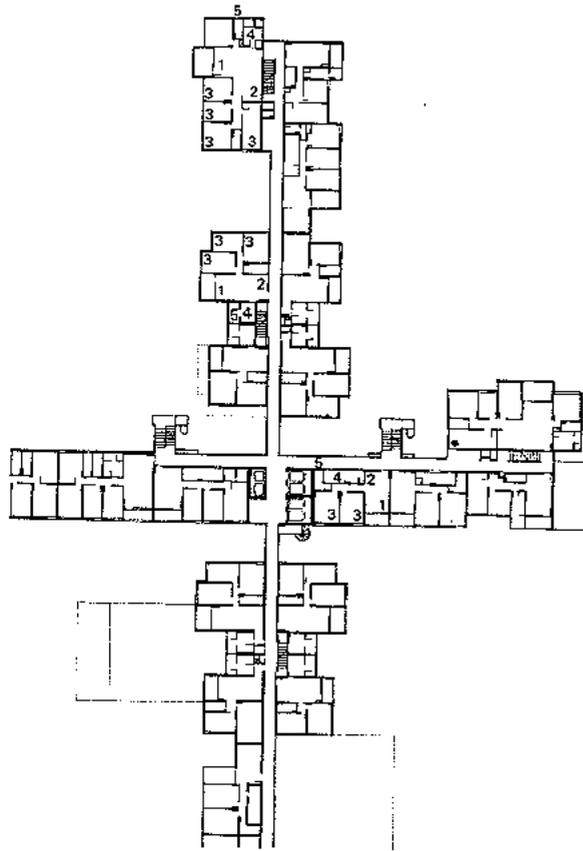
이 單位는, 環境을 생각하는 最少의 것으로 생각되어 計劃의 主目인 都市의 「微氣象」을 鮮明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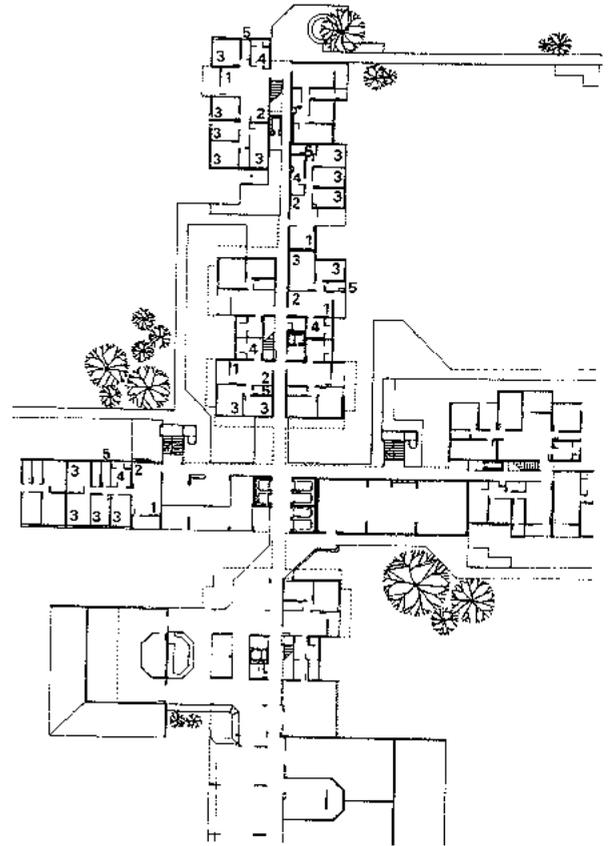
① 鳥瞰写真

② 配置圖

1. 운동장
2. 사회 복지 센터
3. 상업지구
4. 保留地區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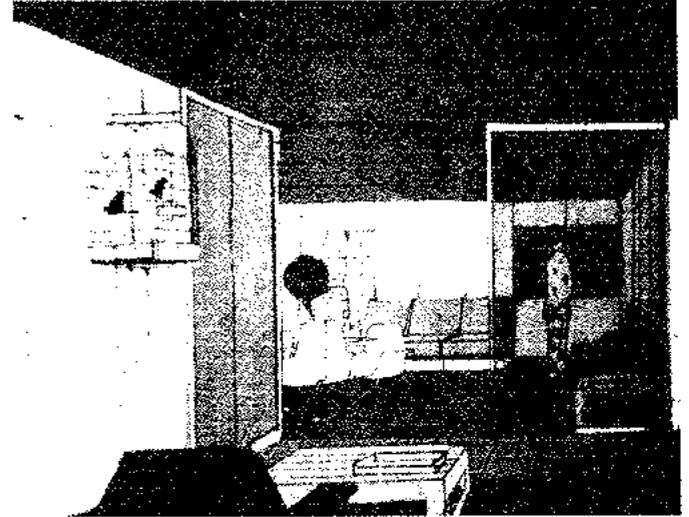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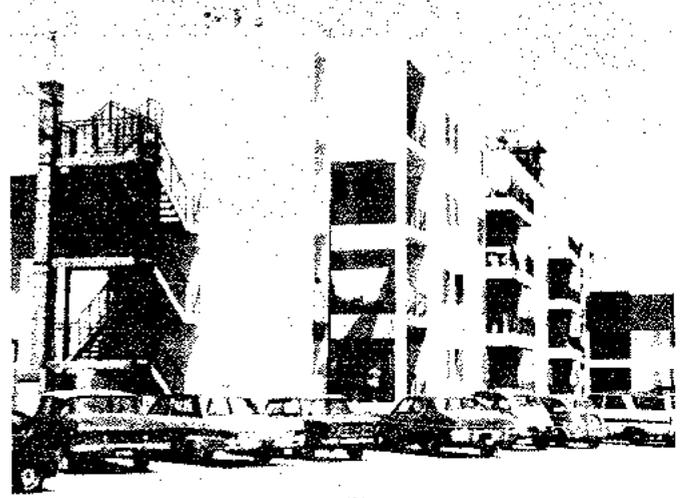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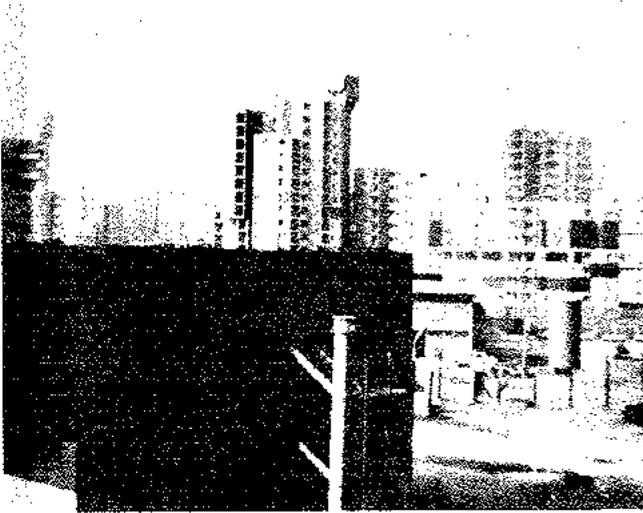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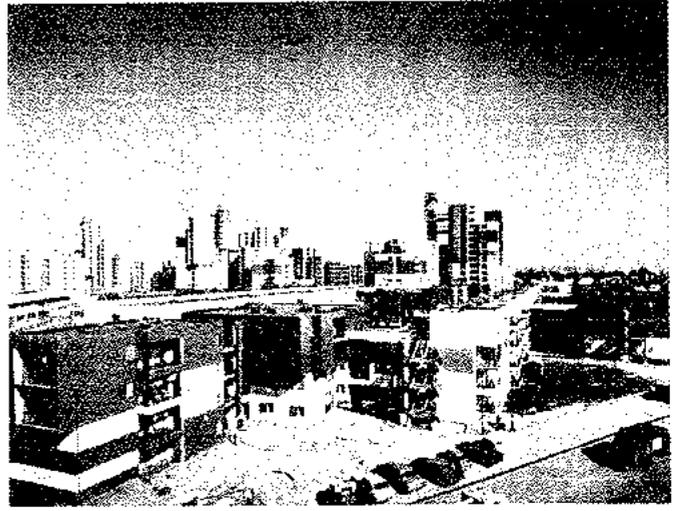


④



⑤

- ③ 高層棟 7層平面図
- ④ 高層棟 1層 平面図
- ⑤ 低層棟 単位 1層平面図
- 1. 居室
- 2. 食堂
- 3. 寢室
- 4. 부엌
- 5. 浴室
- 6. 食堂, 부엌
- A. 2침실 단위
- B. 3침실 단위
- C. 4침실 단위
- D. 5침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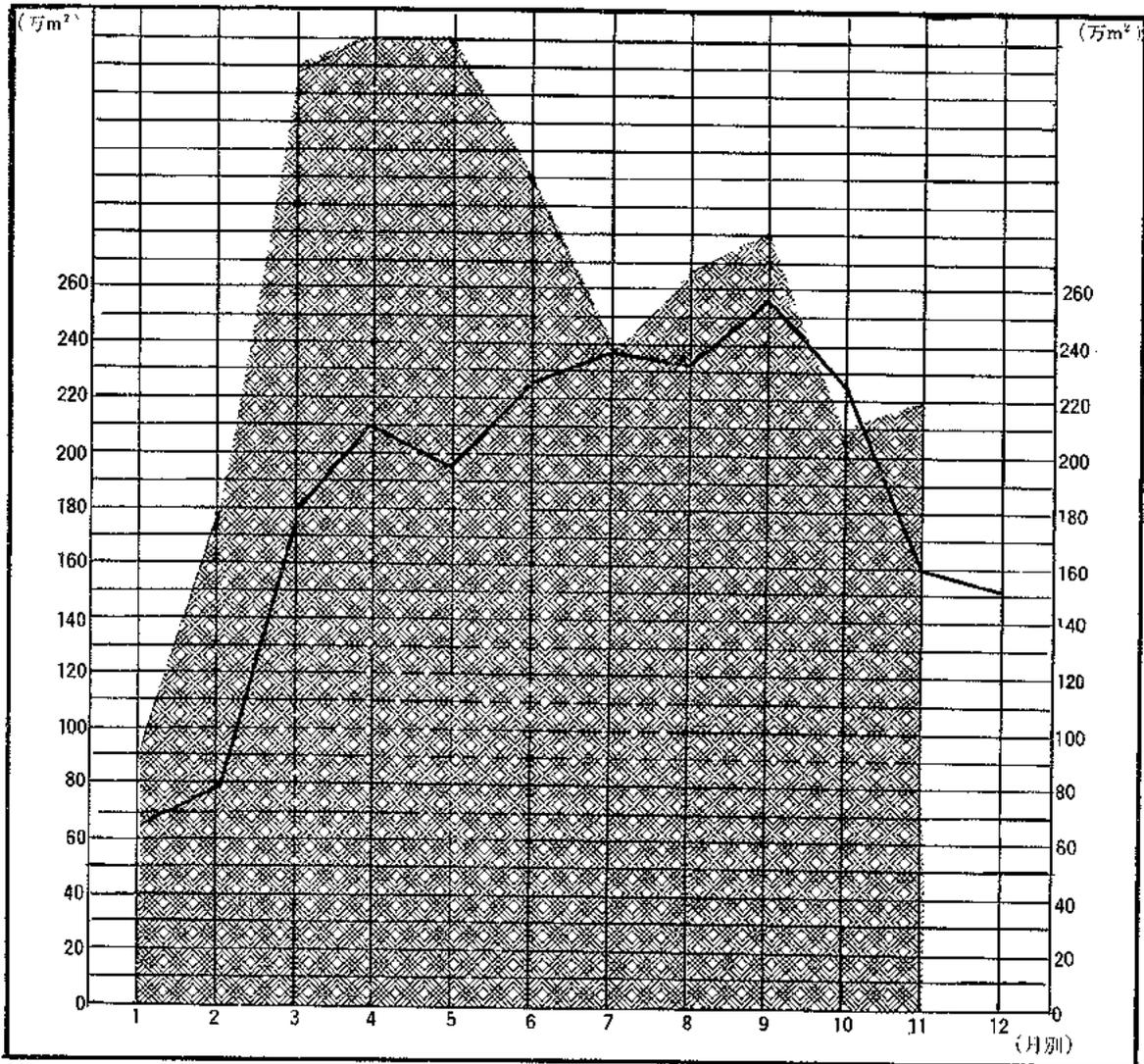


- ⑥ ~ ⑨ 概観
- ⑩ ~ ⑪ 内部
- ⑫ 断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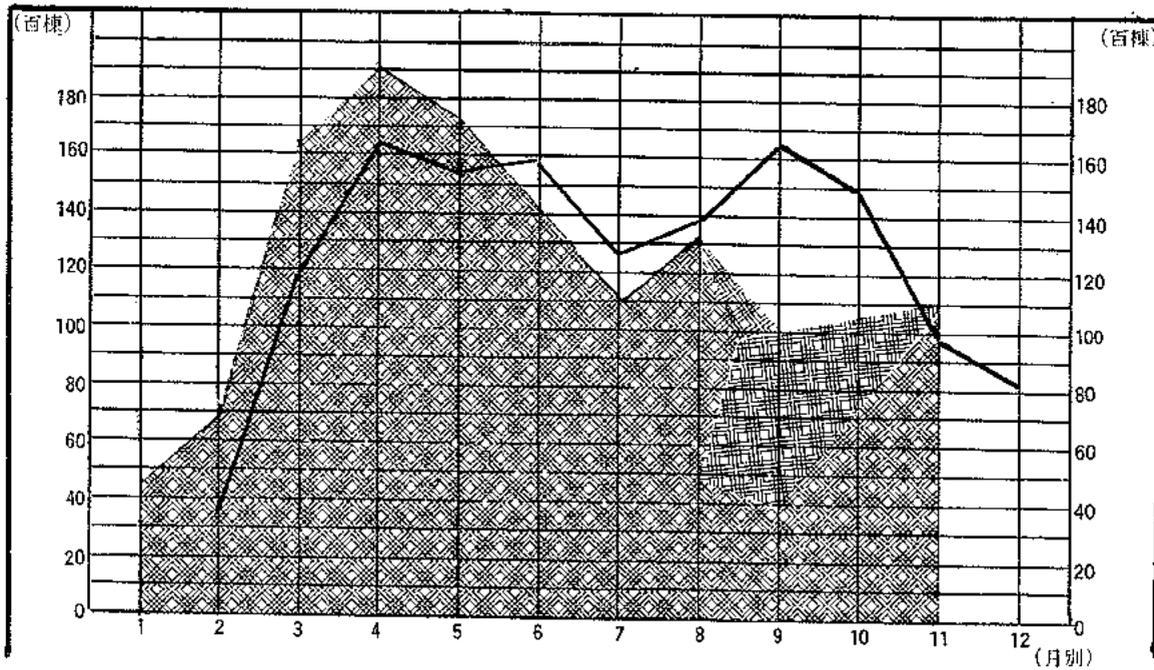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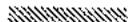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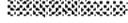
(1978년 11月分)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1978 
 1977 

構造別 許可統計

棟数(千棟)										(延面積:千m ²)										
10	9	8	7	6	5	4	3	2	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棟数(千棟)										(延面積:千m ²)										
10	9	8	7	6	5	4	3	2	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棟数(千棟)										(延面積:千m ²)										
10	9	8	7	6	5	4	3	2	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棟数(萬棟)										(延面積:萬m ²)										
10	9	8	7	6	5	4	3	2	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31,042										20,792,690
										140,503										28,918,710

139.2%

(일본 기술을 도입)

콘크리트, 몰탈, 푸라스타(石灰) 防水·防濕用

하이너-루 防水劑

수성페인트混和劑

사용후 다시찾는 防水工의 마약

◆ 特徴·利點 ◆

- * 防水콘크리트로 母体防水가 可能함.
- * 塩類, 酸類에 強하며 金屬性부식이 全無.
- * 用途가 다양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 * 防水, 防濕, 防腐效果는 100%이다.
- * K. S 規格에 맞은 優秀品質.
- * 수성페인트 混和劑는 100% 방수효과를 낸다.
- * 價格低廉, 經濟性이 倍加.

◆ 用 途 ◆

- * 터-널 地下室 屋上 벽체 욕실防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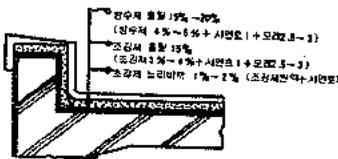
◆ 사용 법 ◆

- * 콘크리트용은 : 시멘트중량비 2%이상.
- * 몰탈용은 : 시멘트중량비 4%이상
- * 석회용은 : 석회중량비 4%이상.
- * 使用水量에 混和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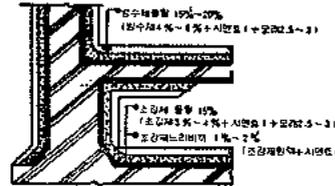
◆ 제품성능 ◆

- * 국립건설연구소(KS규격에 합격), 대한주택공사(KS규격에 합격), 국립공업시험원(KS 규격에 합격), 쌍용레마콘시험실(強度시험), 日本工業規格(JIS)에 의한 시험성적이 品質을 보증함.

① 屋上, 베란다等 防水工法



② 地下室等 防水工法



하이너-루工法에 의한 소요재료

재료 면적	시멘트	모래	하이너-루원액소요량			비고
			조강페스트	조강물질	방수물질	
100M ²	(42.75포) 1,710kg	3.0M ³	70%	3%	4%	기준량 이 상 첨가요
			42kg	27kg	30kg	

※ 방수콘크리트는 시멘트 중량비 2%이상 첨가.

예 : 320kg(1 M²) × 2% = 6.4kg (하이너-루방수제)

四季節 土木建築工事を 용이하게하는

하이너-루 防凍劑 早強劑

시멘트混和劑의 最新·最優秀製品

◆ 特徴·利點 ◆

- * 1日, 3日, 7日 強度가 보통 콘크리트 3日, 7日, 28日 強度와 同一.
- * A, E劑, 減水劑, 分散劑役割
- * 工事費의 減少, 工期短縮, 凍害防止.
- * 強度增大로 Cement 절감.

◆ 品 質 ◆

- * 性能은 국립건설연구소, 국립공업시험원, 日本工業規格(JIS A-6101에 의한 시험 성적), 大韓住宅公社, 시험성적이 外國産을 능가 함을 證明한다.

◆ 用 途 ◆

- * 初期強度를 要하는 工事 * 突貫工事, 水中工事
- * 凍期工事(-15℃), 緊急을 要하는 工事
- * 시멘트 2次製品
- * 早強 Cement를 要하는 工事
- * 防水工事に 止水劑로 사용.

◆ 使用法 ◆

- * 早強효과 : 시멘트중량비 1~5%첨가
- * 防凍효과 : 시멘트중량비 6~12%첨가
- * 止水효과 : 100%원액을 사용
- * 使用水量에 稀釋사용

◆ 納品実績 ◆

- *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 대한주택공사(경남기업, 미성건설, 정우개발)
- * 부산시청 * 부산세관 * 수협중앙회 * 차명건설Co. * 송림건설Co. * 태평양건설Co. * 삼익주택(여의도 Apt) * 삼부토건(여의도 타워형 Apt)
- * 부산시청 영도제2대교가설공사(홍화공업) * 대한주택공사 사직동아파트(경남기업) * 부산제7부두축조공사(동아건설)의 200여처

三龍化學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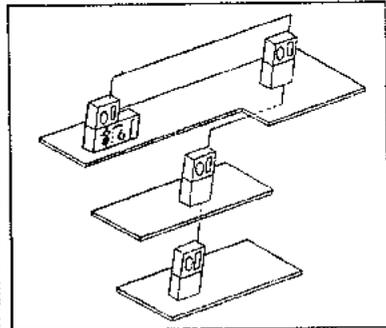
서울 ⑤ 5377·7892 부산 ③ 0777 ② 0113 ④ 0253 대구 ⑥ 1797 이리 2945 인천 ⑤ 5125 성남 ② 1807 청주 ② 1020

物品, 傳票 運搬의 現代化 設備.

先進國의 對열에 선 우리의 企業들이 보다 效率的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大韓中外商事(株)가 日本 Nippon Air-Shooter와 提携, 現代 都市建設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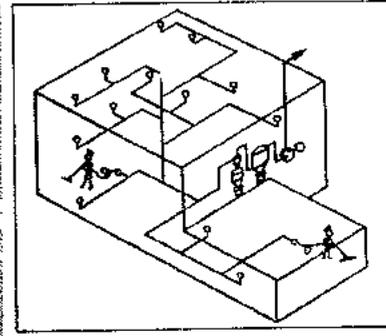
Air-Shooter.

모든 곳에서 活躍하고 있는 Air-Shooter. 書類搬送만이 아니고 分析資料의 急送, Part 搬送 등 豊富한 機種과 System으로 모든 分野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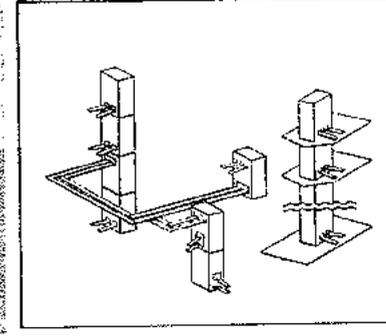
Central Cleaner.

먼지의 收集方法을 크게 바꾼 먼지 眞空輸送設備, 超大型의 眞空掃除機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는 投入口에서 輸送管을 통하여 收集됩니다.



Vertical Conveyor System.

어디서나 利用되고 있는 Vertical Conveyor System 15kg 以下の 重量으로 Tray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搬送됩니다. 즉 Building 内の Track 大量搬送에도 便利합니다.



● Air-Shooter를 主로 利用하는 곳.

銀行, 商社, Maker, 病院, 電力會社, 出版社, 保險, 証券會社, HOTEL, GOLF場 等.

製造元  日本 AIR SHOOTER 株式會社

韓國總代理店  大韓中外商事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0-2. 94-0981~4(교환), 95-4449(직통)

시멘트 혼화제 標準型

AE · 分散劑 · 減水劑

츠폴·씨

CHUPOL·C

▲ 츠폴·씨의 特性

- 單位水量的 減少 (8 - 12%)
- 作業성이 좋아짐.
- 強度增大로 Cement 節減 (8 - 10%)
- 工期短縮, 工事費節減
- 過多使用하여도 效能不變
- 非이온性이므로 鐵骨腐蝕性 없음.

▲ 츠폴·씨의 使用法

- 使用하는 Cement 重量의 0.04%가 標準임.
콘크리트 1m³을 만들때 츠폴·C 사용으로 절감되는 시멘트 량은?
(보통 콘크리트 1m³ 만들때 시멘트 320kg이 소요된다면)
츠폴·C 사용시 시멘트 10%를 절감한 (320kg - 32kg) 288kg에 츠폴·C 를 115g (288kg의 0.04%)을 투입사용하시면 됩니다.

- 시멘트 한포 (40kg)에 츠폴·씨 16g.

經濟的이며 品質優秀한
最新混和劑

▲ 使用量

츠폴·NR 遲延型

- 지연효과 : 시멘트 重量의 0.1%
- 早強효과 : 시멘트 重量의 0.5%

츠폴·Z-1 早強型

／ 脱型油는 포리존

▲ 品質保證

- 本 製品은 日本에서 20余年間 使用한 特許品임.
- 技術導入 및 合作投資로 国内 生産供給
- 国立건설연구소, 국방부조달본부, 농업진흥공사 品質시험합격, 日本工業規格 (JIS) 合格.



新韓有機化學工業株式會社

TEL : 仁川 ⑥0031 · 1407

本社 · 工場 : 京畿道 富川市 春衣洞 209 서울連絡所 : 22 - 5486 · 23 - 8821

發明 特許品 電子열쇠 (도어록) 新発売

**열쇠계의 혁신! 電子열쇠로
여러분의 財産을 保護합시다**

電子열쇠는...

1. 電子열쇠는 다른 열쇠나 어떠한方法으로도 열수 없음.
2. 電子열쇠는 故障이 全然없음.
3. 電子열쇠는 使用操作이 부드럽다.
4. 電子열쇠는 特殊磁石을 使用하여 永久的임.
5. 電子열쇠는 複製(合鍵)가 않됨.
(439, 296個가 生産될때 同一한 열쇠 한개가 나옴)

使用處 : 아파트, 住宅, 事務室, 병원
保管倉庫, 金庫, 호텔 등
販賣處 : 有名鐵物商이나 本社營業部

※ 열쇠가 더 必要하거나 紛失時는
本사로 注文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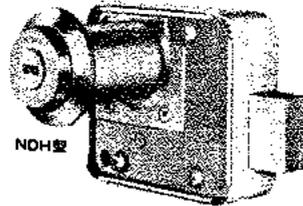
“**쥬 쫓는 초음파기 판매**”
(日本 完製品輸入)

世林貿易株式會社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 街 60-3
TEL. 776-7040 · 7041
공장 TEL. 260-1623 부산지사 : 26-8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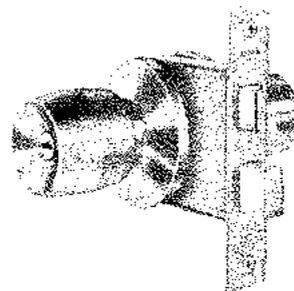
日本美和LOCK 株式会社

補助錠 (ECNDH型) 電子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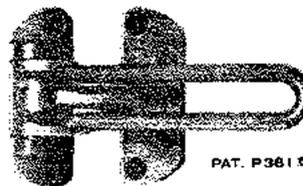
附着하기 쉬우며
堅固하고 耐久性이 좋고
防犯上 安全합니다.

도어록 (ECHMU型) 電子式



한가지型으로 左右
內外, 開門自由로
使用할수 있고, 重
要保管用途使用,
補助錠이 必要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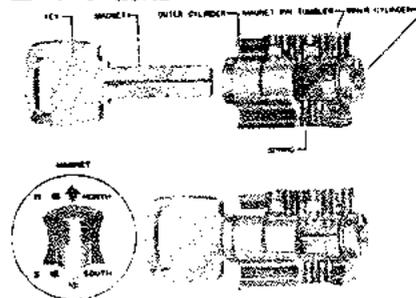
安全문고리 (SL-1型)



外部에서 門을 열때
10cm 程度만
열리고 확인후 門을
열어주는 安全고리

※ 金庫用, 家具什器用, 카비닛用,
私書函, 其他 電子열쇠가 있음.

電子열쇠의 構造



新刊

待望의 出刊

建築施工 핸드북

棚 橋 諒 編著
建築工學硏究會 訳編

크라운版 · 1,300面 定価 25,000원

建築士 · 建築技師 · 學生 · 教授 및 建設業者 必讀의 書,

이 冊은 現場實務를 위한 實際的으로 必要한 資料만을
간추려서 豊富하고 알기 쉽게 應用할 수 있도록 詳細히
說明하였다.

主要目次

I. 總 設

- 第一章 設計 및 監理
- 第二章 施工者의 決定
- 第三章 施工契約
- 第四章 施工計劃
- 第五章 施工管理

II. 準備 및 仮設工事

- 第一章 測 量
- 第二章 地盤調査
- 第三章 새끼치기 · 규준틀
· 墨내기
- 第四章 仮設工事

III. 施工各論

- 第一章 土工事
- 第二章 基礎工事
- 第三章 거푸집工事
- 第四章 鉄筋工事
- 第五章 콘크리트工事
- 第六章 鉄骨工事
- 第七章 木工事

- 第八章 벽돌工事 · 콘크리
트블록工事 · 타일
工事

- 第九章 石工事
- 第十章 미장工事
- 第十一章 防水 · 防湿工事
- 第十二章 지붕工事
- 第十三章 鉄物工事
- 第十四章 창호工事
- 第十五章 커어튼월工事
- 第十六章 유리工事
- 第十七章 塗裝工事
- 第十八章 壁 · 天障 마무리
工事
- 第十九章 바닥 마무리工事
- 第二十章 雜工事

IV. 施工特論

- 第一章 超高層建築工事
- 第二章 콘크리트 프리패
브工事
- 第三章 特殊工事

V. 建築設備

- 第一章 衛生工事
- 第二章 空氣調和工事
- 第三章 電氣工事
- 第四章 엘리베이터 · 에
스칼레이터工事

VI. 施工機械

- 第一章 掘鑿機械
- 第二章 산는 機械 및 運
搬機械
- 第三章 基礎工事用機械
- 第四章 다짐機械
- 第五章 콘크리트機械
- 第六章 크레인 其他
- 第七章 給排水 펌프
- 第八章 콤프레서
- 第九章 其他의 諸機械
- 第十章 建設機械의 經費
索 引

- 서울 : 261-4151
- 인천 : 83-2269
- 마산 : 5-3913
- 포항 : 2-6378
- 부산 : 44-9982
- 청주 : 2-7006
- 진주 : 2-5988
- 광주 : 2-0020
- 대구 : 45-2860
- 대전 : 2-5089
- 울산 : 2-2546
- 전주 : 2-0495

圖書 技文堂
出版

서울特別市 鍾路區 鳳巖洞 154
한일빌딩503號 TEL. 261-4151



Rocket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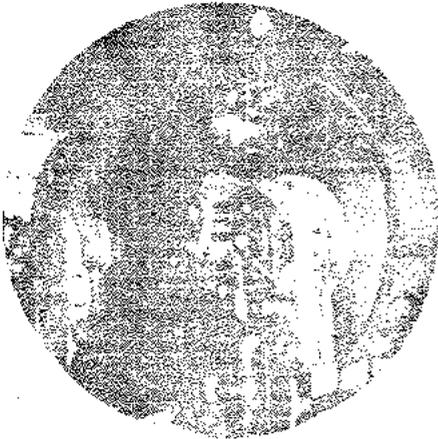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優秀商品 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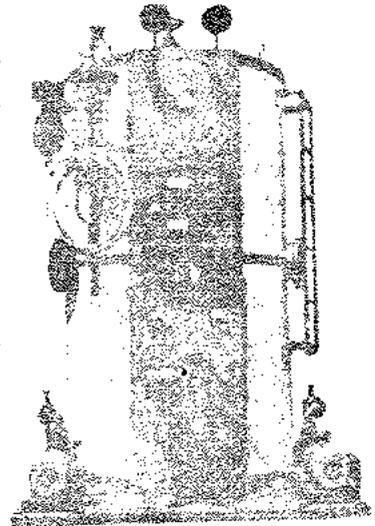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고압연관식보일러 (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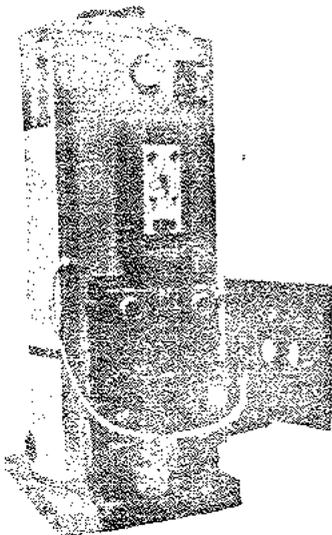
- 1ton에서 10ton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열기에의 확수와 기술 습득한 새로운 모델로 전 수평과 능란한 성능의 보일러입니다.
- 연관식 보일러의 신기원을 이룩한 제품입니다.

전자동 증기보일러 (K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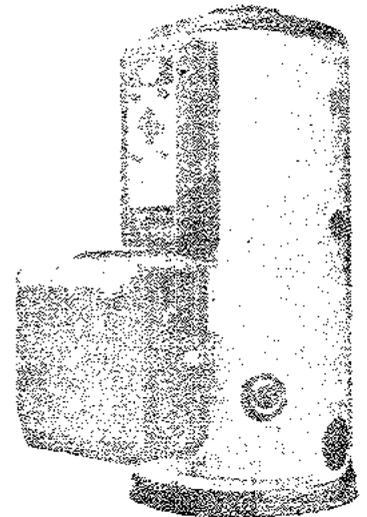
- 1000명 미만 기숙사 취사는 20분내에 해결합니다.
- 석물공장 전조 세팅 증기 다리마름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화학반응기 삼군 난방및 금당용 석물가공 공장에 적합합니다.
- 미역제조등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규격 0.2에서 0.5ton의 전자동 소형 스팀보일러로 관리에 편리하고 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전자동이므로 관리편이 필요없습니다.

다목적온수보일러 (KRZ)



- 난방용 금당용 목욕탕 전용.
- 침전시 또는 오일버어니 고장시 연탄화목및 세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제품은 5만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 touch 식입니다.
- 배부가 완전 도금처리된 금당용과 동종요일 삽입된 금당 난방겸용이 있습니다.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 (KRQ)



- 경이적인 보일러 기술의 혁신.
- 신제품 KRQ는 벨기에의 완성 기술협력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 본제품의 개발목적은 15명이상 30명미만 40명이상 60명미만 주택의 난방과 목욕을 해결 하는데 있습니다.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비와 맞먹는 기동연료비 1/6 소형 오일버어니로 전기소비가 적고 설치면적이 작은 지하실 부당 창고등에 간단히 설치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량생산 기계화도 동종 타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이 30% 이상 저렴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6) 5131-4

여의도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새우회관 6층)

전화: (782) 7373, 7387, 8757

韓國유리는 使命感을 갖고 精進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 속에서 成長하는 韓國유리는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기 爲해 끊임없이 研究
努力하고 있습니다.

◎生産製品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安全強化유리

◎맑은유리最大規格

두께 (mm)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08	2134×2743
10	84×96	2134×2438
12	84×96	2134×2438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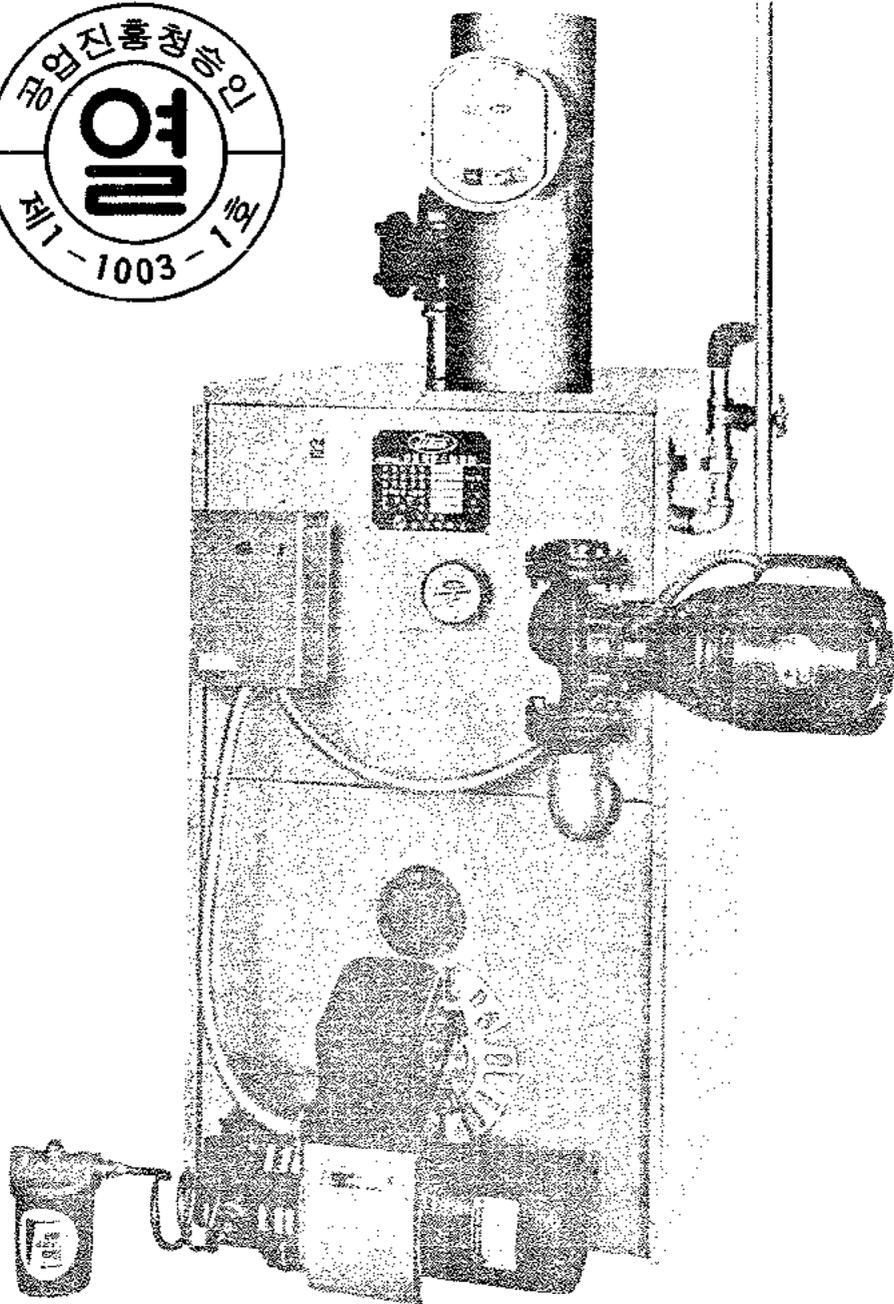
本 社 : 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㉓ 7141~5 ㉗ 8022~6
 仁川工場 : 京畿道 仁川市 東區 万石洞2 仁川 ㉗ 0111~0119
 釜山工場 : 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㉓ 4066~4070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 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 号

進洋商街 1 층 2 동 나열 109 号

TEL: 266-2807, 266-8015